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박 재 현

국립국어원 2015-01-18

|          |
|----------|
| 발간 등록 번호 |
|----------|

|                      |
|----------------------|
| 11-1371028-000594-01 |
|----------------------|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증장기 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박 재 현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5년 4월 ~ 11월

201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박재현(상명대학교)

연구 기관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재현  
공동연구원 옥현진, 김종윤, 이기연, 이유원

##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국어원의 교육 연수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살피고 성인 국어 능력의 핵심 요소를 직업 문식성과 매체 문식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둘째, 성인 국어 능력의 현재 실태를 진단하였다. 201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3,000명 규모의 성인 국어 능력을 평가한 결과와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영국과 캐나다는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으며, 일본은 독서 문화 등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 참여 문화를 형성하였다. 노르웨이는 국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성인 직업인을 위한 대규모의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었다.

넷째,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주관식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국어와 국어교육 분야 전문가 15명이었으며 성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주안점,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국어 능력 평가의 개선점 등에 중점을 두어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섯째, 성인 국어 능력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분석하였다. 2015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의 언어 인식 조사 자료 중 국어교육 관련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관심 분야와 전반적인 요구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곱째,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4대 발전 목표와 10대 추진 과제를 연도별로 수립하였다. 발전 목표 1은 ‘성인 국어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개발’로 발전 목표 2는 ‘성인 국어 능력 평가’로 발전 목표 3은 ‘교육 기반 강화’로 발전 목표 4는 ‘교육 체계 질 관리’로 설정하고 각각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 과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국어 교육, 국어 능력 평가, 국어 교육과정

# 목 차

|                                       |     |
|---------------------------------------|-----|
| 1.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의 이론적 전제 .....          | 1   |
| 1.1.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 .....          | 1   |
| 1.2. 미래 사회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   | 3   |
| 1.3. 성인 국어 능력의 핵심 요소 .....            | 6   |
| 1.4.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문해교육 .....         | 23  |
| 2. 성인 국어 능력의 실태 .....                 | 28  |
| 2.1.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의 개관 ..... | 28  |
| 2.2.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결과 .....            | 31  |
| 2.3.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 .....             | 36  |
| 2.4.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 및 시사점 .....      | 44  |
| 3.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     | 46  |
| 3.1.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 ..... | 46  |
| 3.2. 참여 문화 형성: 일본의 사례 .....           | 53  |
| 3.3.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노르웨이의 사례 .....    | 55  |
| 3.4.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지원: 독일의 사례 .....     | 57  |
| 4. 성인 국어 능력 향상 정책 전문가 의견 .....        | 59  |
| 4.1. 설문 기간 및 대상 .....                 | 59  |
| 4.2. 각 항목별 전문가 의견 .....               | 60  |
| 4.3. 전문가 의견 정리 및 시사점 .....            | 91  |
| 5. 성인 국어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          | 94  |
| 5.1. 조사 개관 .....                      | 94  |
| 5.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 94  |
| 5.3.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            | 107 |
| 5.4. 국어 능력 평가 시험 .....                | 112 |

|   |            |
|---|------------|
| <b>6.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실태</b> .....              | <b>118</b> |
| 6.1.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118        |
| 6.2. 교육 프로그램 전반 .....                                 | 125        |
| 6.3. 개별 교육 프로그램 .....                                 | 127        |
| 6.4.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한 요구 조사 .....                         | 129        |
| 6.5. 숙박 및 편의 .....                                    | 131        |
| <br>  |            |
| <b>7.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증장기 계획</b> .....                | <b>135</b> |
| <b>7.1. 발전 목표 설정 취지 1. 성인 국어 교육 과정/교육 내용 개발</b> ..... | <b>143</b> |
| [과제 1]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 .....                         | 147        |
| [과제 2] 성인 국어 능력 교재 개발 .....                           | 151        |
| [과제 3] 성인 국어 능력 교수·학습 방법 개발 .....                     | 154        |
| <b>7.2. 발전 목표 설정 취지 2. 성인 국어 능력 평가</b> .....          | <b>156</b> |
| [과제 4] 성인 국어 능력 평가 도구 개발 .....                        | 163        |
| [과제 5] 성인 국어 능력 평가 시행 .....                           | 165        |
| [과제 6] 소외 계층 국어 능력 진단 및 처방 .....                      | 167        |
| <b>7.3. 발전 목표 설정 취지 3. 교육 기반 강화</b> .....             | <b>169</b> |
| [과제 7] 강사 선발 및 지원 체계 구축 .....                         | 173        |
| [과제 8] 교육 시설 및 교육 기반 확충 .....                         | 175        |
| [과제 9]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고도화 .....                        | 178        |
| <b>7.4. 발전 목표 설정 취지 4. 교육 체계 질 관리</b> .....           | <b>180</b> |
| [과제 10]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체계 질 관리 방안 .....                  | 183        |
| <br>  |            |
| [참고 문헌] .....   | 186        |
| [부록: 전문가 서면 인터뷰 양식] .....                             | 190        |
| [부록: 국어문화학교 실태 조사용 설문 양식] .....                       | 194        |

## 표 목차

|  |    |
|--|----|
| <표 1> 미래 사회의 메카트렌드와 교육에 대한 요구 .....            | 2  |
| <표 2> 핵심 역량 요소 .....                           | 3  |
| <표 3>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실용국어’의 내용 체계 .....         | 9  |
| <표 4> SCANS 화법 능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 .....             | 10 |
| <표 5> QCDA 의사소통능력의 수준 및 성취 기준 .....            | 11 |
| <표 6> Mayer 교육위원회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            | 12 |
| <표 7> 캐나다 HRDC 구어적 의사소통능력 성취 기준 .....          | 13 |
| <표 8>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의사소통 능력’ ..  | 14 |
| <표 9> 교육부 직업기초능력 평가 ‘의사소통 국어’ .....            | 15 |
| <표 10>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대한 개관 .....     | 31 |
| <표 11> 영국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예 .....        | 48 |
| <표 12> 영국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연계 .....  | 49 |
| <표 13> 온타리오 주 성인문식성 교육과정 내용 체계: 쓰기 영역 .....    | 51 |
| <표 14>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              | 52 |
| <표 15>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별·학력별 점수 차 ... | 53 |
| <표 16>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 .....   | 61 |
| <표 17> 정책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               | 77 |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유형 및 전형 요소, 고용노동부 .....     | 7  |
| <그림 2> 인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과정 .....                      | 16 |
| <그림 3>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 방향 .....                      | 26 |
| <그림 4> 문해교육의 이론과 실제 .....                         | 26 |
| <그림 5> 국어 각 영역별 총점의 수준 등급별 분포 .....               | 32 |
| <그림 6> 국어 능력 수준의 연령대별 분포 .....                    | 33 |
| <그림 7>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 .....                   | 34 |
| <그림 8>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 35 |
| <그림 9>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 .....                 | 36 |
| <그림 10> 국제성인역량조사 점수의 국가 간 비교 .....                | 37 |
| <그림 11> 연령에 따른 언어 능력 국제 비교 .....                  | 39 |
| <그림 12> 성별에 따른 언어 능력 국제 비교 .....                  | 40 |
| <그림 13> 전공에 따른 언어능력 국제 비교 .....                   | 41 |
| <그림 14> 직종과 성별에 따른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             | 42 |
| <그림 15> 학력에 언어 능력 국제 비교 .....                     | 43 |
| <그림 16> 국외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의 조건 ..... | 46 |
| <그림 17>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령 간 점수 차 .....   | 53 |
| <그림 18>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소득 불평등성과 국어 능력 편차의 관계 ..... | 56 |



# 1.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의 이론적 전제

## 1.1.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

-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추세를 살피고 그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규명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의 환경, 대상, 방법도 다양한 양상으로 변한다. 변화의 시점마다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기도 하고 기존의 역량이 필요 없어지기도 한다. 교육은 그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육 내용에 그 결과를 효율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 미래 사회를 전망하여 교육 차원의 요구를 살핀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 변화 추세의 경향을 제시하였다(박영숙 외, 2006, 교육혁신위원회, 2007, 이해영 외, 2007, 윤현진 외, 2007, 박재윤이정마김택형, 2010, 최상덕 외, 2011, 민용성 외, 2013). 이러한 연구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구조와 인구 분포의 변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등 현재 가속화되어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세대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 의사소통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들 연구가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스마트 사회, 네트워크 사회로 불리듯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의사소통 경로와 방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구성원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이러한 변화 양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이근호 외(2012 : 62)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와 교육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분야 | 메가트렌드          |  | 교육에 대한 요구<br>(우선순위 순)                          |
|----|----------------|--|--|
| 사회 | 인구 구조의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외국인 유입 및 다문화 가족 증가, 가족 구조 변화 | 인성 교육, 평생 교육, 학생 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
| 기술 | 과학 정보 통신 기술 발전 | 기술 혁신, 네트워크(유비쿼터스) 사회,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 정보윤리 교육, 직업역량 교육(전문화·특성화 교육), 학생 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
| 경제 | 경제 환경 변화       | 직장 및 직종 다양화, 시장의 확대                    | 직업역량 교육(전문화·특성화 교육), 세계시민 교육, 경험 중심 교육         |
| 환경 | 환경 자원 문제       | 기후 변화, 환경오염, 자원 및 에너지 부족, 지속가능 발전      | 친환경 교육, 세계시민 교육                                |
| 정치 | 지구촌화 다원화       | 국제 교류 확대, 다원화 남북 관계 변화                 |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인성 교육                         |

<표 1> 미래 사회의 메카트렌드와 교육에 대한 요구(이근호 외, 2012: 62)

- 이근호 외(2012 : 62)에서 제시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요구 중, 의 사소통 차원에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성 교육, 평생 교육, 정보윤리 교육, 직업역량 교육, 다문화 교육, 세계시민 교육’ 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 예측 연구들이 교육적 방안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한 개념은 ‘역량’ 중심 교육이다. 즉,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학습자가 실제 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다.
- 교육 분야에서는 핵심 역량에 대한 여러 연구를 거쳐 현재는 박순경 외(2014 : 114-115)에서 다음 7개를 제시하고 있다.

| 핵심 역량 요소  | 하위 요소  |
|-----------|--|
| 의사소통 능력   | 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
| 자기관리 능력   |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통제(절제), 여가 선용,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자기중도학습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 생활 습관, 진로 개발 능력 등          |
| 시민 의식     |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다문화 이해, 문화 소양, 규범 및 질서 의식                                    |
| 대인관계 능력   | 타인 이해 및 존중, 공감, 배려, 협동, 갈등 관리, 리더십 등   |
| 창의적 사고 능력 |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br>창의적 사고성향(정의적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 |
| 문제해결 능력   |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
| 정보처리 능력   |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매체 활용 능력 등  |

<표 2> 핵심 역량 요소(박순경 외, 2014: 114-115)

- 국어 교과에서는 서영진 외(2013)에서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게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향유능력, 자기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였다.

## 1.2. 미래 사회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국어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사회 확대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

을 제시한 연구이고, 세 번째는 고도 전문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 문식성(job literacy) 차원에서 직무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 □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

- 사회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의사소통 교육에 대해서는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 교육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독 민족과 혈통의 균질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인구 분포에서 제외 동포, 북한이탈주민, 이주 노동자나 국제결혼여성 등 외국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 또는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해 개인적 차원,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은 이 연구의 범위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 다중모드 텍스트를 활용한 매체 의사소통 역량

-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중 다문화 사회 다음으로 의사소통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사소통 경로, 방식, 환경의 다양화이다. 스마트 시대, 네트워크 사회, 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대면하여 음성, 표정, 몸짓으로 소통하던 전통적 구어 의사소통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옥현진(2013 : 69-70)에서는 여러 기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 임철성(2011 : 280-281)에서는 디지털 사회를 대비하는 의사소통 교육에 대해 논하면서, 의미 소통의 매체가 달라지면 사고의 소통 구조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디지털 언어가 소통의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에는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변하고 즉시적이며 단편적인 소통 방식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였

다.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디지털언어를 포함하여 재정의하고, 디지털언어 매체의 속성을 반영하고 보기 요소를 포괄하여 복합적 언어 형태의 소통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전은주(2014 : 13-14)에서는 면대면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소통 교육 목표의 전형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정보 기술과 디지털 문화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구두 의사소통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에 대해서는 디지털 문식성에 대한 교육 없이도 일정 수준의 사용 능력을 보유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의사소통의 언어 예절과 같은 관습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스마트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 내용 요소로는 1인 보도 방송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에 따른 윤리 의식, 웹기반 토론과 같은 다중담화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과 예의를 지키는 태도, 효과적인 매체 사용과 채널 선택 전략과 예의를 갖춘 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 연구 차원에서는 전은주(2014)의 연구가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윤리나 예의와 같은 정의적 측면이나 인성 요소와 연관 지어 제시한 것과 같은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CT 활용 능력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교육의 차원에서는 의사소통 상황, 대상, 목적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적절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효과성이 디지털 기기와 매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활용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적절성은 정보 윤리를 준수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과 같은 정의적 차원의 역량과 관계가 있다.

#### □ 전문화 사회 도래로 인한 직무 의사소통 역량

- 산업 구조가 단순하였던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의 직업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되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역량도 그에 상응하여 구체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민병근(2013)에서는 고도 전문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소통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의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전문성을 전제로 의사소통 능력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전문화된 사회에 필요한 교육적 접근을 전문가 집단에게 필

요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어 능력의 신장과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다른 나라의 경우 직업 문식성(job literacy)이나 직업기초능력(core competence)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수준별 역량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미국은 ‘필수 기능(Necessary Skills)’이라는 용어로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에서 주관하여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역량을 개발하고, 기초 능력으로 읽기능력, 쓰기능력, 수리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을 설정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필수 기능(Essential skills)’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채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여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 목적의 채용과 평가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설정하고 있다.

### 1.3. 성인 국어 능력의 핵심 요소

#### (1) 직업 문식성(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 능력)

- 본 연구에서는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의 한 축으로서 직업 문식성(job literacy)을 상정하였다. 이에 이 절에서는 직업 문식성의 성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ㄱ) 직업 문식성(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 능력)의 성격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

-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이 교육, 훈련, 평가에 도입됨에 따라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

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을 의미한다. 국가직무 능력표준은 개별 직무와 관련된 전공지식이나 능력 외에도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을 규정하고 있다.

- 직업기초능력이란 기초적인 학력이 아닌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 으로 정의된다(주인중·박동열·진미석, 2010).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경우에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key skills, workplace know-how, key competence, core competence 등으로 부르고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 수리활용,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활용, 기술활용, 대인관계, 자기개발, 조직이해,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5년에 들어서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습과 훈련의 차원을 넘어 인재 선발의 근간으로 설정되었다. 기존의 인성과 적성 시험들이 NCS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전공 관련 시험은 필기 혹은 실기를 포함한 전공 능력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다.

| 채용방식           | 일반공채<br>(유형 1) | 직군별 채용<br>(유형 2)      | 직무별 채용<br>(유형 3)        |
|----------------|----------------|-----------------------|-------------------------|
| NCS 기반<br>평가도구 |                |                       | 직무수행능력<br>(내·능력단위별 NCS) |
|                |                | 직무수행능력<br>(중·소분류 NCS) | 직무수행능력<br>(중·소분류 NCS)   |
|                |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
|                | 능력중심 채용유형 1    | 능력중심 채용유형 2           | 능력중심 채용유형 3             |

<그림 1>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유형 및 전형 요소, 고용노동부(2015: 6)

### □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 교육부는 2011년부터 직업기초능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전국의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초능력평가 제도를 도입 후 안정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고졸 직무자들의 현장 직무 분석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국가 교육과정 ‘NCS 기반 고교 직업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보통 교과에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실용경제, 지식재산일반’ 다섯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실용국어’의 성격(2015 국어과 교육과정)**

‘실용 국어’는 초·중·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직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어휘 사용 및 말이나 글의 내용 이해와 표현 능력,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실용 국어’는 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직무 관련 국어 사용능력을 길러 학습자가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용 국어’를 통해 학습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말이나 글, 자료나 정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사회생활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예절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기른다.

‘실용 국어’에서 추구하는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고,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이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학습자는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해석과 구성, 효과적인 설득과 협력적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기르고, 언어 예절과 공감적 대화법,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를 학습하고 교양을 갖추기 위한 의사소통 활동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른다. 한편,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성찰·



계발 역량을 함양한다.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실용국어’ 의 목표**

직업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른다.

가. 직업 분야에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국어 사용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실용국어’ 의 내용 체계**

| 영역            | 핵심 개념   | 일반화된 지식  | 내용 요소  | 기능  |
|---------------|---|--|--|---|
| 직무 어휘와 어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선택</li> <li>문장 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맥락에 맞는 어휘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할 때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맥락에 맞는 어휘</li> <li>어법에 맞는 문장</li> </ul>                       |   |
| 정보의 해석과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해석</li> <li>정보 조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의 수집과 분석</li> <li>정보의 추론과 해석</li> <li>정보의 조직과 전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 상황 이해하기</li> <li>정보 해석하기</li> <li>정보 평가·분류하기</li> </ul> |
| 설득과 협력적 문제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득</li> <li>의사 결정</li> <li>문제 해결</li> <li>갈등 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협력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장과 근거</li> <li>합리적 의사 결정</li> <li>협력적 문제 해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조직·전달하기</li> <li>논증하기</li> </ul>                        |
|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 관계</li> <li>언어 예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예절을 지키며 공감적으로 소통할 때 대인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예절</li> <li>공감적 소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결정·문제 해결하기</li> <li>상호 소통하기</li> <li>점검·조정하기</li> </ul> |
| 문화와 교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문화</li> <li>자아 성찰</li> <li>교양 함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교양을 함양할 때 직무 수행 능력도 신장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li> <li>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성찰과 교양 함양</li> </ul>        |   |

〈표 3〉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 ‘실용국어’ 의 내용 체계

(ㄴ) 직업 문식성(직업기초능력)의 국내외 현황

- 우선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해온 해외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직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취 기준을 수준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화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미국의 직업기초능력

- 미국은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에서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역량 중 기초 능력으로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수리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설정하고 있다(이종범 외, 2008). 이중 화법 영역에 해당하는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준 | 성취 기준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하고 순차적인 지시를 따른다.</li> <li>• 적절한 질문을 한다.</li> <li>•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히 반응하며 경청한다.</li> <li>• 표정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한다.</li> </ul>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li> <li>• 미리 정해진 지시에 따라 일상적 구두 보고를 한다.</li> </ul>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간, 집단 토의를 통해 얻은 언어적 정보에 추가 질문과 반박을 구성한다.</li> <li>• 유머, 어조, 비언어적 신호와 같은 미묘한 것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한다.</li> </ul>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여 설득한다.</li> <li>• 청중에게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한다.</li> <li>•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다.</li> </ul>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조직화하여 조리 있게 발표한다.</li> <li>•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혹하는 질문에 대답한다.</li> </ul>   |

〈표 4〉 SCANS 화법 능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조정운, 박동열, 김종우, 2003의 내용 수정)

- 미국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듣기와 말하기를 개별 수준마다 함께 묶어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메시지와 관련된 사항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호작용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현혹하는 질문에 대처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즉, 예기치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높은 수준의 특성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영국의 직업기초능력

- 영국은 자격인증교육과정원(QCDA)이 주도하여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였는데 이중 의사소통 능력을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적절히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자료를 읽거나 듣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수준별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 수준 | 성취 기준   |
|----|---|
| 1  | •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기  |
| 2  | • 토론을 진행하는 데 도움 주기<br>• 주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여 간단한 대화하기   |
| 3  | • 복잡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 타인이 참여하도록 기회 만들기<br>•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표현하기<br>• 적절한 형태나 형식을 선택하여 복잡한 주제에 대해 조리 있게 정보 구성하기 |
| 4  | • 의사소통 능력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하기<br>• 효과적인 집단 토론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적용하고 점검하기<br>• 전체 전략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기                      |

〈표 5〉 QCDA 의사소통능력의 수준 및 성취 기준(화법 내용만 선별함.)

- 영국의 화법 영역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토론과 같은 집단 의사소통에 협력하며 기여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론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논증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는 차원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토론의 진행에 기여하거나 타인의 참여 기회를 독려하는 등 집단 상호작용의 다양한 국면에서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여기고 이를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 호주의 직업기초능력

- 호주는 호주상공회의소(ACCI)와 호주경영협의회(BCA)가 주도하여 산업체 중심의 고용 가능 기능(employability skills)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Mayer 교육위원회에서는 핵심 역량(key competency) 중 ‘아이디어와 정보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ng ideas and information)’ 을 ‘광범위한 구술, 문장, 도형과 기타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수준별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 수준 | 내용   | 사례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형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함.</li> <li>정해진 정보를 목적에 맞게 조직함.</li> <li>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인지 점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의사소통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뷰를 실시함.</li> <li>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어떤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함.</li> <li>회의 안건을 제시함.</li> </ul>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상황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함.</li> <li>공통점 없는 정보의 연관성을 만들어 전달함.</li> <li>피드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 장소로 가는 빠른 길을 설명함.</li> <li>공사 현장의 위험 상황에서 의사소통함.</li> </ul>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상황에 적합한 형식으로 조정하여 의사소통함.</li> <li>피드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평가함.</li> <li>표현 방식을 맥락에 따라 변경함.</li> <li>다양한 맥락의 정보를 해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함.</li> <li>예상 못한 청중의 반응에 대응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고 조정함.</li> <li>연설 후 청중의 질문에 대답함.</li> <li>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중에게 요리법을 시연함.</li> </ul> |

<표 6> Mayer 교육위원회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조정윤 등, 2003)

- 호주의 의사소통 능력 중 화법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발췌하여 살펴본 결과, 미국과 같이 낮은 수준에서는 정해진 형식을 사용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처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강조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듣기와 말하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듣기와 말하기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부각하여 피드백을 통한 소통 과정의 조정을 하위 능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캐나다의 직업기초능력

- 캐나다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필수 기능(Essential skills)’ 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이중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을 ‘생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화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br>준 | 성취기준   |   |
|--------|--|---|
|        | 의사소통 기능의 범위와 복잡성   | 정보의 범위와 복잡성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서 제한적으로 구어적 의사소통하기</li> <li>• 일상적 질문에 대답하며, 간단한 지시문을 따르고 전달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범위의 주제, 익숙한 화제, 하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기</li> <li>•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언어로 의사소통하기</li> <li>• 간단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하기</li> </ul>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구어적 의사소통하기</li> <li>•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반문으로 정보를 획득하기</li> <li>• 상세하고 단계적 지시문을 따르고 전달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범위의 주제, 익숙한 화제, 하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기</li> <li>• 사실적이며 구체적추상적 언어로 의사소통하기</li> <li>• 다소 복잡하며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하기</li> </ul>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업무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구어적 의사소통하기</li> <li>• 상세하고 복잡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 획득, 교환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이슈, 이론적 이슈 등과 같은 주요 범위의 주제로 의사소통하기</li> <li>•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로 의사소통하기</li> <li>• 복잡하며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하기</li> </ul>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복잡한 업무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구어적 의사소통하기</li> <li>• 집단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돕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범위와 심도 깊은 주제로 의사소통하기</li> <li>•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적, 기술적 언어로 의사소통하기</li> <li>• 매우 복잡하며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의사소통하기</li> </ul>              |

<표 7> 캐나다 HRDC 구어적 의사소통능력 성취 기준(이종범 등, 2008)

- 캐나다의 경우 정보의 복잡성이 수준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실적이고 좁은 범위의 정보를 다루는 의사소통은 낮은 수준으로 복잡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의사소통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한국의 직업기초능력

- 한국의 경우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구체화 된지가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아 현재는 능력별 수준까지는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는 주인공박동열·진미석(2010)에서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NCS)에서는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 능력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           |  |
|-----------|--|
| 경청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
| 의사 표현 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           |
| 문서 이해 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
| 문서 작성 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
| 기초 외국어 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

<표 8>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 ‘의사소통 능력’

- 교육부의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국어’ 영역의 측정 능력을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내용 측에 ‘말/글’, 행동 측에 ‘이해/표현’을 설정하여 결국 이를 조합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라는 보편적인 평가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상세한 개념 정의와 수준별 구체적인 행동 지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이 해      | 표 현      |
|-------------------|----------|----------|
| 말<br>(대화, 연설, 소리) | 청취력      | 언어구사력    |
| 문서<br>(글, 도표, 그림) | 문서 이해 능력 | 문서 작성 능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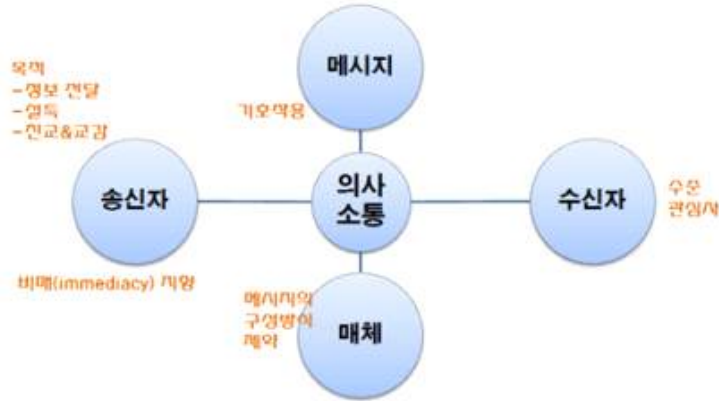
〈표 9〉 교육부 직업기초능력 평가 ‘의사소통 국어’

## (2) 매체 문식성

- 본 연구에서는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의 한 축으로서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을 상정하였다. 이에 이 절에서는 매체 문식성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ㄱ) 매체 문식성의 개념

- 매체 문식성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의사소통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이 두 의사소통 주체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다. 우선 송신자는 의사소통의 목적(정보전달, 설득, 친교·교감 등)을 가지고 수신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며 메시지를 만들어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그림 2> 인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과정

-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매체(media)이다. 인류는 의사소통을 위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를 삼분하면 크게 음성, 문자(문자를 기록하는 각종 수단 포함), 디지털(각종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도 포함)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발달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미)를 가능한 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자의 사용으로 인간은 메시지를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여 전달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여러 사람을 거치는 동안 원래의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매체가 달라지면 의사소통의 방식도 변모하기 때문에, 각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매체 문식성 교육의 주요 관심사이다.
- 구어 의사소통과 인쇄 매체 기반의 문식성 교육은 기존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에서 주를 이루어 왔던 만큼 여기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매체 문식성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ㄴ) 매체 문식성 교육의 내용: 디지털 문식성을 중심으로

- 디지털 문식성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의사소통은 기존에 음성 언어에 의존하던 방식,



그리고 문자와 인쇄 매체에 기반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디지털 문식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 □ 비선형적(하이퍼텍스트) 읽기 능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와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가 심리적 과정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각 매체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매체란 정보를 담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릇은 정보가 조직되고 제시되는 방식(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보의 조직과 제시 방식이 달라지면 그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 즉 읽기의 심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 책과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면, 우선 인쇄 매체인 책의 경우 그 원형은 점토판, 죽간, 파피루스, 양피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책이 지금과 같은 형태, 즉 코덱스 방식(인쇄된 종이를 순서대로 쌓아 한쪽을 제본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데는 종이와 활판 인쇄술의 공이 크다. 두루마리 형태이든 코덱스 형태이든 이들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의 공통된 특성은 선형성을 띤다는 점이다. 즉 이들 매체에 담긴 정보는 대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 생산자(필자)의 몫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는 선형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른바 하이퍼링크라 불리는 정보 제시 방식이 그것인데 이 방식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그물망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배열되면 독자들은 서로 관련 있는 정보에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각자의 관심, 수준,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유로운 읽기 방식은 자칫 독자들을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로 이끌 우려도 안고 있다. 방향감 상실이란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애초의 읽기 목적을 망각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 우편 수신함을 확인하러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정작 수신함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가십거리만 따라다

니는 경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지적 과부하란 읽기 과정에서 수집된 과도한 양의 정보로 인해 정보를 선별·조직·관리하는 인지적 과정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읽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처음과 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쇄 매체 환경과는 달리 하이퍼링크로 끝없이 이어진 인터넷 환경에서는 독자가 스스로 읽기 활동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방향감을 상실한다는지 필요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인지적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읽기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읽기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제 해결에 부합하는 읽기 자료가 인터넷 공간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읽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읽기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다양한 기호에 대한 이해 능력

- 디지털 텍스트는 음성,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기호가 결합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여기서 복합양식이란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표현 방식을 가리키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텍스트를 복합양식 텍스트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해 온 텍스트의 상당수는 복합양식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아이들이 즐겨 읽는 그림책은 그림과 문자라는 두 기호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심지어 문자로만 가득해 보이는 텍스트 내에서도 특정 부분에 다른 색상을 적용하거나 특정 문자의 활자 크기를 키우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그림의 기호 체계 작용 방식을 문자 체계에 적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는 기호 체계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인쇄 매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지면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된 기호 체계가 문자, 이미지, 사진이며, 그만큼 복합양

식의 양상도 제한적이다. 반면 디지털 매체에서는 인쇄 매체에서 실현 가능한 복합양식의 양상 외에 동영상, 음성, 음향, 애니메이션 등 추가적인 기호 체계들을 사용하여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중에서 어떤 양식의 텍스트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필자의 의도, 동원할 수 있는 기술, 독자에 대한 고려(독자의 수준과 관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양식 텍스트가 증가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 □ 정보의 수집과 관리 능력

-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5-10년 안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에 가치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는 것은 지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나 쓸데없는 정보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지식경영의 중심과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여과, 축출, 정제, 체계화, 평가하는 것이다.(요아힘 모르 외,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2011, pp. 18-19)
- 대량 생산과 표준화가 중요했던 산업화 시대에 읽기의 문제는 주로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로가 공통된 이해에 이르는 것이었다. 하나의 지문을 제시한 뒤에 그 지문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선택형으로 묻는 읽기 평가 관행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읽기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읽기 영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평가가 확산된 시기도 산업화·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1910년대였다. 이처럼 20세기의 읽기 문제는 대개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상당수의 읽기 문제는 읽을 텍스트를 제대로 찾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식의 원천이 다양하고 지식의 양도 많아졌으며 같은 화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이나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읽기 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우에 부정확한 정보나 유효 기간이 지난 정보, 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친 정보에 편중하다 보면 정확한 판단에 이르기 어려우며, 그런 상황에서 내린 의사 결정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선별·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보관되고 소통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 생산된 정보는 한곳으로 모아져 위계적으로 조직·관리되었으며, 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보관된 곳을 직접 찾아가서 빌리거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블로그나 트위터, 또는 어느 기관의 누리집처럼 네트워크의 구석 구석에 편재(遍在)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건너편에서 생산된 정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만 지원된다면 해당 정보를 내 책상에 앉아서도 즉시 구입할 수가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읽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편재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드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어디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숨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앞서 소개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색 능력과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도구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 우선 검색의 경우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찾아낸 반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검색이란 것이 단순히 유명 포털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아무 단어나 하나 입력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데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최선의 정보를 검색해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합양식’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고자 할 때 상업적인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검색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 정보의 성격이 학술적인 것인 만큼 이 경우에는 학술 자료 검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복합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검색하기보다는 ‘복합양식’과 ‘개념’ 또는 ‘복합양식’과 ‘그림책’ 등 찾고자 하는 정보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조합하여 검색하면 훨씬 더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보 생산자의 사회적 명망이나 신뢰도, 정보의 유효 기간 등도 검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로,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그렇게 남긴 인지적 자원을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주 접속하는 웹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해 두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활용 방법이다. 인쇄 매체 텍스트에서 색인을 활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텍스트에서는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찾고자 하는 개념이나 인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읽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실의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흔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교실의 고민 중 하나는 지식의 역전 현상, 즉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교사들을 앞서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학생들은 반복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찾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 지식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터넷의 지식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해결한다. 이른바 집단 지성의 위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 **비판적 읽기와 사회적 참여 능력**

- 21세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식 기반 사회라는 점이다. 지난 세기에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여 부를 창출하던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1세기에는 무형의 지식 상품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제러

미 리프킨은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3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 규정하였다. 리프킨이 언급한 내용에서 핵심어들을 살펴보면, ‘협력’ 과 ‘창의’ 는 곧 지식 생산의 방법, 그리고 ‘수평적 권력’ 은 지식 생산의 결과와 관련이 깊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고 가속화하기도 한다.

-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표제어 수나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위키피디아가 인쇄 매체 백과사전의 대표적인 브리태니커의 권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에는 학술 목적으로 쓰인 글에서도 위키피디아를 참고 문헌의 출처로 제시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위키피디아가 이러한 권위를 획득한 것은 전 세계 수많은 누리꾼들이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등재된 정보를 검증하여 즉각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반면, 브리태니커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다시 인쇄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키피디아의 강점 중 하나이다.
- 권력 구조의 변화는 이처럼 지식 생산의 주체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지식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의 비물질적 속성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전달되는 지식 속에는 그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의 의도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인쇄 매체 환경에서 지식은 주로 대학, 출판사, 신문사 등 소수 집단이 생산하여 대중들에게 독점적으로,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위의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이들 소수 집단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수의 대중과 종종 경쟁 관계에 놓인다.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1인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는 데에서도 전통적 권력 구조의 균열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들 1인 매체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매체를 통한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 이러한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읽기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읽기 능력이란 하나의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내적 논리의 일관성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읽기 능력

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을 말한다. 즉 텍스트를 생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텍스트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텍스트가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독자들의 태도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읽기는 다른 이들이 생산한 지식을 수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지식이 독점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견제하기가 용이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섭 활동도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각 개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이는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결국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각 독자에게 맡겨진 몫인 셈이다.

## 1.4.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문해교육

- 이 절에서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바라 본 성인문해력의 개념과 성인문해교육 제도 및 성인문해력과 문해교육 사이의 간극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 성인문해교육의 개념

- 최운실(2006)은 유네스코 및 OECD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1) 단순 문해력으로서의 성인기초능력, (2) 기능 문해로서의 성인기초능력, (3) 지식기반 사회 핵심 역량으로서의 ‘다차원적 포괄적 생애능력’을 전제로 한 성인기초능력의 세 가지 모형으로 문해력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순 문해력은 “이름 자 정도 쓸 수 있거나 간단한 셈하기 수준” (2006: 230) 혹은 최소한의 읽기 및 쓰기의 수준을 뜻하는 말이다. 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는 직업세계에서의 기초능력을 포함한 문해력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 문해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문해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고차원적 문해력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문해력에 대한 3분화 구분은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민현식(2015)에서는 문해의 개념을 (1) 단순 문해, (2) 기능 문해와 전문 문해, (3)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리 문해, (4) 비판 문해 및 문제 해결력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단순 문해는 최운실(2006)에서의 단순 문해력과 유사한 개념이며, 비판 문해에 이르러서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민현식(2015)에서 제안한 나머지 문해력은 기능 문해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이지혜·허준(2014)에서도 성인 문해력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한 (1) 기초문해(basic literacy), (2)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3) 비판문해(critical literacy)와 유사한 내용이다.
- 박인중(2009)에서는 이와 같은 기초 문해, 기능 문해, 비판 문해를 거친 후에 보다 문해의 개념이 확대되어 정보 문해, 문화 문해, 가족 문해, 금융 문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즉 문해력은 처음에는 문자 이해와 같은 기초적 수준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 □ 성인문해교육 제도

- 성인문해교육 관련 근거는 평생교육법(법률 13228호, 시행 2016. 3. 28)의 제1장 총칙에서의 제2조 및 제6장에 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 성인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해교육은 주로 성인의 “문자해득(을 포함한 기초 생활능력)” 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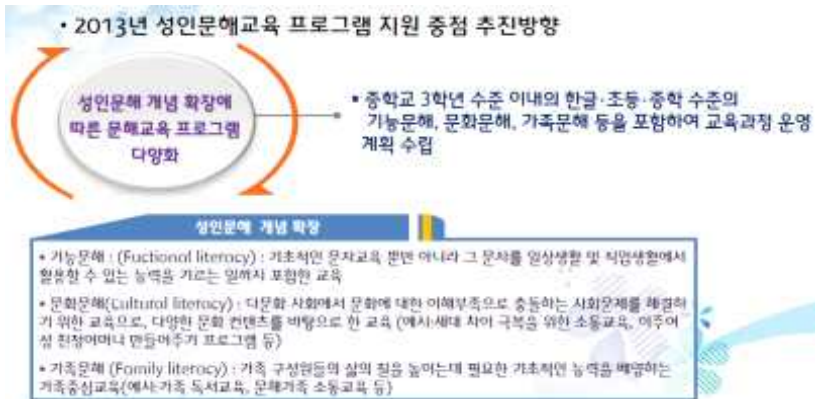


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특히, 평생교육법 6장 40조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 하여 학력인정을 법제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 초등학교 성인문해교과서 개발, 2009년 초등과정 워크북 및 중학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단계별로 만들었으며, 그 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인정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1-2014년도 초등학력 인정 졸업자는 2539명에 이르렀다.
- 문제는 문해교육 이론의 다양성과 깊이에도 불구하고, 문해교육의 주요 참여자가 기초문해력이 필요한(글깨치기나 초등학생 학력이 필요한) 성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문해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문해력의 수준은 기초 문해나 기능적 문해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성인문해교육과 관련 지원사업 공고 설명회(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의 최고 수준을 중학교 3학년으로 보고 있으며, 비판적 문해력과 같은 고차원적 문해력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직업 탐구 및 직무 능력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해 교육 및 고차원적 문해능력 교육이 제도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방향(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성인문해력과 문해교육 사이의 간극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개념화한 넓은 범위의 성인 문해력이 평생교육법과 같은 현실적 문해교육에 다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은 성인문해력과 문해교육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문해교육이 평생교육학에서 바라본 다양한 수준에서의 문해력 수준 중 가장 초·중급의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현재의 성인문해교육이 갖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문해교육의 이론과 실제

- 이들 성인문해교육에서 사회에서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요구되는, 수준이상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직업 문식성(job literacy)이나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성인 국어 능력의 실태

- 이 장의 목적은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먼저,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 (The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CC) 결과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성인들의 국어 능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교육적 처치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 2.1.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의 개관

-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에 대한 대단위 실태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국어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이다. 이 평가는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5년 주기로 이러한 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 (김종철 외, 2013:1)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평가는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교 문항(anchor item)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국어 능력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3년도 국어 능력 평가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sup>1</sup>의 다섯 영역의 문항에 성인 남녀 3,000명이 참여하였다. 이 평가는 국어과 전체 영역을 조사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 둘째, 국제적 수준에서 성인의 역량(competencies)을 측정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가 있다. 이 평가는 OECD 국가에서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인적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 (한국직업

<sup>1</sup>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이라고 제시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주된 영역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임을 명시하였다.

능력개발원, 2013:12)으로 개발된 국제비교평가 프로젝트이다. 성인의 역량을 ‘언어 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분하여 국제적인 비교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이 평가에는 전 세계 24개 국가(혹은 국가 일부 지역)에서 15만 7천여 명의 성인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성인 6,667명이 참여하였다. 이 평가는 대단위 표집을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도가 높으며,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능력을 읽기 중심으로 한정<sup>2</sup>하였으므로, 듣기·말하기·쓰기의 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보다 구체적인 두 평가에 대한 개관은 <표 10>에 기술되어 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는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점에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 평가의 결과만을 가지고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두 평가를 각각 살펴본 후 이 두 평가에서 수렴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               |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br>(김종철 외, 2013)            | 국제성인역량조사<br>(OECD, 2013; 직능원, 2013)                                |
|---------------|--|--|
| 조사 시기         | 2013년 9.1 ~ 11.15.                       | 2011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  |
| 국어(언어) 능력의 정의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 | 사회 참여, 목표 달성, 개인의 지식과 가 능성 개발을 목적으로 문서화된 글을 이해·평가·활용하며, 글로써 소통하는 것 |
| 영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                       | 언어 능력(읽기 중심) <sup>3</sup>  |

<sup>2</sup>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언어 능력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17)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이 정의의 핵심은 언어능력이 읽기에 한정되며, 듣기 능력과 작문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어 능력은 흔히 읽기뿐 아니라 쓰기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UNESCO, 2005)되지만, 쓰기의 영역은 본 PIAAC에서 언어능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국제 비교평가에서 신뢰성 있고 타당한 방식에서 쓰기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  |   |
|----------------|--|---|
|                | 법  |   |
| 인원             | 20-59세 성인 남녀 3000명<br>(실제 분석 데이터는 2916명:<br>'가' 형 1416명, '나' 형<br>1500명)   | 15-64세 성인으로 한국은 6,667명이 참여<br>(전세계 24개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 지<br>역에서 15만 7천 명의 성인이 참여)   |
| 표집 방식          | 2단계 층화 추출 방식 및 집<br>락 추출 방식으로 표집(성,<br>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br>직업군의 5개 변인을 고려)   | 지역에 따른 층화 3단 집락 확률비례 계통<br>추출법에 따라 표본 추출(조사 응답률은<br>75%)  |
| 언어 수준 구분<br>방식 | 4수준 <sup>4</sup><br>• 우수: 국민 공통 기본 교육<br>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br>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br>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br>수준<br>• 보통: 국민 공통 기본 교육<br>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br>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br>을 상당 부분(50%-80%) 획득<br>한 수준<br>• 기초: 국민 공통 기본 교육<br>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br>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br>을 부분적으로(20%-50%) 획<br>득한 수준<br>• 기초 미달 | 6수준(직능원, 2013: 18 참조)<br>• 5수준(376-500): 복수의 긴 지문에서 정<br>보를 찾거나 조합하거나, 유사·반대되는<br>관점을 종합할 수 있음<br>• 4수준(326-375): 복잡하고 긴 지문에서<br>정보를 통합·해석·종합하기 위해 다양한<br>단계를 수행할 수 있음<br>• 3수준(276-325): 하나 이상의 정보를 확<br>인·해석·평가함<br>• 2수준(226-275): 지문과 정보를 연결시킬<br>수 있음<br>• 1수준(176-225): 질문, 주어진 정보와 동<br>일·유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br>• 1수준 이하(176미만): 친숙한 주제의 간<br>단한 지문을 읽고 구체적인 정보를 위치시<br>키는 과제 |
| 참고배경변인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br>(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기<br>타)   | 인구통계학적 배경, 교육 및 학습 관련 변<br>인, 고용상태, 근무경력 및 직무특성, 사회<br>참여 및 건강, 비인지적 역량들 등  |
| 평가의 장점         | •국어 능력 전체 영역(듣기,<br>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을<br>조사하여 국민의 전반적인<br>국어 능력을 평가함<br>•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 •세계적인 수준에서 언어 능력을 포함한<br>한국 성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br>할 수 있음   |

|        |  |  |
|--------|--|--|
|        | 수 있음   |  |
| 평가의 약점 | •국제적 수준에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 |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을 읽기 중심으로 한정하여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모두 측정하기 어려움 |

〈표 10〉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대한 개관

## 2.2.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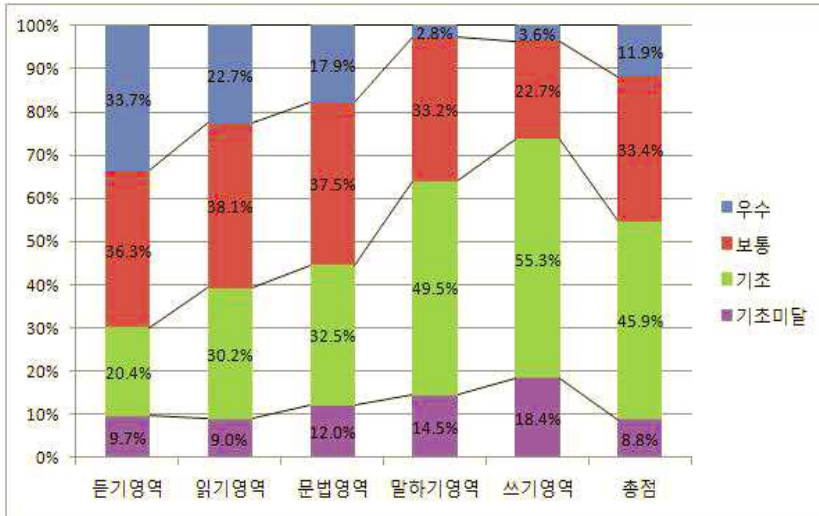
-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실태는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김종철 외, 2013)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sup>5</sup> 이 절에서는 김종철 외(2013)의 연구 중에서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를 다룬 전반적인 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및 재진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후술할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총체적인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013 국민의 국어 능력 보고서에서 기술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결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앞의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국어 능력은 언어 수준의 구분 방식을 우수에서부터 기초 미달까지 네 수준으로 나누었다. 이 기준의 근거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얼마나 이수했느냐에 있다.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우수’로, 50~80%에 도달한 경우는 ‘보통’으로, 20~50% 달성

<sup>3</sup> “문서화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하여, 글로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언어 능력은 글로 표현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문자의 이해, 해석,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작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직능원, 2013: 17). 그런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디지털 상황에서의 읽기 능력을 언어 능력 평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sup>4</sup> 이 네 수준의 구분은 PISA의 등급 분할 방식을 따른다고 하며, 이를 앵코프(Angoff)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하나, 각 수준이 어떤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으로만 제시되었다.

<sup>5</sup> 김종철 외(2013)의 보고서 외에, 영역별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참고할 만한 논문은 말하기의 경우 민병곤·정재미·박재현(2014), 읽기의 경우 이지수·김봉순(2015), 쓰기의 경우 주재우·박은진·김종철(2014)을 참고할 수 있다.

할 때는 ‘기초’ 로, 20% 미만일 때에는 ‘기초 미달’ 로 등급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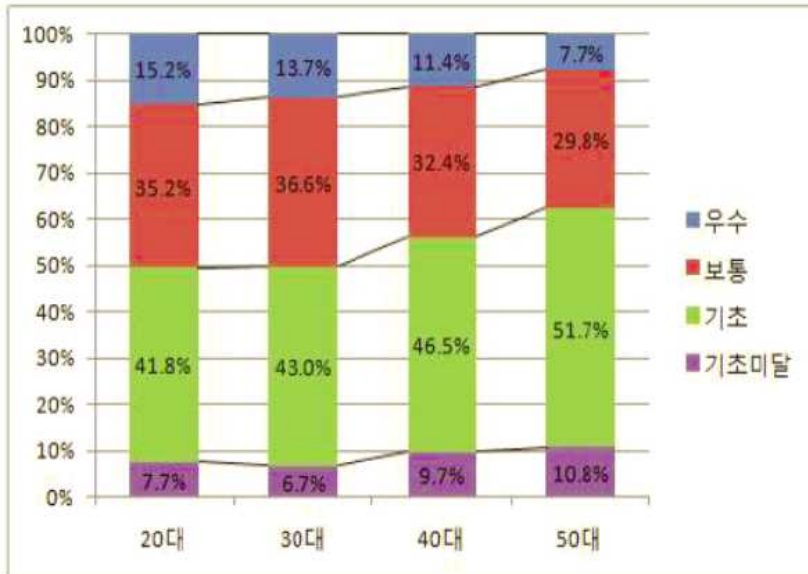
<그림 5> 국어 각 영역별 총점의 수준 등급별 분포(김종철 외, 2013: 292)

- 위의 <그림 5>는 국어 능력 평가에서 한국 성인이 획득한 영역 점수 및 총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총점의 수준을 보면 한국 성인의 8.8%가 기초 미달로 나타나고 있으며, 45.9%가 기초 수준에, 33.4%가 보통 수준을 차지한다. 오직 한국 성인의 11.9%만이 우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응시자의 절반을 넘는 54.7%의 국민들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부분적으로(50%미만) 이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이 저조한 편이며, 정책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 둘째, 영역별로 국어 능력에 대한 편차가 있다. 위의 <그림 5>는 국민의 국어 능력이 영역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은 듣기(33.7%)이며, 읽기(22.7%)와 문법(17.9%)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2.8%)와 쓰기(3.6%)의 우수 수준은 5%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우수 수준에 대한 이러한 비율은 보통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이를 다시 표현· 이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현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국어 능력 수준이 이해에 해당하는 듣기·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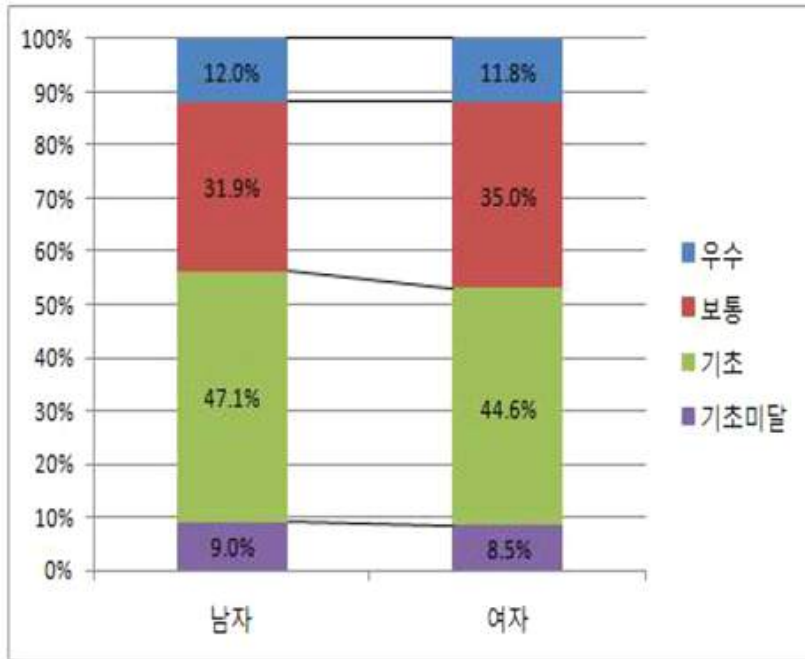
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편차는 앞으로 성인 국어 능력 신장 정책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 셋째,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15.525,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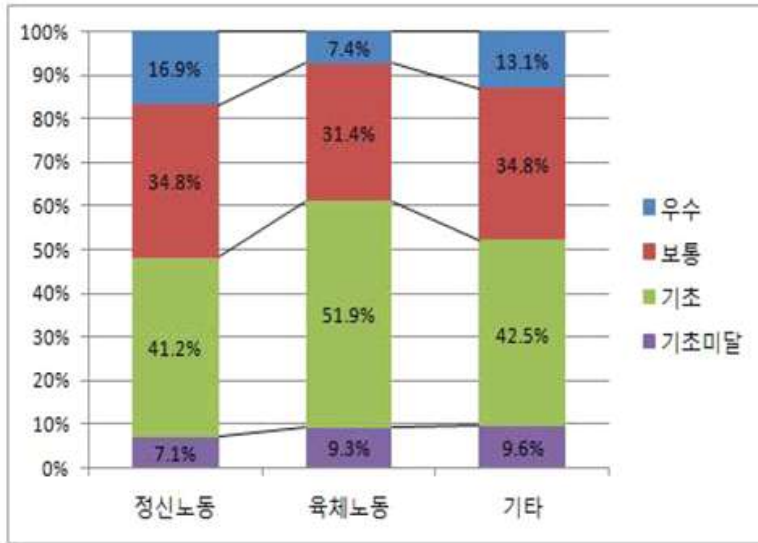
〈그림 6〉 국어 능력 수준의 연령대별 분포(김중철 외, 2013: 295)

-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국어 능력을 비교한 자료에서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은 20대 7.7%, 30대 6.7%, 40대 9.7%, 50대 10.8%로 드러나,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은 20대 15.2%, 30대 13.7%, 40대 11.4%, 50대 7.7%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넷째, 성별 차이는 국어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1.650, p>0.05$ ).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 능력에서 남성은 우수가 12%, 보통이 31.9%, 기초가 47.1%, 기초 미달이 9.0%였으며, 여성은 우수 11.8%, 보통 35.0%, 기초 44.6%, 8.5%로 나뉜다. 남성 집단 중에서 기초 미달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으나 그 차이는 1% 내외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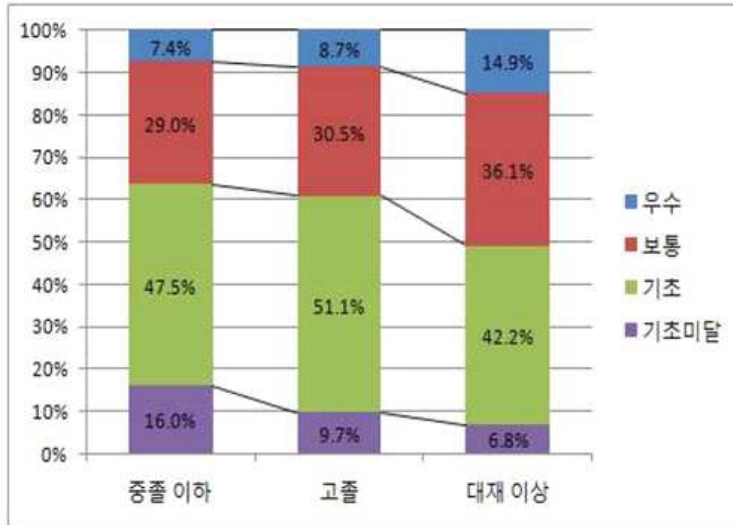
<그림 7>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성별 분포(김종철 외, 2013: 294)

- 다섯째, 직업군의 차이가 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드러났다 (F=22.657, p<0.01). 특히, 육체노동 및 기타 직군이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군보다 국민의 국어 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 능력에서 정신노동군은 우수가 16.9%, 보통이 34.8%, 기초가 41.2%, 기초미달이 7.1%였으며, 육체노동군은 우수 7.4%, 보통 31.4%, 기초 51.9%, 기초미달이 9.3%로 나타나, 비율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없이 직업군으로 집단을 기술하여 보고한 점은 구체적으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어떠한 직업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배경 문항 설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김종철 외, 2013: 298)

- 여섯째, 성인의 학력이 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F=30.842$ ,  $p<0.01$ ). 특히 중졸 이하 및 고졸 집단에 대한 국어 능력이 대재 이상의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은 중졸 이하가 16.0%, 고졸이 9.7%로 대재 이상(6.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은 중졸 이하가 7.4%, 고졸이 8.7%로 대재 이상(14.9%)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림 9〉 국어 능력 수준 등급의 직업군별 분포(김종철 외, 2013: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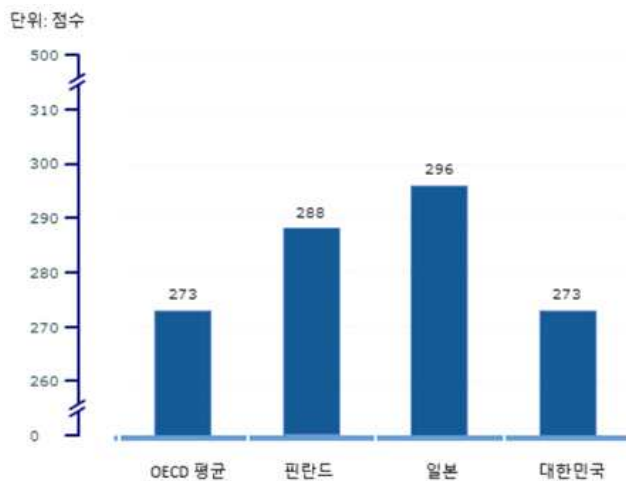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2013년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로 알 수 있는 한국 성인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러한 결과는 영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국어 능력에서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군 중 육체노동에 해당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2.3.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

-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읽기)에 대한 실태는 한국의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 보고서(직능원, 2013)에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OECD 전체 국가의 결과와 한국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의 성인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직능원(2013)의 보고서를 활용하되, 국제성인역량조사 홈페이지에 나타난 ‘국제 데이터 탐색 도구 (international data explorer)’<sup>6</sup>를 통해 그 결과를 재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이

절에서는 2013년도 국제성인역량조사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핀란드의 성인과 한국의 성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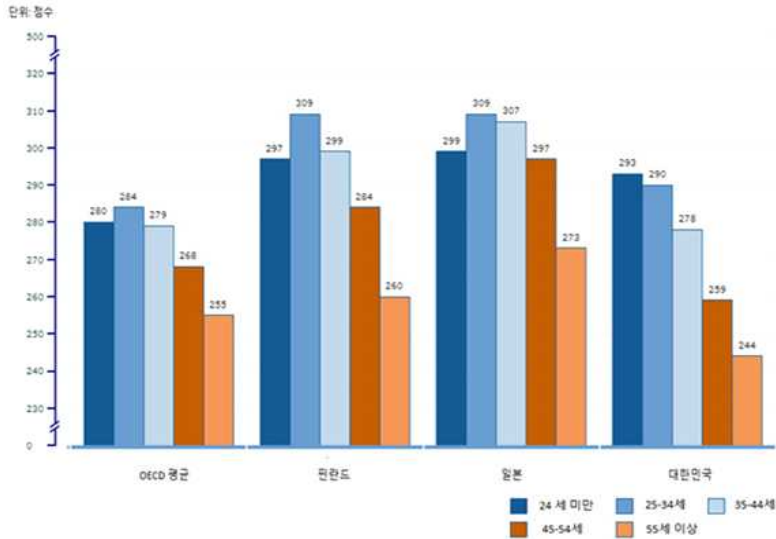
- 국제성인역량조사 평가를 통해 나타난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을 OECD 평균 및 일본, 핀란드와 비교한 결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참여 국가의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직능원, 2013:32)으로, 그 결과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능력(273점)에 해당하며, 일본(296점)과 핀란드(288점)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점수의 격차는 상당한 것(일본과 23점, 핀란드와 15점)으로 드러났다(〈그림 10〉 참조).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국어 능력의 평가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현재까지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저조한 편이며, 앞으로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10〉 국제성인역량조사 점수의 국가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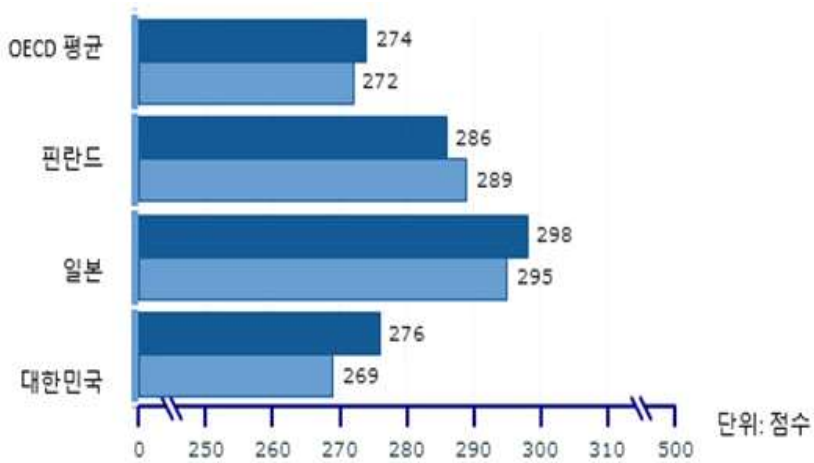
<sup>6</sup> 국제 데이터 탐색 도구(international data explorer)는 연구와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국제성인역량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한 자료 분석 틀이다. 이 도구는 2013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언어능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를 배경변인과 연관지어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대상 언어는 영어이며, 이 도구가 탑재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oecd.org/site/piaac/publicdataandanalysis.htm>

- 둘째,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언어 능력과 연령의 부적 관계는 국민의 국어 능력평가의 결과와 일치한다. 24세 미만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 점수는 293점으로 동일 연령대의 OECD 평균(280점)을 상회하며, 일본(296점) 및 핀란드(297점)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은 큰 폭으로 떨어져 55세 이상의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244점)은 OECD 평균보다(255점)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24세 미만(293점)과 55세 이상(244점)의 언어 능력 점수의 격차는 49점으로 세대별 언어 능력의 격차가 OECD 국가 중 높은 국가에 속한다.
- 한편, <그림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언어 능력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및 핀란드와 일본은 25-34세 성인 집단이 24세 미만 성인 집단보다 높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후 서서히 연령에 따라 언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한국 성인은 24세 미만 연령 집단에서 언어 능력이 최고조에 올랐다가 이후 언어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국의 35-44세 집단(278점)의 경우 24세 미만(293점)보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났지만, OECD 국가들은 두 연령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다 (280점 대 279점). 오히려 상위 국가에 해당하는 일본과 핀란드는 35-44세 집단이 24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한국의 경우 대학졸업 이후 사회에서의 언어 능력에 대한 재교육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1〉 연령에 따른 언어 능력 국제 비교(OECD 평균,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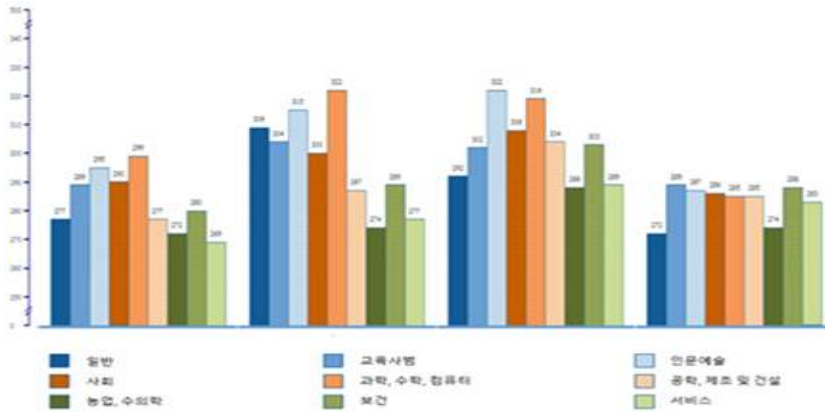
- 셋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다(〈그림 12〉 참조). OECD 평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인은 남성의 언어 능력 점수가 여성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핀란드는 여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점수의 차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성인 남녀 점수의 격차(남자 성인 점수 - 여자 성인 점수)는 7점으로 OECD(2점), 일본(3점), 핀란드(-3점)에 비해 훨씬 큰 격차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남녀의 성차는 국민의 국어 능력 보고서에 제시된 성차(남녀 간 차이 없음)와 상반된 결과로서,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12〉 성별에 따른 언어 능력 국제 비교(OECD 평균,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 넷째, 전공(직업)별 언어 능력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3〉 참조).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반(272점), 농업·수의학(274점)을 제외한 직종들이 280점대에 머물렀다. 이러한 직종별 언어 능력의 평준화 현상은 OECD 평균 및 일본과 핀란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발견은 전공별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의 실태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모두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전공별 성인 언어 능력의 평준화는 한국 국민이 적어도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문·예술(287점)이나 과학·수학·컴퓨터(285점)같은 분야가 일본(인문·예술: 322점, 과학·수학·컴퓨터: 319점)과 핀란드(인문·예술: 315점, 과학·수학·컴퓨터: 322점)에 비해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볼 때, 고급 언어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 성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고급 언어 능력의 신장이 성인 국어 교육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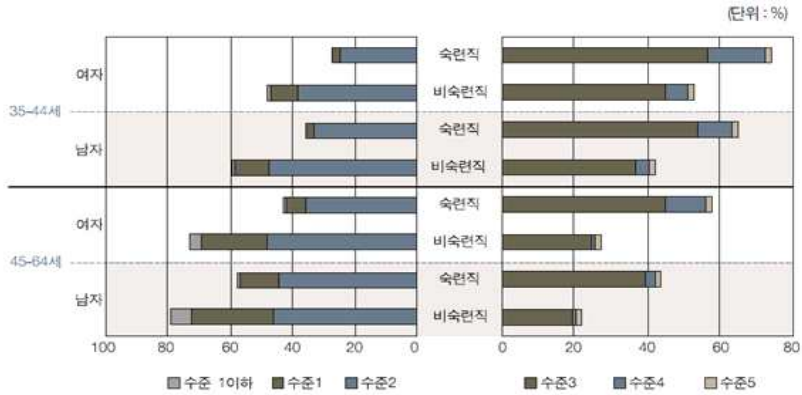




〈그림 13〉 전공에 따른 언어능력 국제 비교(OECD 평균,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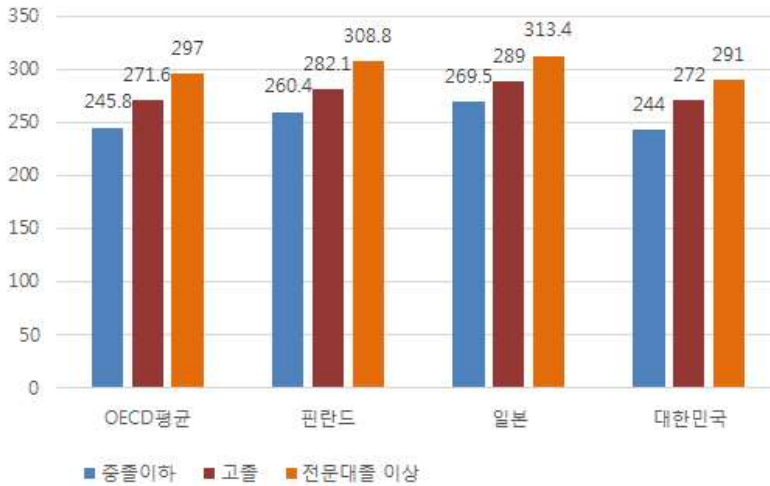
- 한편, 국제성인역량조사의 언어 능력 점수를 직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저연령보다는 고연령 집단에서, 숙련직보다는 비숙련직 집단의 언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4〉<sup>7</sup> 참조). 직능원(2013)에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5~44세 숙련직 여성의 언어 능력이 높은 반면, 45~64세 비숙련직은 남성, 여성 모두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고급 국어 능력의 신장 외에도 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업·직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인의 국어 교육이 일률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직업 및 연령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up>7</sup> 〈그림 14〉에서 제시된 언어 수준(1수준, 2수준 등)에 관한 설명은 〈표 10〉에서 제시된 ‘언어능력 수준’을 참고할 것.



〈그림 14〉 직종과 성별에 따른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직능원, 2013: 57)

- 다섯째, 성인의 학력이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5〉 참조). 이는 한국의 중졸 이하(244점)보다, 고졸(272점)이, 고졸보다 전문대졸 이상(291점)의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결과로, OECD 국가 평균 및 일본과 핀란드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학력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와 유사하다.
- 우리나라 학력 집단을 국제성인역량조사의 OECD 평균 및 일본과 핀란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고졸 학력 집단의 언어 능력은 272점으로 OECD 평균(271.6점)과 유사하며, 일본(289점) 및 핀란드(282.1점)에 다소 못 미친다. 그러나 중졸 이하의 점수는 244점으로 OECD 평균(245.8점)보다 다소 낮으며, 일본(260.4점) 및 핀란드(269.5점)과 비교할 때 12점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대졸 이상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문대졸 이상의 언어 능력은 291점으로 OECD 평균(297점)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력 집단에 따른 국어 능력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학력에 언어 능력 국제 비교(OECD 평균,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국제성인역량조사로 알 수 있는 한국 성인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국어 능력 결과에서 보고된 것처럼,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참여 국가의 평균 혹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둘째,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다. 넷째, 직종과 직업의 차이가 언어 능력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섯째, 성인의 학력이 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 및 시사점

- 국민의 국어 능력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 평가 결과 간에 미시적인 차이가 존재<sup>8</sup>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들 평가는 한국의 성인 국어 능력에 대해 대체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의 핵심은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연령·성별·직종·학력 등에 의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 및 재교육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성인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 능력은 중고등학생들과 비교할 때 국어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ECD 성인역량조사에서 상위에 위치한 일본 및 핀란드와 비교할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만 15세 학생의 언어 능력을 비교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언어 능력)에서 한국이 2~5위를 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 언어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둘째,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교육이 일률적 교육이 아닌, 맞춤형·개별화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학 및 공학 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 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선도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국어 능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계획,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전문 분야 외에도 저학력, 노년층, 여성, 비숙련직의 국어 능력이 성인 평균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외 계층의 올바른 사회 생활 영위를 돕기 위해서는 학력, 성별, 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국어 교육이 이

<sup>8</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서는 성별에 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직종에 대한 구분 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결과치가 다소 다르다는 점(국민의 국어 능력은 3종류의 직종으로만 구분함)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점들은 추후 보강 연구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어져야 한다.

- 이미 외국에서는 성인의 국어 능력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핵적 요인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지만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점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발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현재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3.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성공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참여 문화 형성, 형평성 확보,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추출해낼 수 있었으며,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16〉 국외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의 조건

#### 3.1.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

- 영국과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점은 체계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계획이며, 그 핵심은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다. 먼저 영국의 경우,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는<sup>9</sup> 지난 2001년 기초 문식성이 부족한 성인들의 수를 감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Adult Literacy Core Curriculum)을 개발했다. 이 교육과정은 크게 세 영역(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세 수준-입문 수준(entry level), 1수준(level 1), 2수준(level 2)-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담고 있다. 입문 수준은 다시 하위 세 단계를 두고 있다.

- 예를 들어, 쓰기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 차원(text focus), 문장 차원(sentence focus), 단어 차원(word focus)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각 수준별로 세 차원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p>9</sup> 교육기술부(각 부처의 명칭은 주한영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는 2007년 학교 가족어린이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과학기술고등교육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로 분리된 후 학교가족어린이부는 2010년에 다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그리고 과학기술고등교육부는 2009년에 통상산업부와 통합해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로 재편되었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국가의 교육 기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고 점차 전문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수준    | 텍스트 차원  | 문장 차원   | 단어 차원  |
|-------|---|---|--|
| 입문 수준 | 1 단계  | E1.1 정보를 기억하거나 제시하기 위해 문자로 된 단어나 어구 사용하기<br>E1.2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침표를 찍어 문장 완성하기<br>E1.3 1인칭 대명사 'I' 에 대문자 사용하기                         | E1.1 익숙하고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핵심 단어를 바르게 철자하기<br>E1.2 대문자와 소문자로 알파벳 쓰기<br>E1.3 철자에서 소리-상징의 기초적인 관계 활용하기  |
|       | 2 단계  | E2.1 정보를 기억하거나 제시하기 위해 문자로 된 단어나 어구 사용하기  | E2.1 익숙한 접속사(as, and, but)를 사용하여 두 개의 절이 이어진 간단한 복문 완성하기<br>E2.2 형용사 사용하기<br>E2.3 구두법 바르게 사용하기(대문자, 마침표, 물음표 등)<br>E2.4 고유명사에 대문자 사용하기 |
|       | 3 단계  | E3.1 계획하기와 초기 쓰기<br>E3.2 짧은 단락 조직하기<br>E3.3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기<br>E3.4 문법과 철자 교정을 위해 교정하기   | E3.1 완전한 문장들로 글쓰기<br>E3.2 기초적인 문법 바르게 사용하기(동사 시제, 주어-동사 일치 등)<br>E3.3 구두법 바르게 사용하기(대문자, 마침표, 물음표, 감탄사)                                 |
| 1수준   | L1.1 계획하기와 초기 쓰기<br>L1.2 쓸 분량과 기술 수준 판단하기<br>L1.3 필요에 따라 문단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정보 제시하기<br>L1.4 목적과 독자에 적절한 언어 사용하기<br>L1.5 목적에 따라 다른 형식과 구조 사용하기<br>L1.6 정확성과 의미를 위해 고쳐쓰고 교정하기   | L1.1 완전한 문장들로 글쓰기<br>L1.2 문법 바르게 사용하기(주어-동사 일치, 시제)<br>L1.3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구두법 바르게 사용하기   | L1.1 직업, 학업,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을 바르게 철자하기<br>L1.2 가독할 수 있도록 쓰기   |
| 2수준   | L2.1 계획하기와 초기 쓰기<br>L2.2 쓸 분량과 기술 수준 판단하기<br>L2.3 필요에 따라 문단을 사용하고 논리적·설득적으로 정보 제시하기<br>L2.4 목적에 따라 다른 형식과 구조 사용하기<br>L2.5 목적과 독자에 알맞게 공식적·비공식적 언어 사용하기<br>L2.6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문체 사용하기<br>L2.7 정확성과 의미를 위해 고쳐쓰고 교정하기 | L2.1 다양한 복문 만들기<br>L2.2 문법 바르게 사용하기(주어-동사 일치, 바르고 일관된 시제)<br>L2.3 의미가 분명하도록 대명사 사용하기<br>L2.4 구두법을 바르고 정교하게 사용하기(점표, 이포스트로피, 인용부호) | L2.1 친숙한 전문용어를 포함하여 직업, 학업,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을 바르게 철자하기<br>L2.2 가독할 수 있도록 쓰기  |

<표 11> 영국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예

- 영국 성인 국어 능력 핵심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아래 <표 12>와 같이 학교 국어 능력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2>에서 성인 국어 능력 핵심 교육과정의 2수준은 학교 교육과정 2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주된다(QCA, 2010: 18). 이처럼 영국에서의 학교 자국어 교육 과정과 성인 국어 능력의 교육과정의 단계적 유사성은, 성인 국어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성인 국어 능력의 교육과정의 2수준까지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 대상 핵심 교육과정이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               |                    |                                 |
|---------------|--------------------|---------------------------------|
|               |                    | 특출한 수행(exceptional performance) |
|               | 핵심기능 5수준           | 8수준                             |
|               |                    | 7수준                             |
|               | 핵심기능 4수준           | 6수준                             |
|               |                    | 5수준                             |
|               |                    | 4수준                             |
|               | 핵심기능 3수준           | 3수준                             |
| 2수준           | 핵심기능 2수준           | 2수준                             |
| 1수준           | 핵심기능 1수준           | 1수준                             |
| 입문수준-3단계      |                    | 입문수준                            |
| 입문수준-2단계      |                    |                                 |
| 입문수준-1단계      |                    |                                 |
|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 | 핵심기능 <sup>10</sup> | 학교 교육과정 성취수준                    |

<표 12> 영국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연계

-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의 2수준에 대한 기술과 위에 인용한 학교 교육과정의 2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은 인상

<sup>10</sup> 핵심기능(Key skills)은 신입 직원들의 핵심기능이 부족하다는 고용주들의 불만, 그리고 미래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보고 고등교육의 변화를 요구한 디어링 보고서(Dearing report, 1997) 등에 대한 응답으로 마련된 교육정책 결과물이다. 이 정책에 따라 영국에서는 16세 이후의 교육에서, 학문(대학 진학)을 위해서든 취업을 위해서든 핵심기능 필수영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기능은 여섯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의 응용(application of numbers),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타인과의 협업(working with others), 학습과 수행의 향상(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 문제해결(problem solv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핵심기능은 특정 교과와 연계되기보다는 범교과적인 역량으로서 초중등 학교교육의 경우에는 각 교과별로 교육 내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들 역량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이광우 외, 2009).

을 받기도 한다. 이 연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연계가 타당하다면 적어도 성인 국어 교육과정의 기초 수준인 2수준까지는 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2수준까지의 교육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온타리오 주의 경우 성인문식성 교육은 주로 고등교육부(Ministry of Training, College and Univers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고등교육부는 ‘국제 성인문식성 조사 연구(IALS)’ 등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문식성 및 핵심 기능(Literacy and Essential Skills)’ 을 도출하였는데, 크게 다음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읽기(reading)
- 쓰기(writing)
- 문서 사용(document use)
- 수리력(numeracy)
- 컴퓨터 사용(computer use)
- 사고하기(thinking)
- 구어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 타인과 협업하기(working with others)
- 지속적인 학습(continuous learning)

- 위의 각 영역은 5단계로 수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OECD의 ‘국제 성인 문식성 조사 연구(IALS)’ 의 구분 방식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이다. 쓰기 영역의 경우 각 수준은 세 차원(분량 및 쓰기 목적, 문체와 양식, 내용)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는데, 각 수준과 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차원          | 1수준                              | 2수준   | 3수준  | 4수준   | 5수준   |
|-------------|----------------------------------|---|--|---|---|
| 분량 및 쓰기 목적  | · 정리 기억 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한 문단 미만의 글쓰기 | · 다양한 목적의 한 문단 또는 그 이상의 글쓰기                   | · 알림 설명, 정보 요청, 의견 제시, 지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짧거나 긴 분량의 글쓰기 | · 상당한 양의 정보와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긴 글. 추천 목적의 글쓰기 | · 대개 추천을 동반하며 평가와 비판을 담은 긴 분량의 글쓰기<br>· 분량과 관계없이 독창성과 효율성이 있는 글쓰기 |
| 문체와 양식 (구분) | · 소그룹의 친밀한 독자(주로 동료)들을 위한        | · 동료가 아닌 독자들을 위한 보다 형식적인 글쓰기<br>· 태도예를 들어 친밀감 | · 계약서나 재무 보고서, 직무해설서 등 확립된                         | · 주어진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조직하며 글쓰기                 | · 이 수준에서는 내용만큼 적절한 어조나 뉘앙스(mood)이 중                               |

<sup>11</sup> 다른 영역의 세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esdc.gc.ca/eng/jobs/les/profiles/readersguide.shtml#h2.4>

|    |  |  |  |   |   |
|----|--|--|--|---|---|
|    | 비형식적인 글 쓰기<br>· 미리 정해진 양식을 활용한 글쓰기 또는 양식이 중요하지 않은 글쓰기                            | 존경심, 권위 등에 맞는 어조로 글쓰기<br>· 표준적인 철자법과 문법(문장)<br>· 메모나 편지 등 견본이나 본보기가 있는 쓰기 과제   | 형식이 있는 글 쓰기 과제<br>· 제목, 목차, 주석 등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글쓰기  | · 주어진 정보에 알맞게 기존에 있던 양식을 수정해 가며 글쓰기<br>· 독자에 대한 고려가 이 수준에서는 중요한 부분임.          | 요함.<br>· 다채로운 내용에 걸맞도록 복잡한 형태로 조직하기, 또는 각 부분별로 형태를 달리하며 조직하기                              |
| 내용 | · 사실에 기반한 일상의, 그리고 즉사적인 문제를 다룬 내용  | · 거의 변화가 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에 관한 내용   | · 내용이 광범위할 수 있으나 쓰기에 활용할 자료들이 이미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 · 정보의 수집과 선택을 통한 글쓰기<br>· 전문 용어가 포함된 글쓰기<br>· 특정한 독자들을 위해 기술된 내용을 재진술하거나 변형하기 | · 모든 내용은 새롭게 창작되어야 함. 또는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내용을 수집하여 종합하여야 함.                                   |
| 예시 | · 스스로를 위한 메모<br>· 대화록이나 관측(또는 형태 등)일지에 짧은 의견 달기<br>· 간단히 기입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 문서 작성하기 | · 단일 쟁점에 대해 회사와 관계있는 공급자, 고객, 대리점에 편지 쓰기<br>· 상사에게 새로운 장비의 예산구매에 대한 메모 남기기<br>· 현장감독에게 페인트를 더 요청하는 이메일 쓰기<br>·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연체된 책에 대한 편지 쓰기 | · 상환이나 다른 기업의 임원에게 비일상적인 메모 쓰기(가령 인사 총괄책임자에게 정계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br>· 큰 결혼식의 음식 제공 담당자에게 보낼 여러 가지 이슈를 담은 동의서 작성하기<br>· 사보에 경리부의 새 컴퓨터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 쓰기 | · 극저온 티보 확장의 가동과 중지 여부에 관해 지점사의 여러 부분을 작성하기<br>· 연간 영업보고서 작성하기                | · 지역 교통 정책에 관한 배경 문서 작성<br>· 국가적인 캠페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 작성<br>· 배우를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드라마의 독백 창작하기 |

〈표 13〉 온타리오 주 성인문식성 교육과정 내용 체계: 쓰기 영역

-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에서 작문 능력의 다섯 수준은 위에 제시한 세 차원(분량 및 쓰기 목적, 문체와 양식,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섯 차원(분량, 쓰기 목적, 문체, 양식, 내용)의 조합을 통해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분량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쓰기 목적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쪽에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쪽으로, 문체는 간결하고 친숙한 데서 독창적인 쪽으로, 양식은 기존의 양식에 의존하는 데에서 스스로 창안하는 쪽으로, 내용은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쪽으로 위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쓰기 영역의 위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견주어 볼 때 분량이나 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위계가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정적이다. 정보성의 측면에서도 특히 표의 마지막 행에 제시된 예시 부분은 교육용 자료의 개발이나 각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판별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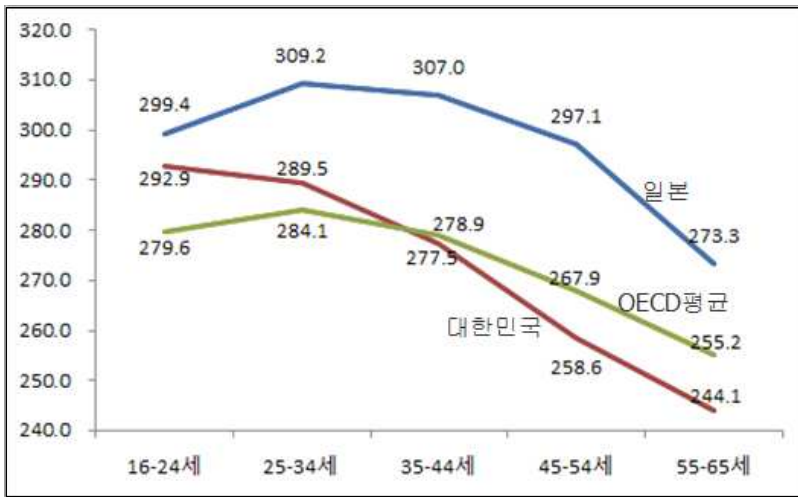
- 그러나 위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직업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작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작문 활동의 필요를 지나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성인들의 작문에 대한 요구는 수필, 시, 자서전 쓰기와 같이 정서 표현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지므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교육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강조한 디지털 기반의 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편이다.
- 해외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 면에서 한계도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성인들의 국어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세부 내용   |
|---------------|---|
| 요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설문지, 면담지 등)</li> <li>· 대표성 있는 성인 집단 표집을 통한 조사</li> </ul>   |
| 해외 교육과정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국가들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검토</li> <li>· 내용의 범위, 선정 및 조직 방식에 대한 시사점 도출</li> </ul>   |
| 국내 관련 교육과정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도출</li> <li>· 대학의 국어 능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도출</li> <li>· 국가직무능력표준과의 연계 방안 도출<sup>12</sup></li> <li>· 기존 성인 국어 능력 관련 프로그램(대학 교양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li> </ul> |
| 교육과정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국어 능력 내용 체계 및 문서 체제 개발</li> <li>· 교육과정 시안 개발, 검토, 최종 확정</li> </ul>  |

<표 14>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 3.2. 참여 문화 형성: 일본의 사례

- <그림 17>과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나타난 일본 성인들의 자국어 능력 특징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성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국어 능력의 수준이 높고 연령별, 성별, 학력별 편차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수의 성인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자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7>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령 간 점수 차

| 국가      |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 | 학력에 따른 점수 차이 |
|---------|--------------|--------------|
| 대한민국    | 5.8*         | 19.1*        |
| 일본      | 2.3          | 12.1*        |
| OECD 평균 | 3.5*         | 10.9*        |

\*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5>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별·학력별 점수 차

- 일본의 높은 성취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질 높은 자국어 능력 학습 환경,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활발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sup>12</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재현·노국향(2015)을 참조.

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제성인역량조사 참여국 중에서 공통적으로 형식학습(formal learning)과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3</sup> 낮은 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인들의 국제성인역량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국어 능력을 보인 것은 높은 수준의 무형식 학습 참여율로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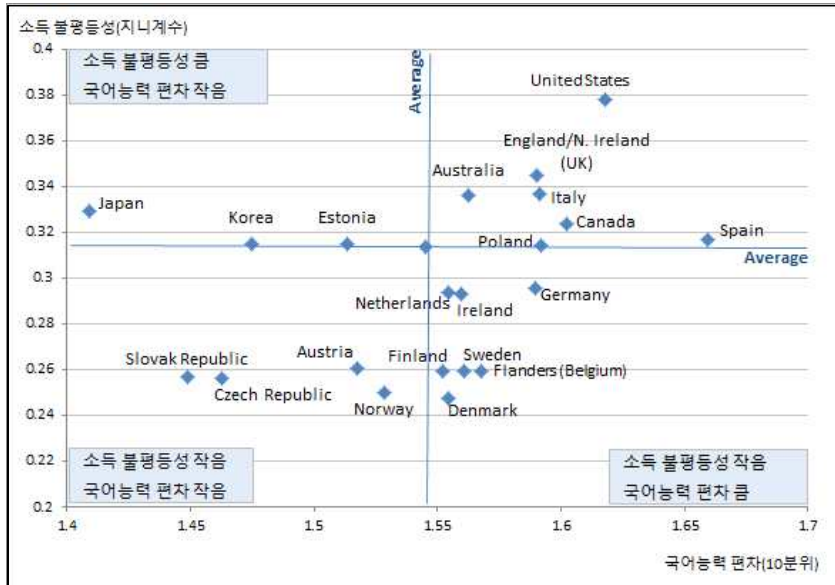
- 공민관 제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은 교육3법(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을 공포하여 국민 전반에 대한 교육 체제를 갖추었는데, 그중 공민관(公民館)은 사회교육법에 따라 주로 성인들의 학습 활동 보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설치한 사회교육시설을 가리킨다(양병찬, 2011). 2013년 현재 일본 전역에 약 18,800개의 공민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보다는 적지만 중학교 숫자보다는 많다. 각 공민관에는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공민관 운영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민관은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민관은 도시보다는 전후 농촌 지역의 봉건적 풍토를 개혁하고 지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 공민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예를 보면, 2007년 가와사키 시의 경우 성인 국어 능력 신장과 직결되는 ‘문해학습활동’에 13가지 사업과 ‘문해지원봉사연수’에 12가지 사업을 수행했으며, 간접적으로 성인 국어 능력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평화인권학습’ (7사업), ‘남녀평등추진사업’ (7사업), ‘학습정보제공·학습상담사업’ (13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윤정, 2008).
- 일본의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유기적,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sup>13</sup> 형식학습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 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 고등학력 보완 교육(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등)을 포함한다. 비형식 학습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형식학습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이나 비형식학습과 달리, 학습자가 일상 속에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137).

는 형태의 성인 국어 능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서정책은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의 수직적 모델에 가까웠다. 이는 독서를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며, 이런 모델을 고수하는 한 독서문화의 다양성과 자발성이 역동적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도서관계와 출판계 등 모든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와 참여가 보장되는 수평적 모델로 전환될 때 진정한 의미의 독서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혜란, 2014: 115).

### 3.3.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노르웨이의 사례

-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보고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긴 연수 기회가 제공되는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기회의 평등성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그림 18>에서 보면 소득 불평등성과 국어 능력 편차가 모두 작으면서(제3사분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다(OECD, 2013a, 2013b).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 불평등성과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국어 능력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나타난 소득 불평등성과 국어 능력 편차의 관계(출처: OECD, 2013a: 245)

- 노르웨이의 경우 불평등성의 문제가 이민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만큼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ALIFIE(Alphabetisation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In Europe, 유럽의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기초 국어 능력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 또한 노르웨이는 성인 국어 능력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SEA: Specialization for European Teachers of Basic Skills for Adults, 범유럽 성인 기초기능 담당 교사 전문화 프로젝트)을 수행한 바 있다(2015년 5월 종료).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ACEFIR), 터키(ACEV), 네덜란드(Bureau Lidwien Vos de Wael), 독일(DIE)의 교육기관과 협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해 성인들에게 양질의 기초기능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을 위해 노르웨이 교육부는 성인 기초 읽기·쓰기 학습자를 위한 포럼(Forum for Reading and Writing Difficulties among Adults, FORWA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교사, 사회복지사가 이 포럼의 주축을 이룬다.<sup>14</sup> 또한 사이프러스, 몰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잉글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독일, 아일랜드



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사례를 교환하고 있다.

- 노르웨이의 사례로부터 국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성인 국어 능력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노르웨이의 경우 이민자와 비이민자 간의 불평등성 해소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둠), 다른 국가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연구 투자를 통해 얻은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3.4.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지원: 독일의 사례

- 성인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성인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으며, 부처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유도할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은 산업체(30%), 성인대학(Volkshochschule)(14%), 사설교육(11%), 상공수공업 회의소(5%)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400-500억 유로(산업체의 직원 향상교육 비용 52.1%, 연방노동청 20%, 공적자금 6.5%, 개인 21.4%)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한국평생교육진흥원, 2008). 교육상품권 제도도 특기할 만한데, 이 제도는 30유로 이상의 계속교육 과정의 수료 비용을 본인이나 50% 부담할 경우, 국가가 1년에 154유로까지를 상품권 형태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 또한 독일의 경우 교육휴가법, 교육비 면제법(근로자들이 산업체의 계속교육과 별도로 1년에 5일 동안 주 정부가 인정한 계속교육 기관에서 무상 교육 가능; 바이에른 주와 뷔르템부르크 주는 제외)과 같은 법적 지원을 통해 성인들이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독일 정부는 성인들을 위한 직무 기반 국어 능력 및 기초기능 교육(Workplace-oriented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of adult)을 실행 중에 있다.

<sup>14</sup> FORWARD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 <http://www.statvoks.no/forward/>

이 프로젝트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직무 기반의 국어 능력과 기초기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직장인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 향후 독일 정부의 평생교육 목표는 첫째, 직업 및 대학교육이 끝나서 이미 취업중인 25세에서 64세 국민들의 형식화된 계속교육 참여율을 2015년까지 현재 43%에서 50%로 올리는 것, 비형식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계속교육 참여율을 2015년까지 현재 72%에서 80%로 올리는 것, 교육력 취약집단의 계속교육 참여율을 현저히 늘리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 독일 정부는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인 국어 능력과 관련한 홈페이지(<http://www.xn--mein-schlssel-zur-welt-0lc.de/>)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국어 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하며, 스스로의 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 4. 성인 국어 능력 향상 정책 전문가 의견

### 4.1. 설문 기간 및 대상

-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주관식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국어와 국어교육 분야 전문가 15명이었으며 성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주안점,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국어 능력 평가의 개선점 등에 중점을 두어 의견을 수집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5년 8월 10일에서 21일까지이었다. 설문에 답변한 전문가 15명은 다음과 같다.

이주형 전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문가1)

노명완 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전문가2)

박영민 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3)

윤준채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4)

전은주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5)

천경록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6)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전문가7)

임철성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8)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9)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10)

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11)

정희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문가12)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13)

양명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문가 14)

박덕유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문가 15)

## 4.2. 각 항목별 전문가 의견

### 1. [교육 목표]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 직무 문식성

- 성인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가에 따라 집중해야 할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의 범위, 직업의 범위, 최종 학력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화법, 독서, 작문 능력, 가족 및 타인과 관련된 화법 및 작문 능력, 표준 발음 및 맞춤법과 같은 기본적인 어문 규범에 대한 소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화법, 독서, 작문, 문법의 일부에 초점을 두고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3)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성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문식성 교육이 하나이고, 성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문식성 교육이 다른 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문식성 교육의 축을 두 가지로 설정한다면, 직무 문식성은 일과 관련된 언어소통 능력, 즉 직장 생활 속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매체 등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글을 읽고, 쓰고, 협력적으로 소통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생활 문식성은 일상의 삶과 관련 속에서 요구되는 언어소통 능력, 즉 생활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매체 등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일상 문식성, 타인과의 협력적 사고를 추동하는 대인 관계 문식성, 민주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전문가 4)
- 학교 과정보다는 달리, 성인에게 있어서 직무 관련 문식성을 향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직무의 능률을 저하시켜서

는 안 될 것이다. (전문가 7)

- 성인 인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포된 공간은 ‘직장’이다. 직장 인에게는 ‘직무 문식성’ 중심의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이 필요하다. ‘직무 문식성’의 일정 내용을 ‘직장 내 소통 문화 고양’이라는 견지에서 구축하고 ‘직무 그 자체의 특성과 자질에 따른 문식성’은 얼마간 맞춤형 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직장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장 체제와 직장 문화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업 직장의 경우, 성인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요구가 기업의 경영진 층과 사원들 층이 다소간 다를 수 있다. 이를 조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 9)
- 직장 내의 업무와 관련된 국어 능력의 신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문서 작성 능력을 비롯하여 생각을 문자 언어로 드러내어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직장 내의 음성 언어를 이용한 소통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음성 언어와 관련해서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능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 12)
-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2015 연구과제 - 작문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 업무와 관련 글  | 공식적 양식의 글 | 인사말     | 개인적인 글  | 기타     | 계            |
|-----------|-----------|---------|---------|--------|--------------|
| 56%(112명) | 26%(52명)  | 8%(15명) | 7%(13명) | 3%(7명) | 100.0%(199명) |

<표 16>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

위의 결과를 보면 업무와 관련된 글이나 공식적 양식의 글을 쓸 때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작문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지만 언어 능력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족 내 소통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보다 직장 생활과 관련된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문가 13)

#### □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 먼저 ‘성인’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연령, 사회계층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화면담/면접·연설·토론 능력의 신장, 바람직한 경청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인들 중에는 토론의 본질을 모르는 이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토론의 최종적인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는 이념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이가 많습니다. 타인들의 의견은 얼마든지 자신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 고운 말, 바른말 등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구사할 줄 아는 능력 신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현학적이고 위세적인 동기로 언어를 구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해마다 교수신문에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답하게 하여 가장 많이 답한 것을 신문에 게재하곤 하는데,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얼마 전 한국인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上善若水’라고 쓴 글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는 고유의 글자가 있고, 아름다운 고유어도 많은데 저명한 사람일수록 외국어나 난해한 사자성어를 남용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표준어를 구사하여야 할 상황에서 비표준어를 구사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나 고사성어를 쓰거나, 공적인 상황에서 막말을 하는 성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 연령 차별 언어, 학력 차별 언어, 직업 차별 언어, 성 차별 언어, 지역 차별 언어, 인종 차별 언어, 종교 차별 언어 등을 구사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전문가1)

-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성인들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 걸쳐 두루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5)
-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중해야 할 부분은, 대인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 관련 문식성 향상이라 생각한다. 대인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은 상대

방을 배려하며 경청하는 능력을 향상하여, 언어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7)

- 국민들을 불특정 다수로 (이를테면 지역 주민) 대상화 하여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을 하는 경우라면, 대인 관계 의사소통이 가장 절실하다고 본다. 이런 교육은 순수한 언어기능으로만 수렴하지 말고, 언어가 담지하는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공동체 언어 인성교육의 성격을 함께 띠도록 한다. (전문가 9)
- 먼저 가족 내 소통, 직장 생활 내 소통 부분의 국어 능력신장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의사소통 방법을 잘 배운다면 기타 다른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인간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이 점점 위에서 아래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가족 간에는 어떻게, 사회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자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전문가 14)

## □ 매체 문식성

- 성인이 대상이므로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일반적 대인 소통 능력’, ‘직무 능력’, ‘매체 문식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 하면, 저는 매체 문식성을 뽑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기초적인 매체사용기술이 되겠지요. 교육 대상인 성인을 전 국민으로 확장한다면, 전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교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매체의 복합적 사용 기능(기술)도 조금은 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령 문자 텍스트에 음향, 음악, 동영상 등을 첨가하여 그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 등이 되겠지요. (전문가2)
- 매체의 발달로 성인들의 매체 이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은 비교적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매체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들은 매체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전문가 14)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하지만 가장 집중되어야 할 부분은 매체 생활이라고 본다. 20세기 이후 언어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21세기 언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일상 언어를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기 쉽게 변형시켜 어법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체언어는 현대인들에게 떨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매체언어의 문식성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매체언어 사용 역시 매우 중요하다. 언어의 전달 목적은 올바른 표현과 이해를 위한 소통에 있다. 따라서 매체언어 표현은 알기 쉽고, 어법에 맞아야 하며 예의바른 품격 있는 언어여야 한다. (전문가 15)

□ 기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능력 / 생활 문식성 / 독서 능력

- 가족의 변화가 심해지는 사회이다. 성인을 중심으로 볼 때, 가족 내에서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사촌 등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집안, 지역, 계층, 직업 등에 따라 가족 내 소통의 문화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단위이다. 그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 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성인이 건강한 가족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전문가 6)
- 가족 간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적 경청 습관, 대화, 토의, 토론 능력의 기초는 유아, 소년기에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1)
- 생활 문식성은 일상의 삶과 관련 속에서 요구되는 언어소통 능력, 즉 생활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매체 등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일상 문식성, 타인과의 협력적 사고를 추동하는 대인 관계 문식성, 민주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전문가 4)
- 독서 능력 신장을 가장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서를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의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문종별 효과적인 독서 방법을 익혀 그것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문종을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 인지도시켜야 합니다. (전문가1)



## 2. [교육과정]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또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기존 학교 교육과 연계

- 초·중등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었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을 성인, 사회인의 요구에 맞게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두 의사소통과 쓰기, 읽기 능력은 성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직장생활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또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성인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인의 위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은 언어 사용 상황, 주제, 수준 등이다. 또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별도의 영역, 심화과목으로 교육하였으나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와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5)
-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영역별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영역으로 나누어, (1) 언어 사용 능력 영역, (2) 언어 지식 활용 영역으로 한다. <언어 사용 능력> 영역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며 <언어 지식 활용> 영역은 언어 지식(어문규범 포함), 문학 지식을 언어 능력 신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이다. (전문가 7)
- 초·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초·중등의 교육과정을 ‘국어 능력 신장’ 이라는 주제로 한정할 수 있는지, 한정할 수 있다면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 교육과 서로 연계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현실적으로는 초·중등의 국어 교육은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기반 교육에 해당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업무 특성에 맞춘 특성화 교육, 또는 재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것 정도로 느슨한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12)

### □ 기존 학교 교육과 차별화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 능력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 대학의 교양국어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중에서 ‘읽기’를 가장 중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력은 듣기, 말하기, 쓰기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 교육 대상자의 직종(일반공무원, 특수공무원, 교사, 군인)과 국어 능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야 합니다. 성인이라도 국어 능력이 초급인 사람에게는 직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급인 성인에게는 직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국어 능력이 고급인 성인에게는 직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교 교양 국어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은 이론 학습과 연습이 3 : 7의 비율로 구성하여야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1)
- 교육을 하려 한다면, 그에는 반드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성인이 교육의 대상이므로 이 교육과정에는 성인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상황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 대상 성인을 나이, 학력, 성별, 지역, 직업 등으로 조금은 세분화하여 전국 대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하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는 물론 차별화되어야 하겠지요. 성인용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너무 다양하고 차이가 심하므로,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회사를 다니는 40대 회사원 대상의 교육과정과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40대 농부는 여러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용도 필요도 요구도 다르겠지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초·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장기간의 연구와 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 규모의 성인 문식성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줄로 압니다. (전문가 2)

- 대학생은 제외한 성인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화법 문식성, 작문 문식성, 독서(문학 포함) 문식성, 언어(문법, 특히 어휘) 문식성 순서대로 가치 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직업 분야에 따른 직업 문식성 차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인 문식성, 아나운서 문식성, 스텐더디스 문식성 등 다양한 장르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11)
- 학교 교육과정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성인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일부의 문법이 포함되는 구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 영역으로 운영되는 문학 영역은 독서 영역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에게는 독서에서 문학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문학 영역을 따로 두지 않고 독서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성인 교육과정은 기준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분할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최종 학력이 어떤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직업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따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3)
-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은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 교육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은 일종의 성인 교육(Andragogy)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의 목적인 아동교육학(Pedagogy)과는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 조사, 실태 조사 등을 한 후에 교육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6)
- 현실적으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자체에 머무르고 현재 학교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이 발휘해야 하는 국어 능력의 상황이 학교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 성인이 받았던 국어교육은 적어도 지금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 능력 교육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일정 국

어 능력 수준을 갖춘 성인과 그렇지 못한 성인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지금 성인이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보다 현재 성인의 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성인의 국어 능력 교육과 목표가 달라야 한다. 성인은 세대 간 갈등, 문화 간 갈등, 문화의 계승과 창조, 건전한 사회 문화에의 기여 등이 중점적인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8)

-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지향이나 구조 체제 위계 등을 거시적으로 대략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차별화를 기본 기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들의 국어 능력이 학교 교육과정의 후속적 연장선상에 있다는 가정은 온당하지 않다. 학교 교육과정에 학습 경험의 연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생활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습득된(나쁜 요소까지 모두 포함)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국어사용 경험이 성인들의 국어 능력의 질적 바탕을 이룬다. 성인들이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서 국어 능력을 추구하는 요구와 기대하는 효과는 학교 교육과정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개인 심리적 요구, 사회문화적 요구, 국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지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학문적 요구는 국어교육학 또는 국어국문학의 범주로만 탐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문화이론, 발달이론, 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학문 분야가 함께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형식이나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식이나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형식이나 체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의 철학과 지향의 실현 구조를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교 체제, 현재의 교실 형식이 가지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과 규제 등이 모두 반영 전이된 것이다. 목표를 다양한 선택적 목표로 운영하고, 교수 학습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용도 다양하면서도 그 운영은 유연해야 할 것이다. 제재의 다채로움은 학습자의 분화된 요구들에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보편적인 교수 내용들은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학습자의 초기 동기나 몰입성을 느슨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학습 성과 촉진을 위해서는, 급수 취득 제도를 운용하고, 성공적인 급수 증진에는 일정한 보상 피드백을 제도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9)

- 현재의 제도로는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은 문화관광부(특히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인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결국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작문 문식성이 최고의 가치를 가질 것이며, 그 다음으로 독서 문식성과 화법 문식성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언어 문식성, 즉 국어에 대한 생활 속 지식을 다루는 교육과정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대학생을 제외한 성인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화법 문식성, 작문 문식성, 독서(문학 포함) 문식성, 언어(문법, 특히 어휘) 문식성 순서대로 가치 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여러 직업 분야에 따른 직업 문식성 차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인 문식성, 아나운서 문식성, 스텐더디스 문식성 등 다양한 장르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11)
- 초중등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큰 목표를 두고 국어과에서는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인들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 특화해서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 차별화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문가 13)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필요하지만 학력 차나 연령 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만족시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어렵고 당연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오히려 직업군별(공무원, 농업, 어업 등) 이나 특수집단(군인, 농아나 맹인, 문해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등)별로 국어 사용 능력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실제 언어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언어를 전제로 쉽고 정확한 언어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영역별이 아닌 실제적인 필요성과 문제에 초점을 둔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나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15)

## □ 연계와 차별화 동시에

-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이 미래 성인의 일상과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식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성인의 국어 교육과정은 일상 및 직무와 관련된 보다 심화되고 전문화된 문식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설명적인 글을 읽고 쓰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문식 능력은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신장시키고, 직무와 일상의 특수 상황에서 요구되는 설명적인 글을 읽고 쓰고, 소통하는 문식 능력은 특수 상황의 언어 소통적 맥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성인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신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중층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인 국어과 교육과정은 자연스럽게 연계될 뿐만 아니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전문가 4)
- 국어과 교육과정이 국어 능력 신장 전반을 다루고 있으므로 연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실용 국어와 심화 국어가 설정되어 있어 연계가 더 자연스러운 듯합니다.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차별화하여 넣어야 할 듯합니다. (1)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문예 창작 등 글쓰기, 생애독자로서의 글읽기도 여기에 포함) (2) 인터넷 등을 통해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을 찾아서 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사전 사용 문식성). 이때는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구별 (3) 국어 규범에 대한 심화된 이해(4대 어문규정 + 표준언어예절 등에 대한 심화된 이해). 이를 통해 호칭어 지칭어 등등도 읽혀야 할 듯. (4) 대학, 직장, 가정 생활에서의 대화 (전문가 10)
-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목표 등에 있어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은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부터 의사소통 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면 성인이 되어 부족한 세부적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가 14)

### 3. [교육 평가] 현재 국어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성인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상: 전 국민 표본 추출 조사 (20세~59세 성인 남녀 3,000명 대상)

방식: ‘듣기, 문법, 읽기’ 는 선택형 평가, ‘쓰기, 말하기’ 는 수행 평가

#### □ 평가 대상 유지

- 5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행 설문을 약간씩 수정하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때 지속적 추이를 보아야 하는 항목은 그대로, 새롭게 삭제하거나 추가할 항목은 개선). 대상이나 방식 역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표본 속에 이른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변인으로 하여 포함해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음). (전문가 10)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지, 그 내용 개발을 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 학력 이외에도 직업(공무원, 농업, 어업, 상업 등)에 따른 경우와 특수집단(군인, 농아, 다문화가정 등)에 따른 경우로 나누어 국어 능력 평가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15)

#### □ 평가 대상 축소 (특정 집단에 집중)

- 어떤 방식으로 능력 조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했는가에 따라 측정된 능력 수준이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인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대상으로 삼는 연령대가 폭이 매우 넓으므로 이를 분해해서 조사하는 것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0~30세 집단, 31~59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국어 능력을 조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 3)

- 대상 연령을 59세까지로 한정하기보다 노년층도 포함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층도 자신의 역할 변화에 맞는 구두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등과 잘 지낼 수 있으며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발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맞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 5)
- 성인 국어 능력의 실태를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조사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은 일정한 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다문화적 배경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지(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어 능력의 결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교육의 소외집단(?)’을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국어 능력을 조사한 후에, 이들을 위한 기초 기본 문식성을 향상시켜 주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전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한다. (전문가 6)
- 평가는 그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와 활용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수준의 국어 능력은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어기본법에 의해 실시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은 왜 하는 것일까? 본인의 생각은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성인들의 국어 능력 중 일반적인 능력이 아닌 특수한 연령이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들면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특히 노인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전문가 13)
- 국민 표본 추출 조사도 성인들의 국어 능력을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조사 방법이나 좀 더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국어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특정한 직업군이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매체언어 교육은 50~60대 성인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대인간 의사소통은 20~30대 성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어렵다면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제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14)

#### □ 평가 방법- 수행 평가, 실제 언어 능력 평가, 질적 평가

-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려면 각급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 기능 영역별 교육 내용을 평가 목표화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듣기, 문법, 읽기’의 선택형 평가는 요행이 많이 작용하므로 서술형 평가로 바꾸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항수를 줄여야 한다. ‘읽기’ 문제의 지문의 분량은 되도록 많이 제시하고 출제하여야 합니다. 쓰기 능력을 평가 문항에는 분량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작문을 하도록 하는 문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문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채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1)
- 듣기와 읽기 그리고 문법을 선택형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평가는 지필검사를 하면서, 문항에 여러 답지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요. 만일 여러 답지 중에서 선택해서 답을 하게 한다면, 이런 조사는 그야말로 년센스라 생각합니다.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식행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행위)에는 객관식, 선택형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은 모든 것이 다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엮어내는 소통 행위입니다. 실생활 속의 언어적 소통에는 지필검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읽기도 듣기도 그리고 문법 사항도 모두 실제의 언어(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황(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말하기와 듣기를 조사한다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버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상황 등의 실제적 대화 상황에 가서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법 사항도 이렇게 수집한 자료 속에서 문법 사항을 찾아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다시 수행자의 개인적 배경 변인(나이, 학력, 지역 등)과 상황변인(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말을 하고 듣는가 등)을 제대로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겠지요. 그야말로 전 국민의 담화를 분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는 당연히 그 지역, 그 사람들에

국한하여 제시되고 해석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 국민 실태조사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조사로 전국적 평균이나 실태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문광부 지원으로 ‘전국 민속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 년에 한 지역(대체로 도 단위: 예로 충청북도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지요. 이 조사 보고서에는 통계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에 나선 교수들이 표본 추출한 대상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니까요. 다분히 민속학,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언어능력 실태조사도 이런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 2)

- 어떤 방식으로 능력 조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했는가에 따라 측정된 능력 수준이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인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따라라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인의 국어 능력은 실제적인 수행 능력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수행 중심의 평가로 방식을 변경하고, 문법은 따로 측정하지 않고 이러한 영역의 수행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듯합니다. 문법을 객관식으로 따로 치를 필요가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문법, 대부분이 어문 규정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이는 국어 능력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므로 성인 국어 능력에서조차 이를 다른 영역과 대등하게 다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및 쓰기 평가는 실제적인 평가의 전반을 살펴보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3)
- 현행 국어 능력 평가는 보편적인 일상생활과 보편적인 직무 생활에서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무 상황과 특정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평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며, 평가 형식 측면에서도 선택형과 단순 기술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성인의 직무 및 일상에서 영위하는 문식 활동을 생태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표준적인 검사와 대규모의 표본으로 성인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현 상태의 평가 체제를 넘어, 실제적인 직무와 일상에서의 성인 문식 능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원의 직무와 관련된 국어 능력을

평가한다면, 실제 성인이 은행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고 사용되는 국어 사용 능력을 관찰과 면접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 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성인의 국어 능력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4)

- 듣기와 말하기를 지필고사로 평가하게 되면 언어적 혹은 맥락적 의미 파악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읽기나 쓰기와 차별화하기 매우 어렵다. 이것은 실제적인 듣기와 말하기 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매우 넓고 평가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필평가로 그 능력을 측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국민의 국어 능력은 실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토플에서 실시하는 말하기 측정 방식이나 듣기 평가 방식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말하게 하고, 실제 음성을 듣게 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를 따로 평가하면서 이 두 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대화 등의 평가를 해야 한다. 국어 능력 평가에 ‘말’ 문화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맥락의존성이 매우 높은 말은 그 말 문화에 의해 사용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어 능력을 사고력 중심의 ‘언어 능력’ 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문법 영역의 평가는 문법 자체의 지식보다는 ‘반드시’ 문법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구어와 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문법적 사용 능력(지식 능력이 아니라)을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 8)
- ‘듣기, 문법, 읽기’ 를 선택형으로 평가하고 ‘쓰기, 말하기’ 를 수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모두 수행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행 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국어 능력에 대한 실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이러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를 발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마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전문가 12)
- 문법 평가를 선택형으로 할 필요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환경에서 정확한 이해와 표현에 필요한 문법 능력은 굳이 선택형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쓰기,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5)

- <문법> 항목이 불투명하다. 문법 지식에 대한 평가인지, 어문규범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법의 실제 적용에 대한 평가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7)

□ 기타: 평가 이후 문제, 평가 결과 활용 문제, 평가 시스템 구축

- 현재의 실태조사를 확장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와 국가의 공공 기관을 통하여 보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GDP 등에 해당하는 국민국어 능력지수를 개발 운용하여, 이 조사의 국민적 피드백 체제를 살려나간다. 국민 개인별 국어 능력지수도 일반화 하도록 한다. 직장 활동을 하는 성인들의 국어 능력 급수를 제도화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거나 성공적 진보가 있는 경우, 보상적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고려한다. 국어 능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특정의 기관이나 기업, 직장 등에서는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의 국어 능력 수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 능력 평가도구는 유사한 모의도구들을 충분히 개발 보급하여, 국민들 스스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게 하고, 가족 내 가족 간 활용을 위한 능력 측정 도구를 다채롭게 개발 보급 해준다. 5. 현재의 방식(듣기, 문법, 읽기) 는 선택형 평가, ‘쓰기, 말하기’ 는 수행 평가) 이외에도 융통성 있게 변화된 방식으로 평가 도구를 다변화 한다. (전문가 9)
- 성인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는 궁극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천 개 문제 은행을 구축하여 누구나 자신의 국어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통한 국어 능력은 각종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모두 제도 차원에서 시스템화되어 평가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미국의 TOEFL이나 SAT 같은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읽기, 문법(어휘 포함) 능력은 선택형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쓰기, 말하기 능력은 직접 평가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 이러한 문제 은행 구축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구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11)
- ‘듣기, 문법, 읽기’ 를 선택형으로 평가하고 ‘쓰기, 말하기’ 를 수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모두 수행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행 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국어 능력에 대한 실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이러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를 발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마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 12)

**4.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의견란에 적어 주십시오.**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b>국어 교육과정 개발</b>  | 0          | 1       | 2    | 7    | 5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b>국어 교육 내용 개발</b> | 0          | 0       | 1    | 5    | 9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b>국어 연수</b>       | 0          | 0       | 4    | 5    | 6       |
| 국민 대상 <b>국어 능력 평가</b> (실태 조사)       | 0          | 0       | 0    | 7    | 8       |
| <b>전문 강사 양성</b>                     | 0          | 3       | 4    | 2    | 6       |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집중 진단 및 교육적 지원          | 0          | 0       | 1    | 6    | 8       |

<표 17> 정책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다른 기관과의 역할 분담**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교육 방법, 평가 방법, 교재 개발 등도 국립국어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연수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전문 강사 양성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나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부모, 교사, 정치인, 언론인 등과 직장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영 최고 책임자(CEO)나 회사 간부, 그리고 한국에 이주하여 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을 부단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1)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마땅히 국립국어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인의 직무 및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립국어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원의 직무 관련 국어 능력은 은행원의 실제적인 직무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 4)

-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위의 모든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비중으로 두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순위가 상위인 것은 국어원이 직접 수행하고, 하위인 것은 유관 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과정 기획, 교육 내용 개발, 전문 강사 양성은 우선순위 상위라 본다. (전문가 7)
-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다만 전문강사 양성은 이 정책이 지속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장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국어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교육과정 등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평생교육원, 국어문화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전문가 10)
- ‘성인의 국어 능력’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의 교육과정 개발, 교육내용 개발, 국어연수, 국어 능력 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어 능력 소외 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어 능력의 문제는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어원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효율적이면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전문가 13)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공무원, 일반인 과정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문가 15)

□ 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다양한 접근법 필요

- 국민 대상의 소통능력 신장 교육을 하기는 참으로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정

책에서는 전 국민 대상의 직접 교육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 일부 ‘모여라’ 하여 모으기 쉬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며칠 교육한다고 해서 국민 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대중 상대 매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알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친구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 목적을 그냥 ‘언어능력 개발’ 이라 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자기 계발적(독서의 경우)이고, 가족의 화목(편지쓰기)을 돈독히 하고, 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예, 소방대원, 경찰, 군인 등)을 방문하여 따뜻한 말 전하기 등의 캠페인입니다. 교육부와 문광부가 주관하고 정부 전체가 지원하는 ‘국민 000 운동’ 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여기 ‘000’ 부분은 적당한 이름을 붙여 넣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 과 비슷한 것이 되겠지요. (전문가 2)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연수는 한정적 기간 내에 강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것보다는 거주 지역 사회 내에 소규모 모임(시사 토론회, 자서전 집필회, 독서토론회 등)을 구성하고 전문 강사가 구성원 간의 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며, 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 성숙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함께 신장하며 사회 속에서 감정,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 5)
- 국어 능력 결과가 공인되어 각 업체에서 중요한 입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성인들의 국어 연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 연수를 받았을 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근무 평점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가 11)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어 능력 신장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산업 활동 등에 국어 능력의 신장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증

명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이 인간의 삶과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에 대해 사회 공동체에서 공감할 수 있다면 국어 능력 신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생활의 조건이 될 것이다. (전문가 12)

- 성인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요구되는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성인의 국어 능력에 관련된 변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 능력 실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어원의 조사는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실태가 어떠한가만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을 정밀하게 따지려면 성인 국어 능력의 관련 변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국어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자 단체의 주장처럼 한자를 병기할 때 이해도가 높아지며 어휘력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국어 능력에 한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기여율), 전 국민의 한자 친숙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그렇다면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내용에 이것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한자를 국어 능력과 연계하여 다루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3)

#### □ 강사 양성 관련

- 전문 강사는 현재 중등학교 전·현직 국어 교사나 대학의 국어 능력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 강사 양성이 내용 측면이 아니라 교수법 측면에서 양성이 된다면 그 양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을 마련하는 것보다 교육 방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크게 두어야 한다. (전문가 8)
-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다만 전문 강사 양성은 이 정책이 지속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장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국어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교육과정 등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평생교육원, 국어문화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전문가 10)

□ 교육 내용(국어 능력) 관련

- 더 필요한 정책보다 국어 교육 내용 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개발을 요구한다. 그동안 의사소통이나 상담학 등 국어학 분야 외에도 의사소통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는 실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이 중에는 세대간 의사소통, 계층간 의사소통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전문가 14)

5. 현재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공무원, 교사, 군인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 다음은 현행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훈민정음의 이해, 띄어쓰기, 생활 속의 어문규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표준언어 예절

□ 대상 확대

- 위의 예시들은 그야말로 고급 두뇌(공무원, 군인, 교사 등) 대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훈민정음의 이해 등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부 층 또는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가지고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 교육’ 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어기본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이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은 그냥 문광부나 교육부 단독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정책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국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반사회나 마을회관의 모임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녹음 자료, 만화, 길지 않은 텍스트, 서식, 퀴즈 형식의 문제(맞춤법, 띄어쓰기 등; 현재 KBS방송에서 하는 ‘우리말 겨루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등을 제작 배포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반사회장이나 이장이 주관하여 해보게 하는 것이지요. 가령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이 대화는 친한 동네 사람 사이의 대화임.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점점 대립, 갈등, 언쟁으로까지 가는 대화 내용)를 들려주고,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언쟁으로까지 가게 되었는지 찾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활동 뒤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일이나 과자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요. 제 얘기는 교육을 국민 대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2)

#### □ 현재 교육 내용에서 약간 보완

- 현재의 교육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서(예를 들어, 계약서)를 바로 쓰도록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이거나 외국어 흔적이 많다. 각종 직업 세계의 전문어들 중에서도 일반인이 자주 접하는 용어들의 순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6)
- 1. 필요한 교육 내용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2. 표준 언어 예절 외에 화법 일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즉,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다. 공직자로서 국민들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생활 속의 어문규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와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등은 겹쳐 있어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범 교육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관심/흥미가 떨어져 전체 교육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가 7)
-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계발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입니다. (생애 독자로서의 글 읽기와 생애 작가로서의 글쓰기 등등) (전문가 10)

-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 내용들은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 가지 더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어 사랑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연수 내용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소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교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국어 사랑 스토리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립국어원이나 시도교육청 등 차원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혹은 책자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연수하는 것은 국어 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전문가 11)
- 지금까지 축적해 온 국어 관련 내용의 경험과 내용을 바탕으로 강좌를 구성하되 기반이 되는 강좌와 확장된 강좌로 강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반 강좌는 위의 어문 규범, 국어 순화, 표기법, 훈민정음, 공공언어 등과 같이 공식적인 언어 운영의 준거가 되는 내용과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확장된 강좌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을 직접 실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문 규범과 공공언어를 학습하고 실제로 공문서 작성을 실습해 보는 방식으로 강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12)
- **규범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내용 다변화 및 대상별 교육 내용 전문화**
  - 국립국어원에서 일방적으로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내용을 정하여 교육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사, 군인이 학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어문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어문 규범 해설서를 보고 학습자들이 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몇 그룹으로 세분하여 교육 내용을 제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중에도 경찰관, 군인들은 수직사회에서 생활하므로 그들의 언어는 다른 공무원 사회와 다른 점이 많다. 판사, 검사 등과 같은 법조인들은 법률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들에게는 비법조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구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구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법조문도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에게 예절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말이나 막말을 하는 법조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욕설을 구사해선 안 된다. 그들이 수업 시간에 구사하는 말은 쉽고 품위 있는 말이어야 한다.

공문서 중에는 옛 말투, 난해한 한자어, 외국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쓰인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실례로 들어 교육하는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 1)

-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말하자면,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문법 영역의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물론 국어 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보다는 교양 또는 소양 영역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오히려 국어 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현재의 교육 내용은 다소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문 교범을 강조하면 할수록 적극적인 의사 표현 활동, 창의적인 언어생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어문 규정에 맞게 말하면서 과묵한 것보다는 비표준 발음이 다소 섞여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국어 능력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문 규범을 정하는 국어원에서 주최하는 <국어문화학교>이니 이러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훈민정음의 이해>까지 있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국어 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러한 것은 국어 능력의 매우 작은 영역에 해당하므로 다른 영역의 내용, 의사소통의 본질에 좀 더 부합하는 영역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어문화학교>가 국어 능력만의 신장이 아니라, 국어와 관련된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어 능력의 시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국어문화학교>가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 강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학습 하는 내용이므로,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몇몇 가지로 축약하고 국어 능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들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 3)
-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만, 특히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요구되는 이타적 언어적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접근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표준 언어 예절뿐만 아니라 원활한 언어적 소통 기술, 배려적 언어 소통 기술, 타인 중심 언어 소통 기술 등의 내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4)

- 위 교육 내용을 꼭 국어 문화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라면 사람이 함께 모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직무대화능력, 토론능력, 회의능력 신장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실기 등등. 국어문화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가? 문법, 규범 중심의 교육 내용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이들 강좌를 통해서 성인의 실용적 국어 능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전문가 5)
- 한글 맞춤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는 이유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정도의 내용을 성인의 국어 사용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 한글 맞춤법 자체를 포함하지 말고, 이를 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교육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한글 맞춤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글의 사용, 사회적 언어 예절 등 언어 예절에 관한 것, 외국어 오남용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전문가 8)
- 지나치게 규범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규범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실행되기까지의 효과도 적고 실질적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성인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규범이 녹아 든(규범과 생활의 실체가 융합된) 체험과 생산 중심의 교육 내용들이 대폭 강화 되어야 한다. (전문가 9)
- 문화학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나는 맞춤법, 띄어쓰기와 같이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둘째는 국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는 국어 능력이 사고능력이라는 측면이다. 국민의 사고능력이 높으면 그만큼 국가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

련된 것이다. 사실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것은 몇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국어를 바르게 쓰려는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13)

- 가장 기본적인 교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국어가 중요한지 개관적인 강의가 필요하다. 말로 인해 글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실질적 사례를 통해 국어의 중요성을 강의할 필요가 있다. 다소 딱딱한 강의만 있는데 노교수들이나 방송인 중 재미있으면서 국어의 중요성을 설교할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면 좋겠다. (전문가 14)

## 5-2. 국어문화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문화학교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  |
|--|
| 의견1: 현재와 같이 공무원, 교사, 군인을 대상으로 직접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br>의견2: 교육 내용 연구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접 교육은 전국 국어문화원, 대학, 연구소에 위임한다.<br>의견3: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
|--|

### 의견 1: 현재와 같이 공무원 대상으로 직접 교육(5)

- 의견 1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 법조인, 교사, 일반 공무원 등 4개 그룹으로 세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실시하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므로 연 2~4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1)
- <의견 1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문화학교를 통한 교육은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학교의 교육 내용을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해 보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가령 강의중심보다는 (비록 그 강의에서 실제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역시 강의는 강의입니다.) 모든 수강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가령 조별 활동 등을 통해 모두 참여) 언어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가령 ‘동아리 소식지 만들기’ (이것을 만들려면 모여 회의하고, 사진이나 글 모으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종합적인 언어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 소개하는 팸플릿 만들기’ 등을 해 보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강의 듣는 것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활동이 더 생생하고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공문서를 많이 수집하고 그것을 하나씩 들어가며 부족한 점 지적하기, 더 좋은 공문서 만들기 등이지요. 전에 내가 한 번 대학원 강의에서 해 본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참으로 많은 서류들(신고서, 청원서 등)을 보면서 좀 더 좋은 서류 양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 칸이 부족하거나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것, 활자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어휘(용어)가 부적합한 것 등입니다. 병원에도 각종 서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내방객들이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많지요. 그리고 병원 벽에는 온갖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방의 이름을 표시하는 표지도 있고요. 이런 병원 내 각종 정보들을 모아 분석하면서 그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그래서 내방객들이 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내문에는 글자크기가 너무 작기도 하고,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읽기 불편하기도 합니다. 병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지요. 국립국어원에서 한 이런 자료는 그대로 국민 대상 교육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2)

- 의견1의 대상들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올바르게 효과적인 국어 능력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연수하여 결국 국어 능력 신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11)

□ 의견 2: 국어원은 연구와 관리만, 직접 교육은 다른 기관에 위탁(8)

- 국립문화학교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국립문화학교가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수행하기 쉽지 않다면,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립문화학교는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전문 강사 교육이나 교육은 여러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 4)

- 교육 내용 연구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접 교육은 전국 국어 문화원, 대학, 연구소에 위임한다. ‘국어 문화 학교’가 의견 2의 역할을 하면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 방법을 더욱 효율성 있게 하면서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어문화학교에서 직접 직무 연수를 실시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교사, 군인은 아니지만 직무 연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 기타 국어 능력 신장이 필요한 일반성인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 5)
- 전체적으로는 <의견 2>에 동의한다. 국어원은 교육에 대한 기획,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그리고 전문 강사에 대한 집중 강의를 담당하고, 직접 교육은 전국 국어문화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원이 전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각 지역에 분산,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국어원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7)
- 의견 2도 물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어문화원, 대학, 연구소의 인력들이 과연 국어 능력 강연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강연자들에게 대한 전문교육이 문화학교 차원에서 선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1)
- 국립국어원은 중앙 연구기관이다. 중앙 연구기관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앙 연구기관으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견 2에 동의한다. (전문가 13)
- 의견 1처럼 직접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다. 연구원 각자가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교육자들이 국어원을 방문하는 경험도 필요하므로 직접 직무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 2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내용 연구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어원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국어문화원,



대학, 연구소의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명 강사들을 한두 번 불러와서 강의하는 것으로는 강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할 수만 있다면 성인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국어원이 갖추었으면 한다. (전문가 14)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문화학교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데, 현행 국립국어원 중심의 직접 교육은 질적으로 양호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국립국어원은 교육내용 연구 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접 교육은 전국 국어문화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어문화원은 전국 주요 시도에 설립되어 각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문가 15)
- 현재와 같은 공공 부문의 직접 연수를 시행하되,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곳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위임을 하는 기관이 일정한 품질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직접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 내용 개발, 강사 연수 등의 근거가 되는 경험과 노하우는 직접 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12)

### □ 의견 3: 소외 계층 우선 교육(6)

- 우선 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많이 부끄럽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전문가 2)
- 만약 국어원에서 성인의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실태에 대응하는 대중적인 처방으로는 국어원이 기대하는 모든 국민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인 국어 능력의 원천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성인 국어 능력에서 부족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 국어 능력의 구인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조사하여 어떤 능력을 학교 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연수, 교사 연수, 군인 연수도 좋지만, 이들은 사실 성인 국어 능력이 그래도 우수한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어원이 본질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엘리트 집단보다는 국어 소양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양 교육의 강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3>에 해당하는 역할을 앞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3)

- 국어원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자체적인 국어 능력 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8)
- 의견 3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의견 2처럼 연수를 맡을 전문가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11)
-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조 하에 강의 내용을 제공한다든지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은 기관끼리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14)
-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해교육 대상자나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교육내용 연구 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은 국립국어원이 담당하고 실제적인 교육은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문가 15)
- ‘의견 3’ 은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상과 내용, 구체적인 시행안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12)

세 의견 모두 중요함

- 세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시간적으로 순서를 두어서 추구하면 될 것 같다. 현재는 의견 1에 따라 직접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의견 2에 따라 국어 문화 학교는 교육 내용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실제적인 교육은 전국 국어문화원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 3에 대해서는 국어문화학교가 직접 교육에 나서기보다는 정책 개발, 실태 조사, 교육과정 개발, 자료 개발 등에 더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제적인 교육은 의견 2에 따라 지역의 국어문화원이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문가 6)
- 현행대로 하면서 확산 전이의 효과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길게 보면 이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수요와 보급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고정 콘텐츠로 적용할 수는 없는가? 국어문화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어문화학교 교육 콘텐츠를 혁신 확장할 수는 없는가. 그런 후에 이런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 평생교육이나 여러 주체들에 의한 자기 계발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공유될 수 있는 점 등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 9)
- 의견 1, 2, 3이 모두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과 2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3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전문가 10)

### 4.3. 전문가 의견 정리 및 시사점

- 국민의 국어 능력신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시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직무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통일된 견해를 보인다. 전문가 의견의 핵심은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을 연령·성별·직종·학력 등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구성해 각각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러한 점은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의 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선행 연구와, 교육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연령별, 직업별, 세대별

로 분화되어 실시하되 직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직업과 관련된 문식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여 매체 문식성 교육에 대한 강조 역시 다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보다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성인 대상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내용이나 성인 대상 교육 정책에 이러한 점이 재고되어야 하겠다.

- 둘째, 성인의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교육으로서 분명한 차별성을 지녀야 함을 다수의 전문가 집단은 지목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역시 성인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연령이나 직업 등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교육 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재의 평가 대상 집단을 세분화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이 시급하고 필요한 집단, 교육에 취약한 집단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통일된 의견을 보였다.
- 평가 방식은 현재의 지필평가, 선택형 평가가 가지는 의의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행형 평가, 질적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읽기나 듣기뿐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등의 실제 언어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수의 전문가가 국어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집중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립국어원과 다른 기관과의 공조 역시, 교육 내용 개발이나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평가)와 같은 기초 연구 및 교육 내용 개발 등의 업무는 국립국어원에서

관할하되 실제 교육이나 강사 양성은 국립국어원뿐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국어문화원, 각 대학 및 초중고교)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운영 방식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초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 5. 성인 국어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 5.1. 조사 개관

-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은 국어기본법 제9조<sup>15</sup>에 기반을 두어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조사 사업이다. 2005년, 2010년에 이어 실시된 이번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는 사회, 언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국어 정책 및 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추진되었다. 5장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에서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 사업의 내용 중 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항의 자료를 확보하여 통계 처리를 다시 하여 분석한 것이다.
- 조사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조사 문항 검토하여 정비하는 일, 전 국민 중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수행하고 그 통계 결과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언어 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국민의 언어의식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일,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관한 연도별 대국민 홍보 전략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조사 문항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언어 사용 일반,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및 언어 사용 환경에 관한 설문 등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 5,000명이며, 가구 방문을 통한 1:1 개별 면접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 5.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전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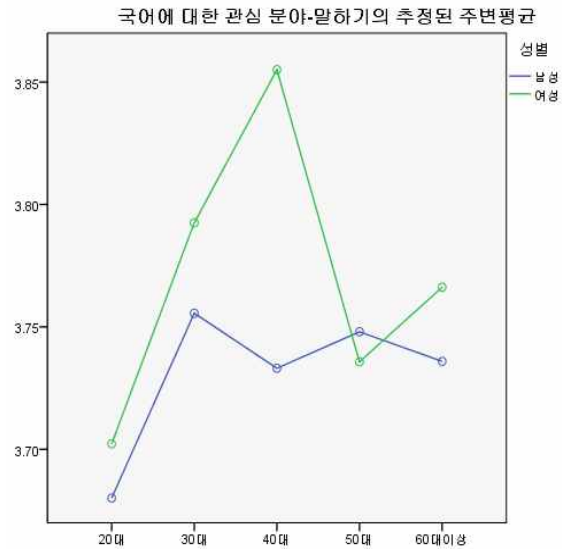
<sup>15</sup> (국어기본법 제9조)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의식과 국어사용 환경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과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 국어에 대한 관심          | 평균   | 표준편차  | 순위 |
|--------------------|------|-------|----|
| 언어 예절              | 3.84 | 0.82  | 1  |
| 말하기                | 3.75 | 0.77  | 2  |
| 맞춤법과 발음            | 3.54 | 0.853 | 3  |
| 글쓰기                | 3.47 | 0.904 | 4  |
| 표준어와 지역 방언         | 3.22 | 0.906 | 5  |
| 단어의 의미와 유래         | 3.20 | 0.883 | 6  |
| 고유어                | 3.18 | 0.901 | 7  |
|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 3.12 | 0.877 | 8  |
|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 3.11 | 0.935 | 9  |
| 한자 사용              | 2.93 | 0.943 | 10 |

-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분야별로 알아보면, ‘언어 예절(3.84)’ 에 대한 관심이 전체 세부 분야 중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말하기’ (3.75), ‘한글 맞춤법과 발음’ (3.54), ‘글쓰기’ (3.47)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자 사용’ (2.93),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3.11), ‘고유어’ (3.18), ‘표준어와 지역 방언’ (3.22)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말하기’, ‘언어 예절’, ‘글쓰기’의 순서로 관심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관심 분야 상위에 ‘말하기’와 ‘언어 예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말하기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68 | 0.824 | 422   |
|    | 30대    | 3.76 | 0.743 | 491   |
|    | 40대    | 3.73 | 0.778 | 562   |
|    | 50대    | 3.75 | 0.776 | 500   |
|    | 60대 이상 | 3.74 | 0.791 | 284   |
|    | 합계     |      | 3.73  | 0.78  |
| 여성 | 20대    | 3.70 | 0.776 | 403   |
|    | 30대    | 3.79 | 0.748 | 482   |
|    | 40대    | 3.86 | 0.769 | 545   |
|    | 50대    | 3.74 | 0.726 | 507   |
|    | 60대 이상 | 3.77 | 0.783 | 278   |
|    | 합계     |      | 3.78  | 0.7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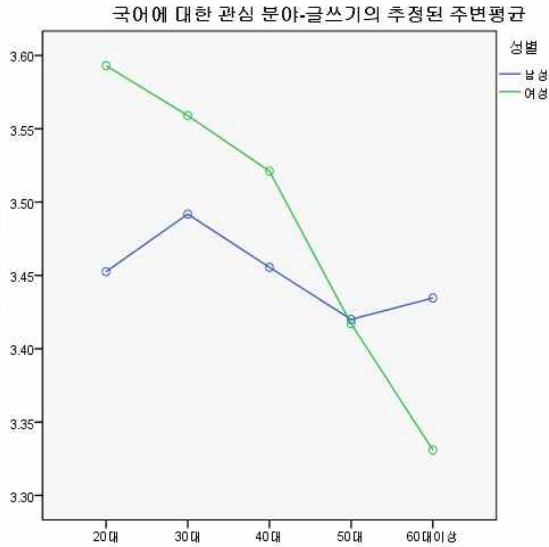
- 국어에서 ‘말하기’ 분야에 대한 성별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관심 정도(3.78)가 남성의 관심 정도(3.7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30대에서 말하기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3.76)을 보였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관심(3.68)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별 차이가 남성보다 큰데, 그 중에서도 40대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86) 그러나 이 관심도는 50대가 되면 크게 하락(3.74)한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의 관심도가 가장 낮다(3.7).

□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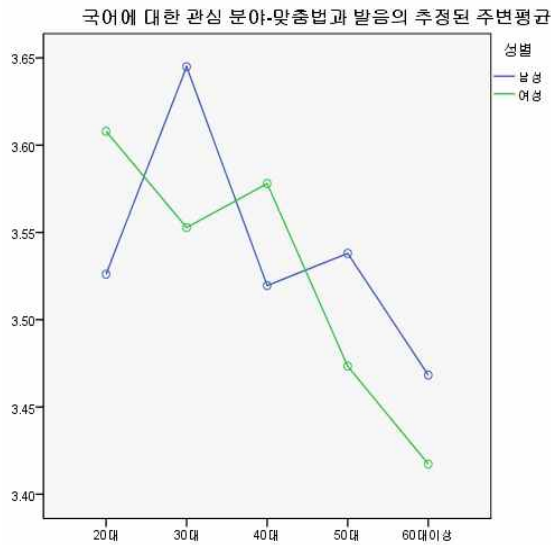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45 | 0.968 | 422   |
|    | 30대    | 3.49 | 0.854 | 490   |
|    | 40대    | 3.46 | 0.893 | 562   |
|    | 50대    | 3.42 | 0.902 | 500   |
|    | 60대 이상 | 3.43 | 0.988 | 283   |
|    | 합계     |      | 3.45  | 0.913 |
| 여성 | 20대    | 3.59 | 0.897 | 403   |
|    | 30대    | 3.56 | 0.919 | 483   |
|    | 40대    | 3.52 | 0.862 | 545   |
|    | 50대    | 3.42 | 0.838 | 506   |
|    | 60대 이상 | 3.33 | 0.983 | 278   |
|    | 합계     |      | 3.49  | 0.895 |



- 국어에서 ‘글쓰기’ 분야에 대한 성별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관심 정도(3.49)가 남성의 관심 정도(3.45)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30대에서 글쓰기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3.49)을 보였으며, 50대가 가장 낮은 관심(3.42)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별 차이가 남성보다 크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대 여성의 경우 말하기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다가(3.59) 나이가 들수록 그 관심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감소폭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커진다. 그 후 60대 이상이 되면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이게 된다(3.33).

□ 맞춤법과 발음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53 | 0.854 | 422   |
|    | 30대    | 3.64 | 0.809 | 490   |
|    | 40대    | 3.52 | 0.859 | 562   |
|    | 50대    | 3.54 | 0.859 | 500   |
|    | 60대 이상 | 3.47 | 0.859 | 284   |
|    | 합계     |      | 3.55  | 0.849 |
| 여성 | 20대    | 3.61 | 0.844 | 403   |
|    | 30대    | 3.55 | 0.814 | 483   |
|    | 40대    | 3.58 | 0.91  | 545   |
|    | 50대    | 3.47 | 0.849 | 507   |
|    | 60대 이상 | 3.42 | 0.845 | 278   |
|    | 합계     |      | 3.53  | 0.8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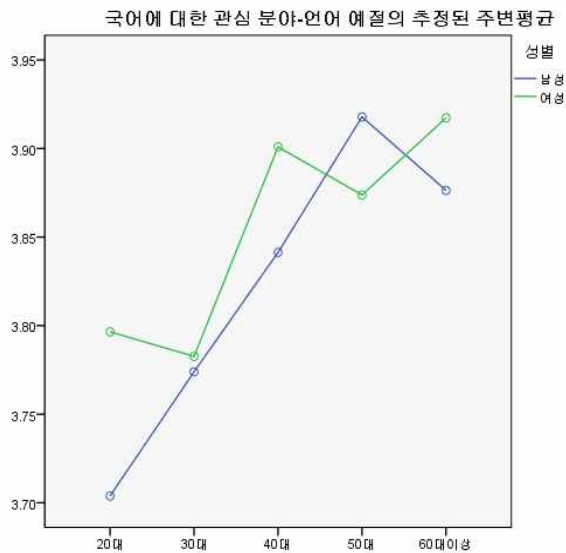


- 국어에서 ‘맞춤법과 발음’ 분야에 대한 성별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관심 정도(3.55)가 여성의 관심 정도(3.5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30대에서 맞춤법과 발음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3.64)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관심(3.47)을 보였다. 30대 남성의 경우 연령대별, 성별을 모두 합쳐도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며(3.61), 60대 이상이 되면 연령별, 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3.42).

□ 언어 예절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70 | 0.855 | 422   |
|    | 30대    | 3.77 | 0.813 | 491   |
|    | 40대    | 3.84 | 0.833 | 561   |
|    | 50대    | 3.92 | 0.826 | 499   |
|    | 60대 이상 | 3.88 | 0.800 | 283   |
|    | 합계     |      | 3.82  | 0.830 |
| 여성 | 20대    | 3.80 | 0.818 | 403   |
|    | 30대    | 3.78 | 0.82  | 483   |
|    | 40대    | 3.90 | 0.812 | 545   |
|    | 50대    | 3.87 | 0.767 | 507   |
|    | 60대 이상 | 3.92 | 0.831 | 278   |
|    | 합계     |      | 3.85  | 0.8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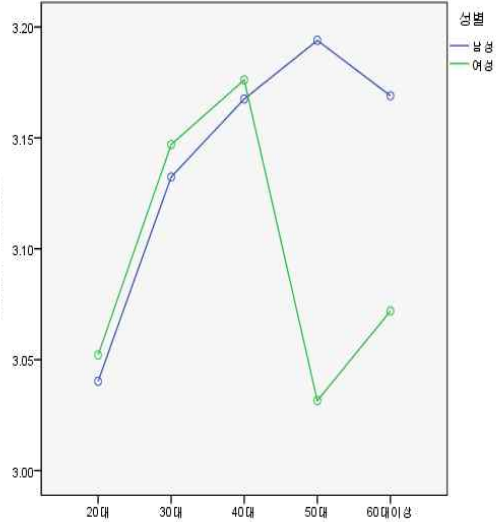


- 국어에서 ‘언어 예절’ 분야에 대한 성별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관심 정도(3.85)가 남성의 관심 정도(3.82)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언어 예절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3.7→3.92). 60대 이상이 되면 관심도가 조금 하락하지만(3.88) 20~40대보다는 더 높은 수치이다. 이는 국어의 다른 분야와 달리 언어 예절 분야가 높은 연령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별 관심도 변화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연령의 여성일수록 언어 예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며(3.92) 30대가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3.78).

□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04 | 0.953 | 422   |
|    | 30대    | 3.13 | 0.858 | 491   |
|    | 40대    | 3.17 | 0.877 | 561   |
|    | 50대    | 3.19 | 0.875 | 500   |
|    | 60대 이상 | 3.17 | 0.857 | 284   |
|    | 합계     |      | 3.14  | 0.885 |
| 여성 | 20대    | 3.05 | 0.949 | 403   |
|    | 30대    | 3.15 | 0.848 | 483   |
|    | 40대    | 3.18 | 0.852 | 545   |
|    | 50대    | 3.03 | 0.843 | 507   |
|    | 60대 이상 | 3.07 | 0.855 | 278   |
|    | 합계     |      | 3.1   | 0.869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의 추정된 주변평균



- 국어에서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분야에 대한 성별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관심 정도(3.14)가 여성의 관심 정도(3.1)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3.04)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50대에서 가장 높은 관심(3.19)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역시 20대(3.05)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아져 40대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며(3.18), 50대가 되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진다(3.03).

□ 학력별 분석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 말하기  | 글쓰기   | 맞춤법과 발음 | 언어 예절 |
|--------------|------|------|-------|---------|-------|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평균   | 3.68 | 3.16  | 3.29    | 3.89  |
|              | 명    | 104  | 104   | 104     | 104   |
|              | 표준편차 | .802 | 1.024 | .944    | .751  |
| 중학교 졸업       | 평균   | 3.69 | 3.40  | 3.38    | 3.95  |
|              | 명    | 290  | 289   | 290     | 290   |
|              | 표준편차 | .791 | .966  | .861    | .811  |
| 고등학교 졸업      | 평균   | 3.73 | 3.40  | 3.48    | 3.82  |
|              | 명    | 1778 | 1776  | 1778    | 1775  |
|              | 표준편차 | .750 | .886  | .856    | .815  |

|                          |      |      |      |      |      |
|--------------------------|------|------|------|------|------|
| 전문대(2년제)<br>졸업/전문대<br>재학 | 평균   | 3.78 | 3.54 | 3.61 | 3.82 |
|                          | 명    | 2197 | 2198 | 2197 | 2198 |
|                          | 표준편차 | .778 | .895 | .839 | .824 |
| 대학교<br>졸업/대학교<br>재학      | 평균   | 3.94 | 3.82 | 3.82 | 4.05 |
|                          | 명    | 98   | 98   | 98   | 98   |
|                          | 표준편차 | .810 | .890 | .779 | .880 |
| 합계                       | 평균   | 3.75 | 3.47 | 3.54 | 3.84 |
|                          | 명    | 4468 | 4466 | 4468 | 4466 |
|                          | 표준편차 | .770 | .904 | .854 | .820 |

-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언어 예절(3.84)’에 대한 관심이 전체 네 개 분야 중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하기’ (3.75), ‘한글 맞춤법과 발음’ (3.54), ‘글쓰기’ (3.47)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분야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각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문대 졸업/재학’ 학력군에서 ‘대학교 졸업/재학’ 학력군 사이에서 관심도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네 분야 모두에서 나타난다.
- ‘글쓰기’ 경우 ‘전문대 졸업/재학’ 학력군에서 ‘대학교 졸업/재학’ 학력군 사이의 격차가 0.28로 가장 크다. 다른 분야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관심도 역시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에 반해 ‘언어 예절’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학력군(3.95)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군(3.82) 사이에 관심도가 감소하였다.

#### □ 직업별 분석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 말하기  | 글쓰기   | 맞춤법과 발음 | 언어 예절 |
|----------------|------|------|-------|---------|-------|
| 농업/수산업/<br>축산업 | 평균   | 3.59 | 3.47  | 3.25    | 3.71  |
|                | 명    | 105  | 105   | 105     | 104   |
|                | 표준편차 | .878 | 1.125 | 1.124   | 1.006 |
| 자영업            | 평균   | 3.77 | 3.40  | 3.51    | 3.90  |
|                | 명    | 1015 | 1013  | 1014    | 1013  |
|                | 표준편차 | .743 | .893  | .829    | .760  |

|             |      |      |      |      |      |
|-------------|------|------|------|------|------|
| 판매/서비스<br>직 | 평균   | 3.72 | 3.38 | 3.49 | 3.73 |
|             | 명    | 617  | 617  | 617  | 617  |
|             | 표준편차 | .766 | .898 | .864 | .842 |
| 기능/숙련공      | 평균   | 3.69 | 3.36 | 3.47 | 3.77 |
|             | 명    | 274  | 273  | 274  | 274  |
|             | 표준편차 | .806 | .922 | .844 | .867 |
| 일반작업직       | 평균   | 3.72 | 3.35 | 3.49 | 4.00 |
|             | 명    | 91   | 91   | 91   | 91   |
|             | 표준편차 | .729 | .836 | .809 | .732 |
| 사무/기술직      | 평균   | 3.76 | 3.54 | 3.61 | 3.78 |
|             | 명    | 896  | 896  | 896  | 896  |
|             | 표준편차 | .784 | .897 | .848 | .829 |
| 경영/관리직      | 평균   | 3.85 | 3.76 | 3.83 | 4.06 |
|             | 명    | 46   | 46   | 46   | 46   |
|             | 표준편차 | .728 | .793 | .797 | .951 |
| 전문/자유직      | 평균   | 3.88 | 3.71 | 3.70 | 4.01 |
|             | 명    | 125  | 125  | 125  | 125  |
|             | 표준편차 | .858 | .950 | .944 | .920 |
| 전업주부        | 평균   | 3.79 | 3.49 | 3.52 | 3.89 |
|             | 명    | 824  | 825  | 825  | 825  |
|             | 표준편차 | .747 | .883 | .844 | .790 |
| 학생          | 평균   | 3.74 | 3.59 | 3.65 | 3.81 |
|             | 명    | 358  | 358  | 358  | 358  |
|             | 표준편차 | .773 | .899 | .782 | .816 |
| 무직          | 평균   | 3.73 | 3.52 | 3.49 | 3.86 |
|             | 명    | 113  | 113  | 113  | 113  |
|             | 표준편차 | .815 | .927 | .900 | .844 |
| 군인          | 평균   | 3.00 | 3.00 | 3.00 | 5.00 |
|             | 명    | 1    | 1    | 1    | 1    |
|             | 표준편차 | -    | -    | -    | -    |
| 합계          | 평균   | 3.75 | 3.47 | 3.54 | 3.84 |
|             | 명    | 4464 | 4462 | 4464 | 4462 |
|             | 표준편차 | .770 | .905 | .853 | .820 |

-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를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의 경우 전문/자유직(3.88) > 경영/관리직(3.85) > 전업주부(3.79)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농업/수산업/축산업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59). ‘쓰기’의 경우 경영/관리직(3.76) > 전문/자유직(3.71) > 학생(3.59)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일반작업직 종사자들의 관심이 가장 낮았다(3.35). ‘맞춤법과 발음’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직(3.83) > 전문/자유직(3.70) > 학생(3.65)의 순



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농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25). ‘언어 예절’의 경우 군인(5.00) > 경영/관리직(4.06) > 전문/자유직(4.01)의 순으로 언어 예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농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들이 이에 대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3.71)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문대 졸업/재학’ 학력군에서 ‘대학교 졸업/재학’ 학력군 사이에서 관심도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네 분야 모두에서 나타난다. ‘글쓰기’ 경우 ‘전문대 졸업/재학’ 학력군에서 ‘대학교 졸업/재학’ 학력군 사이의 격차가 0.28로 가장 크다. 다른 분야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관심도 역시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에 반해 ‘언어 예절’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학력군(3.95)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군(3.82) 사이에 관심도가 감소하였다.

□ 소득별 분석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 말하기  | 글쓰기  | 맞춤법과 발음 | 언어 예절 |
|--------------|------|------|------|---------|-------|
| 100만원 이하     | 평균   | 3.68 | 3.52 | 3.38    | 3.83  |
|              | 명    | 91   | 91   | 91      | 91    |
|              | 표준편차 | .801 | .901 | .930    | .848  |
| 201만원-250만원  | 평균   | 3.58 | 3.29 | 3.32    | 3.77  |
|              | 명    | 224  | 224  | 224     | 224   |
|              | 표준편차 | .871 | .959 | .958    | .841  |
| 351만원-550만원  | 평균   | 3.79 | 3.51 | 3.44    | 3.87  |
|              | 명    | 583  | 582  | 583     | 580   |
|              | 표준편차 | .821 | .958 | .940    | .886  |
| 101만원-200만원  | 평균   | 3.71 | 3.46 | 3.53    | 3.81  |
|              | 명    | 808  | 807  | 808     | 808   |
|              | 표준편차 | .753 | .923 | .862    | .828  |
| 251만원-350만원  | 평균   | 3.76 | 3.46 | 3.57    | 3.85  |
|              | 명    | 1968 | 1968 | 1969    | 1969  |
|              | 표준편차 | .746 | .888 | .824    | .812  |
| 551만원 이상     | 평균   | 3.82 | 3.54 | 3.63    | 3.84  |
|              | 명    | 787  | 787  | 786     | 787   |
|              | 표준편차 | .761 | .861 | .791    | .767  |
| 합계           | 평균   | 3.75 | 3.47 | 3.54    | 3.84  |
|              | 명    | 4462 | 4460 | 4462    | 4460  |
|              | 표준편차 | .769 | .904 | .854    | .8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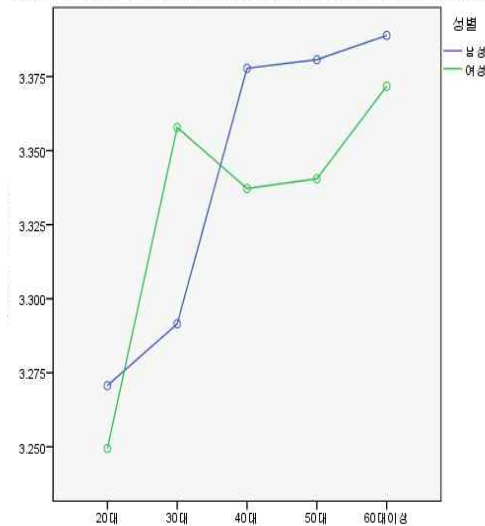
-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를 소득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고소득군일수록 국어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양상을 보여, 말하기, 글쓰기, 맞춤법과 발음 분야 모두 551만 원 이상 소득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언어 예절의 경우 특이하게 351만 원-550만 원 소득군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특징이 발견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인 것은 201만 원-250만 원 소득군이다.
- ‘말하기’의 경우 551만 원 소득군(3.82) > 351만 원-550만 원 소득군(3.79) > 251만 원-350만 원(3.76)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1만 원-250만 원 소득군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59) ‘글쓰기’의 경우 551만 원 소득군(3.54) > 100만 원 이하 소득군(3.52) > 351만 원-550만 원 소득군(3.51)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1만 원-250만 원 소득군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29) ‘맞춤법과 발음’의 경우 551만 원 소득군(3.63) > 251만 원-350만 원(3.57) > 101만 원-200만 원(3.53)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1만 원-250만 원 소득군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32). ‘언어 예절’의 경우 351만 원-550만 원 소득군(3.87) > 251만 원-350만 원(3.85) > 551만 원 소득군(3.84)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1만 원-250만 원 소득군이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77).

### 5.3.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27 | 0.79  | 484   |
|    | 30대    | 3.29 | 0.834 | 542   |
|    | 40대    | 3.38 | 0.738 | 622   |
|    | 50대    | 3.38 | 0.798 | 570   |
|    | 60대 이상 | 3.39 | 0.757 | 324   |
|    | 합계     |      | 3.34  | 0.786 |
| 여성 | 20대    | 3.25 | 0.835 | 437   |
|    | 30대    | 3.36 | 0.786 | 517   |
|    | 40대    | 3.34 | 0.805 | 599   |
|    | 50대    | 3.34 | 0.785 | 558   |
|    | 60대 이상 | 3.37 | 0.731 | 347   |
|    | 합계     |      | 3.33  | 0.792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의 추정된 주변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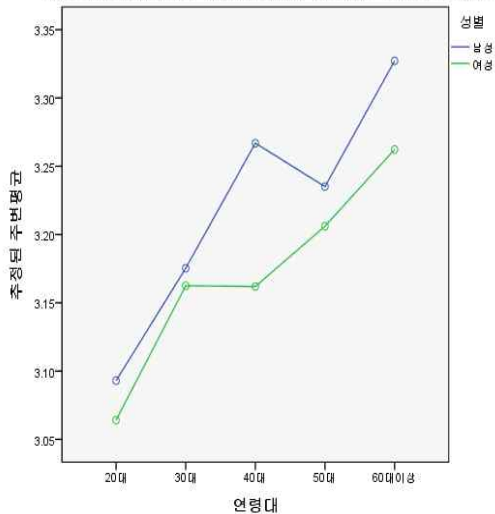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도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남: 3.34 / 여: 3.33). 남성의 경우,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3.27).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문제 인식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60대 이상이 되면 문제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3.39). 여성의 경우 역시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3.25) 30대부터 60대 이상은 비슷한 정도를 보인다.

□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09 | 0.869 | 484   |
|    | 30대    | 3.18 | 0.873 | 542   |
|    | 40대    | 3.27 | 0.83  | 622   |
|    | 50대    | 3.24 | 0.87  | 570   |
|    | 60대 이상 | 3.33 | 0.868 | 324   |
|    | 합계     |      | 3.21  | 0.863 |
| 여성 | 20대    | 3.06 | 0.894 | 437   |
|    | 30대    | 3.16 | 0.874 | 517   |
|    | 40대    | 3.16 | 0.857 | 599   |
|    | 50대    | 3.21 | 0.799 | 558   |
|    | 60대 이상 | 3.26 | 0.838 | 347   |
|    | 합계     |      | 3.17  | 0.8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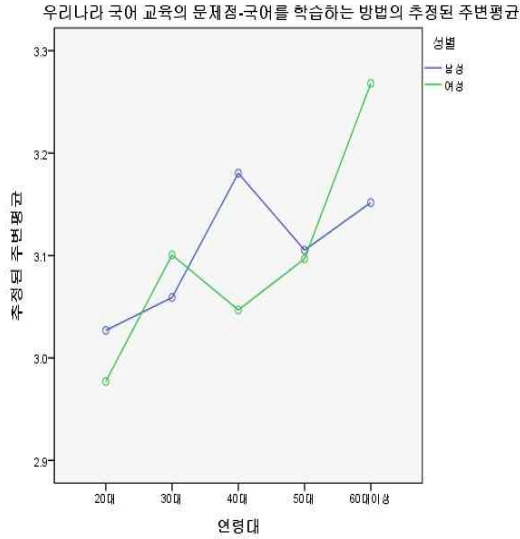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의 추정된 주변평균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다시 말해 국어의 교수 방법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 3.21 / 여: 3.17).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국어의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3.09)에서 가장 문제 인식 정도가 높으며, 60대 이상이 되면 국어의 교수 방법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가 낮아진다(3.33). 여성의 경우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국어 교육에서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3.06)에서 가장 문제 인식 정도가 높으며, 60대 이상이 되면 교수 방법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가 낮아진다(3.26).

□ 국어를 학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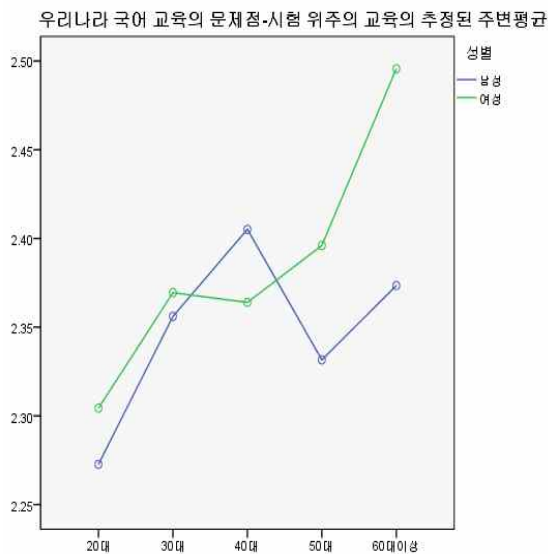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03 | 0.913 | 484   |
|    | 30대    | 3.06 | 0.904 | 542   |
|    | 40대    | 3.18 | 0.891 | 621   |
|    | 50대    | 3.11 | 0.859 | 570   |
|    | 60대 이상 | 3.15 | 0.887 | 323   |
|    | 합계     |      | 3.10  | 0.892 |
| 여성 | 20대    | 2.98 | 0.908 | 437   |
|    | 30대    | 3.10 | 0.903 | 517   |
|    | 40대    | 3.05 | 0.873 | 598   |
|    | 50대    | 3.10 | 0.852 | 558   |
|    | 60대 이상 | 3.27 | 0.896 | 347   |
|    | 합계     |      | 3.09  | 0.888 |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정도의 인식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 3.1 / 여: 3.09). 남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국어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3.18), 40대가 가장 문제 인식 정도가 낮다(3.03).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문제 인식 정도가 연령대별/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으며 (3.27),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의 문제 인식 정도가 가장 높다(2.96).

□ 시험 위주의 교육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2.27 | 0.97  | 484   |
|    | 30대    | 2.36 | 0.932 | 542   |
|    | 40대    | 2.41 | 0.95  | 622   |
|    | 50대    | 2.33 | 0.911 | 570   |
|    | 60대 이상 | 2.37 | 0.9   | 324   |
|    | 합계     |      | 2.35  | 0.935 |
| 여성 | 20대    | 2.3  | 0.949 | 437   |
|    | 30대    | 2.37 | 0.932 | 517   |
|    | 40대    | 2.36 | 0.928 | 599   |
|    | 50대    | 2.4  | 0.912 | 558   |
|    | 60대 이상 | 2.5  | 0.96  | 347   |
|    | 합계     |      | 2.38  | 0.9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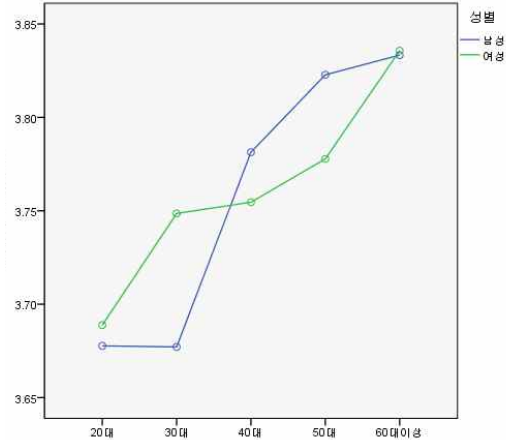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 ‘시험 위주의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 2.35 / 여: 2.38). 남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국어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3.18), 40대의 문제 인식 정도가 가장 낮다(3.03).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문제 인식 정도가 연령대별/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으며(3.27),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의 문제 인식 정도가 가장 높다(2.96).

## 5.4. 국어 능력 평가 시험

□ 국어 능력 저하 상황이므로 필요하다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68 | 0.704 | 484   |
|    | 30대    | 3.68 | 0.735 | 542   |
|    | 40대    | 3.78 | 0.745 | 622   |
|    | 50대    | 3.82 | 0.703 | 570   |
|    | 60대 이상 | 3.83 | 0.71  | 324   |
|    | 합계     |      | 3.76  | 0.724 |
| 여성 | 20대    | 3.69 | 0.769 | 437   |
|    | 30대    | 3.75 | 0.709 | 517   |
|    | 40대    | 3.75 | 0.719 | 599   |
|    | 50대    | 3.78 | 0.712 | 558   |
|    | 60대 이상 | 3.84 | 0.666 | 347   |
|    | 합계     |      | 3.76  | 0.718 |

국어 능력 평가 시험-국어 능력 저하 상황이므로 필요하다의 추정된 주변평균



- 국어 능력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국어 능력 평가가 필요한 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국민들은 남녀 관계없이 모두 ‘대체로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필요하다’ 는 답변을 보였다. 이 문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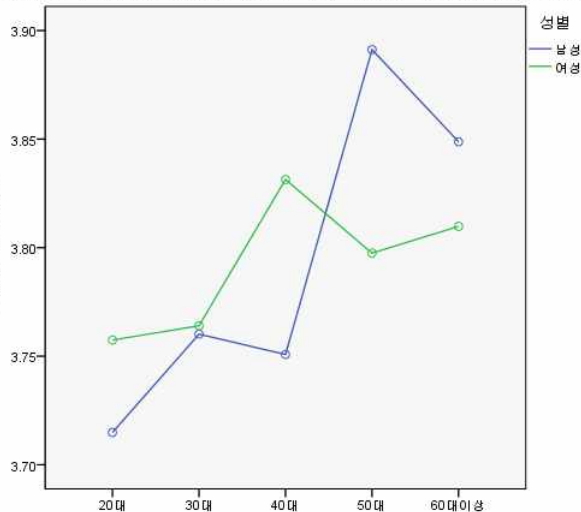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연령대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 우리말 능력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71 | 0.776 | 484   |
|    | 30대    | 3.76 | 0.741 | 542   |
|    | 40대    | 3.75 | 0.776 | 622   |
|    | 50대    | 3.89 | 0.713 | 570   |
|    | 60대 이상 | 3.85 | 0.75  | 324   |
|    | 합계     |      | 3.79  | 0.754 |
| 여성 | 20대    | 3.76 | 0.752 | 437   |
|    | 30대    | 3.76 | 0.733 | 517   |
|    | 40대    | 3.83 | 0.743 | 599   |
|    | 50대    | 3.8  | 0.768 | 558   |
|    | 60대 이상 | 3.81 | 0.763 | 347   |
|    | 합계     |      | 3.79  | 0.751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우리말 능력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의 추정된 주변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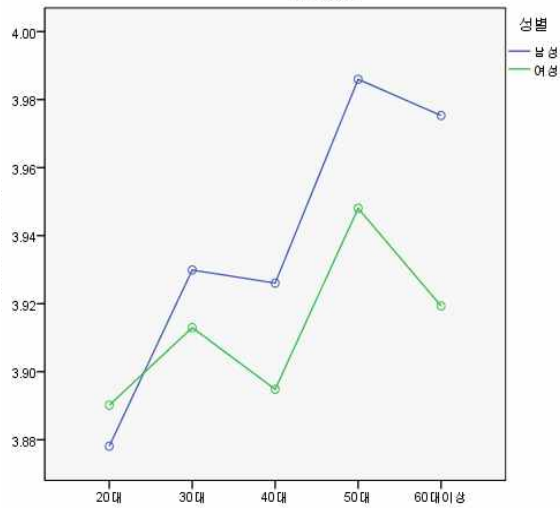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우리말 능력의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역시 국민들은 남녀 관계없이 모두 ‘대체로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우리말 능력의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였다(남, 여: 3.79). 남성의 경우 20대가 3.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50대가 3.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20대가 3.7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40대가 3.8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 인식시킨다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88 | 0.788 | 484  |
|    | 30대    | 3.93 | 0.763 | 542  |
|    | 40대    | 3.93 | 0.825 | 622  |
|    | 50대    | 3.99 | 0.759 | 570  |
|    | 60대 이상 | 3.98 | 0.767 | 324  |
|    | 합계     | 3.94 | 0.783 | 2542 |
| 여성 | 20대    | 3.89 | 0.782 | 437  |
|    | 30대    | 3.91 | 0.754 | 517  |
|    | 40대    | 3.89 | 0.787 | 599  |
|    | 50대    | 3.95 | 0.817 | 558  |
|    | 60대 이상 | 3.92 | 0.771 | 347  |
|    | 합계     | 3.91 | 0.784 | 2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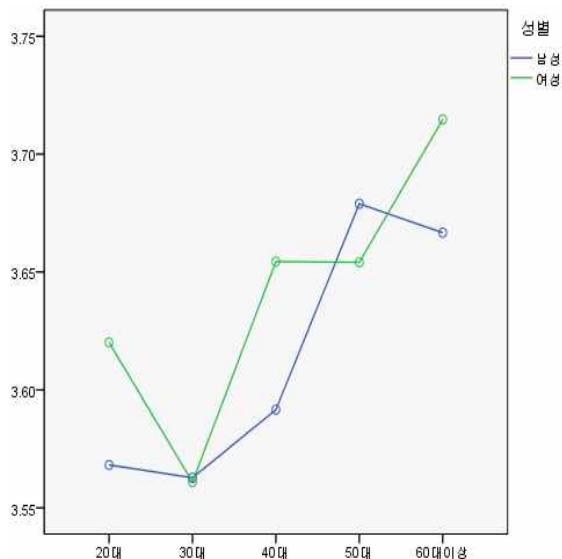
국어 능력 평가 시험-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 인식시킨다의 주변평균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외국어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대체로 그렇다’는 양상을 보였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남: 3.94 / 여: 3.91). 남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3.88) 5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3.99). 여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3.89) 5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3.95).

- 외국어 능력인증시험보다 더 우선한다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57 | 0.929 | 484   |
|    | 30대    | 3.56 | 0.851 | 542   |
|    | 40대    | 3.59 | 0.861 | 622   |
|    | 50대    | 3.68 | 0.857 | 570   |
|    | 60대 이상 | 3.67 | 0.894 | 324   |
|    | 합계     |      | 3.61  | 0.876 |
| 여성 | 20대    | 3.62 | 0.915 | 437   |
|    | 30대    | 3.56 | 0.834 | 517   |
|    | 40대    | 3.65 | 0.861 | 599   |
|    | 50대    | 3.65 | 0.885 | 558   |
|    | 60대 이상 | 3.71 | 0.858 | 347   |
|    | 합계     |      | 3.64  | 0.8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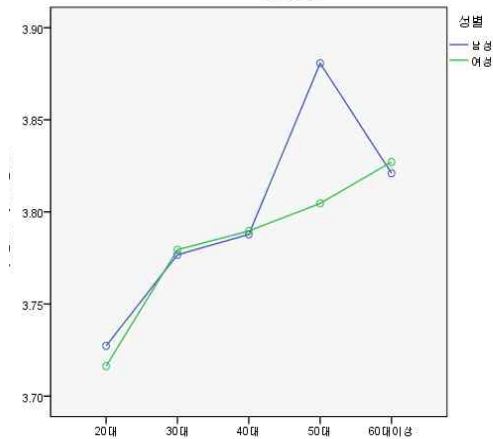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외국어 능력인증시험보다 더 우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보통이거나 대체로 그렇다’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여성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남: 3.61 / 여: 3.64). 남성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며(3.56) 5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3.68).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3.56)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3.71).

□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 발전을 위해 권장한다

| 성별 | 연령대    | 평균   | 표준편차  | 명     |
|----|--------|------|-------|-------|
| 남성 | 20대    | 3.73 | 0.687 | 484   |
|    | 30대    | 3.78 | 0.745 | 542   |
|    | 40대    | 3.79 | 0.738 | 622   |
|    | 50대    | 3.88 | 0.696 | 570   |
|    | 60대 이상 | 3.82 | 0.79  | 324   |
|    | 합계     |      | 3.8   | 0.729 |
| 여성 | 20대    | 3.72 | 0.74  | 437   |
|    | 30대    | 3.78 | 0.7   | 517   |
|    | 40대    | 3.79 | 0.726 | 599   |
|    | 50대    | 3.8  | 0.753 | 558   |
|    | 60대 이상 | 3.83 | 0.7   | 347   |
|    | 합계     |      | 3.78  | 0.726 |

국어 능력 평가 시험-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 발전을 위해 권장한다의 추정된 주변평균



- ‘올바른 국어 생활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권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대체로 그렇다’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남: 3.8 / 여: 3.78) 남성의 경우 20대의 수치가 가장 낮았고(3.73), 50대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3.88).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3.72)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3.83).

## 6.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실태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6.1.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 이 교육을 어떻게 아셨나요? (복수 응답 가능)

|                        | 응답  |        | 복수 응답<br>퍼센트 |
|------------------------|-----|--------|--------------|
|                        | 명   | 퍼센트    |              |
| 국립국어원<br>누리집(홈페이지)을 보고 | 1   | .6%    | .6%          |
| 교육 안내 공문을 보고           | 141 | 80.1%  | 83.9%        |
| 주변 사람을 통해              | 34  | 19.3%  | 20.2%        |
| 합계                     | 176 | 100.0% | 104.8%       |

#### [기타 의견]

직장에서 안내 통보, 과장이 보라고 해서, 교육담당자 권유, 한번 받아 보아서, 회사에서 신청, 교육 안내 공지를 통해서, 5년 전 교육을 상기하면서, 상급부대 홍보, 근무처 추천, 공군 구역사 담당자 이수교육으로 지정됨

- 교육을 알게 된 계기를 묻는 문항에 거의 전체에 가까운 83.9%가 공문을 통해서 교육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의 수강생이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현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국어문화학교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통해서 과정을 알 수 있는 수강생만이 주로 수강을 하는 이유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나 다른 안내 방

식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 교육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이신지요? (복수 응답 가능)

|                 | 응답  |        | 복수 응답<br>퍼센트 |
|-----------------|-----|--------|--------------|
|                 | 명   | 퍼센트    |              |
|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 150 | 78.9%  | 88.8%        |
| 교육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 39  | 20.5%  | 23.1%        |
| 다른 교육을 신청하지 못해서 | 1   | .5%    | .6%          |
| 합계              | 190 | 100.0% | 112.4%       |

기타 의견: 지인추천, 공문서 교육을 위해, 과장이 가라고 해서, 공문서 바로쓰기, 공문 작성 시 틀리지 않게 쓰고 싶어서, 본 업무 연관되어 있음, 잘못알고 있는 것을 터득, 관공서 업무 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급부대 지시, 교육점수도 채우고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국어를 알고 싶어서, 공군 역사 단의 교육 독려

- 국어문화학교 교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78.9%)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답을 했는데, 이는 기타 의견인 공문서 작성 시 틀리지 않게 쓰고 싶어서, 공문서 작성을 배우기 위해 등 업무와 관련된 국어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필요가 확인되는 결과라 하겠다. 이 외에도 부대에서 추천하는 경우(군인)나 부서장의 추천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잘 하였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그렇지 않다 | 3   | 1.7    |
| 보통이다   | 7   | 3.9    |
| 그렇다    | 72  | 40.2   |
| 매우 그렇다 | 97  | 54.2   |
| 합계     | 179 | 100.0  |

- 국어 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다.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잘 하였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는 54.2%, ‘그렇다’ 고 대답한 빈도는 40.2%로 두 항목을 합하면 94.2% 정도로 거의 모든 수강생들의 응답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국어문화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4.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 지원을 잘 하였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그렇지 않다 | 5   | 2.8    |
| 보통이다   | 16  | 9.0    |
| 그렇다    | 71  | 40.1   |
| 매우 그렇다 | 85  | 48.0   |
| 합계     | 177 | 100.0  |

-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좋은 편이었는데,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 지원을 잘 하였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은 48%, ‘그렇다’ 고 대답한 응답은 40.1%로 두 항목을 합하면 88.1% 정도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프로그램 중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4.1    |
| 그렇지 않다    | 22  | 12.8   |
| 보통이다      | 53  | 30.8   |
| 그렇다       | 62  | 36.0   |
| 매우 그렇다    | 28  | 16.3   |
| 합계        | 172 | 100.0  |

5-1.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수업의 비중은?



오프라인 수업 ( 78.02 )%: 온라인 수업 ( 27.94 )%

-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선행 학습의 성격으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처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6.3%뿐이었으나 그렇다는 응답이 36%라 합하면 반수 정도(52.3%)는 온라인 선행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한 수강생도 30.8% 정도 되어서 대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과 온라인 수업의 비율이 7:3정도로 나타났는데, 현재 온라인 수업의 경우 과목별로 10차시 전후인 수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업 비중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6. 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간(5일)은 적절하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3.4    |
| 그렇지 않다    | 19  | 10.8   |
| 보통이다      | 18  | 10.2   |
| 그렇다       | 70  | 39.8   |
| 매우 그렇다    | 63  | 35.8   |
| 합계        | 176 | 100.0  |

6-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은?

4일, 3일, 20일, 3일, 2일, 10일, 20일, 15~20일, 10일, 10일, 10일, 10일, 3일, 10일, 10일, 10일, 10일, 3일, 10일, 30일, 10일, 14일, 10일, 14일

- 전체 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5일 교육 과정이 적절하

다는 입장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적절한 교육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25명의 경우 5일보다 짧은 2일, 3일, 4일을 제안한 경우는 6명뿐이었고, 대체로 10일 이상의 긴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심도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수준별 강좌 개설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교육 비용은 적절하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그렇지 않다 | 5   | 2.9    |
| 보통이다   | 25  | 14.6   |
| 그렇다    | 89  | 52.0   |
| 매우 그렇다 | 52  | 30.4   |
| 합계     | 171 | 100.0  |

**7-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은?**

5만 원, 30만 원, 15만 원, 50만 원, 5만 원

- 현재 국어문화학교 교육비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식비 포함 12만 원) 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는 대답이 80% 정도(매우 그렇다 30.4%, 그렇다 52%)를 차지해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의 칸에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말하기 교육에 사용된 교육 자료 중 글다듬기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인문학 강좌 내용이 너무 추상적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공감할 수 있는 강좌 개발이 요구됨

-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사님들의 전문지식과 열성적인 강의 그리고 정보전달 능력과 센스에 존경을 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교육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공문서 작성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의실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교육기간 중 현장학습시간개설 (1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전문교육을 위한 강의공간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좋은 교육을 너무 짧은 기간과 적은 횟수로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두 번, 세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주세요.
- 교육과정을 9시부터 시작하거나 해서 좀 빠빠하더라도 압축하여 참가에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 교육은 신청하기에 사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 On-Line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중 질문과 답이 어긋난 게 있습니다.
- 쉬는 시간에 조용한 영상물 등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5일 교육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정이라 생각되는데 글쓰기 등을 추가하여 전문 과정(3~4주 정도)을 개설하였으면 합니다.
-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연습시간이 필요.
- 훈민정음의 이해 시간을 좀 더 넣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시간 배정이 필요함.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강의 일정이 다소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띄어쓰기 수업은 교재, 시험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라 유익하지 못함.
- 교양과목 추가 - 교육(국어)전문 과정과 무관한 프로그램 삽입.
- 80분 수업이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것이 힘듭니다.
- 개설 기간을 3일로 줄여서 보다 많은 참여 희망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5일은 교육 출장으로 부담이 되는 시간)
- 교육 강사님 성실한 수업 준비와 국어사랑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 시간이 너무 짧고 촉박했습니다.
- 어문규정이나 맞춤법 등을 익히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병행은 힘들어 애로점이 많다.
- 교육비 인상하여 교육환경개선비 활용(화장실 비데 설치)등 식비는 타 교육기관

에 턱 없이 낮으므로 인상하여 현재보다 맛있는 음식 제공할 필요성 있음

- 사전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안 나서 힘들었다.
- 정규과정 외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1~2시간 정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함
- 많은 교육생을 수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 글쓰기 지도 시간을 더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국어와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너무 전문적이라 더 멀어지네요. 학자들이 해야 할 것과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말 다듬기는 다듬는 우리말이 외국어처럼 보이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우리말 다듬기라고 생각되네요.
- 형성 평가 문제는 강의가 진행된 부분에서 출제 바랍니다. 근접거리 문제는 시험 이후 진행된 강의에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 교육생들의 간식이나 차 등의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실 환경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필요한 듯하다. 강당 내 형광등이 깜빡거림.
- 사전 이수 교육에 관하여 1) 교육 자료에 오타가 있는가 하면 2) 교육 중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진도율이 체크가 안 되에도 교육은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혼돈 2번 강의를 들어야 했고 3) 분명히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군요.
- 같은 반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쉬움
- 함께 교육받은 사람들과 친교의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음
-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여유시간이 없어 힘들다.
- 교육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1주/10일 등
- 강의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번 교육받은 수강생에 대하여 2-3일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짧은 교육일정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강의를 전문가 수준으로 설정해 놓아서 수업을 집중하기가 힘이 든다. 몇몇 강의는 동기 유발 수준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예. 아름다운 한국어로 시, 소설, 수필을 다루는 것)
- 순화어에 대한 교육이 더 있으면 좋겠다.
- 매우 필요한 교육이나 교육 시간이 다소 길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수도권, 지방을 나누거나 해서 수도권(2-3일), 지방(5일) 정도로 수업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일부 강의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성의 없고 한글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작성되어 있음

- 교육 내용에 비해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수업도 무척 재미있고 내용도 좋았는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 휴식 공간이 없는 것이 아쉽다.
- 공문서 작성법 강의를 늘려주세요.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을 신설하여 차츰 심도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달라는 문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할 수가 있다.

- 1) 교육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강좌를 세분화하여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등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 2) 실무적인 내용을 좀 더 보강해 주면 좋겠다.
- 3) 교실이나 휴게 공간 등 교육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 온라인 사전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교육 내용과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는 국립국어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와 맞닿은 의견들로 수강생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2. 교육 프로그램 전반

|      | 강좌의 수는 적절했다. | 강좌의 편성 비중은 적절했다. | 전체 교육 프로그램(5일)의 전반적 짜임은 체계적이었다. |
|------|--------------|------------------|---------------------------------|
| 명    | 179          | 179              | 179                             |
| 평균   | 4.15         | 4.23             | 4.26                            |
| 표준편차 | .789         | .669             | .727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전반에 대한 설문에서 강좌의 수와 편성 비중에 대해 묻는 질문에 두 문항 모두 평균 4(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

다. 강좌의 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34.6%, 그렇다는 50.8%로 전체의 거의 85%가 현재의 강좌 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고 강좌의 편성 비중에 대한 응답 역시 그렇다 58.1%,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3.5%로 90%가 강좌의 구성에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여 강좌의 수나 편성 비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교육 프로그램의 짜임에 대한 응답 역시 평균 4.26으로 긍정적 응답이 매우 높아 현재 국어문화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강좌의 수는 적절했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그렇지 않다    | 9   | 5.0    |
| 보통이다      | 17  | 9.5    |
| 그렇다       | 91  | 50.8   |
| 매우 그렇다    | 62  | 34.6   |
| 합계        | 179 | 100.0  |

9. 강좌의 편성 비중은 적절했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6     |
| 그렇지 않다    | 2   | 1.1    |
| 보통이다      | 12  | 6.7    |
| 그렇다       | 104 | 58.1   |
| 매우 그렇다    | 60  | 33.5   |
| 합계        | 179 | 100.0  |

10. 전체 교육 프로그램(5일)의 전반적 짜임은 체계적이었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6     |
| 그렇지 않다    | 3   | 1.7    |
| 보통이다      | 15  | 8.4    |
| 그렇다       | 90  | 50.3   |
| 매우 그렇다    | 70  | 39.1   |
| 합계        | 179 | 100.0  |

### 6.3. 개별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쉬운 언어 쓰기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6 | 4.49 | .693  |
| 쉬운 언어 쓰기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6 | 4.55 | .683  |
| 쉬운 언어 쓰기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6 | 4.49 | .693  |
| 한글 맞춤법 (I)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9 | 4.60 | .649  |
| 한글 맞춤법 (I)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9 | 4.66 | .580  |
| 한글 맞춤법 (I)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8 | 4.58 | .625  |
| 한글 맞춤법 (II)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60 | .633  |
| 한글 맞춤법 (II)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8 | 4.64 | .606  |
| 한글 맞춤법 (II)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8 | 4.57 | .627  |
| 표준어 규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9 | 4.62 | .562  |
| 표준어 규정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8 | 4.67 | .537  |
| 표준어 규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8 | 4.60 | .595  |
| 띄어쓰기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9 | 4.37 | .841  |
| 띄어쓰기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9 | 4.46 | .823  |
| 띄어쓰기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9 | 4.42 | .806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61 | .665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8 | 4.66 | .637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7 | 4.56 | .705  |

|                                       |     |      |      |
|---------------------------------------|-----|------|------|
| 공문서 바로 쓰기(Ⅰ)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9 | 4.70 | .549 |
| 공문서 바로 쓰기(Ⅰ)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9 | 4.74 | .490 |
| 공문서 바로 쓰기(Ⅰ)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9 | 4.69 | .541 |
| 공문서 바로 쓰기(Ⅱ)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63 | .599 |
| 공문서 바로 쓰기(Ⅱ)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8 | 4.66 | .591 |
| 공문서 바로 쓰기(Ⅱ)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8 | 4.63 | .579 |
| 외래어 표기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7 | 4.54 | .691 |
| 외래어 표기법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7 | 4.56 | .681 |
| 외래어 표기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7 | 4.55 | .665 |
| 훈민정음의 이해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66 | .602 |
| 훈민정음의 이해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9 | 4.72 | .553 |
| 훈민정음의 이해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9 | 4.59 | .676 |
| 우리말 다듬기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54 | .682 |
| 우리말 다듬기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8 | 4.58 | .652 |
| 우리말 다듬기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7 | 4.53 | .716 |
| 표준발음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8 | 4.26 | .878 |
| 표준발음법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7 | 4.40 | .799 |
| 표준발음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7 | 4.34 | .831 |
| 생활 글쓰기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5 | 4.63 | .590 |
| 생활 글쓰기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5 | 4.71 | .547 |
| 생활 글쓰기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5 | 4.65 | .605 |
| 글쓰기 지도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7 | 4.60 | .659 |
| 글쓰기 지도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6 | 4.66 | .593 |
| 글쓰기 지도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6 | 4.59 | .653 |
| 말하기(의사소통)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5 | 4.51 | .685 |
| 말하기(의사소통)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5 | 4.57 | .665 |
| 말하기(의사소통)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5 | 4.48 | .742 |
| 국어정보 활용 방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64 | 4.52 | .687 |
| 국어정보 활용 방법 (2)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65 | 4.58 | .654 |
| 국어정보 활용 방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65 | 4.53 | .677 |
| 특강 (1)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172 | 4.18 | .995 |



|                            |     |      |       |
|----------------------------|-----|------|-------|
| 특강 (2강시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171 | 4.42 | .853  |
| 특강 (3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72 | 4.17 | 1.022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개별 강좌에 대해 1)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2)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3) 직무 관련성(직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개별 강좌별로 세 문항 모두 모두 4.5 이상(‘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중간)이고, 표준편차 역시 5에서 6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수강생들이 대체로 강좌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세 문항 평균이 모두 4.5 이하로 나타난 강좌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표준편차 역시 매우 커(0.8 이상) 응답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강좌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강의 평가를 통해 강의 내용 개선, 강사 교육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좌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 관련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 문항 중 하나만 만족도가 높거나, 한 문항만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없었다. 이는 안정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에 대한 관리 및 강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6.4.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한 요구 조사

※ 여러분의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해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답변해 주십시오.

| 희망 교육 프로그램      | 인원  | 평균   | 표준편차 | 순위 |
|-----------------|-----|------|------|----|
| 실무 보고서 작성       | 171 | 4.46 | .625 | 1  |
| 보도 자료 작성        | 168 | 4.33 | .756 | 2  |
| 제안서 작성          | 166 | 4.25 | .750 | 3  |
| 인간관계를 고려한 직장 대화 | 163 | 4.21 | .768 | 4  |
| 고객 응대를 위한 소통 방법 | 160 | 4.12 | .857 | 5  |
| 협상과 갈등 관리       | 164 | 4.10 | .826 | 6  |
| 계약서, 협상 문서 작성   | 161 | 4.04 | .813 | 7  |

|                  |     |      |      |    |
|------------------|-----|------|------|----|
| 지시와 보고           | 162 | 4.04 | .870 | 8  |
| 프레젠테이션           | 166 | 3.97 | .877 | 9  |
| 일반인 대상 창의적 홍보 방법 | 159 | 3.96 | .899 | 10 |
|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활용 | 160 | 3.93 | .880 | 11 |
| 정보의 검색과 수집       | 163 | 3.92 | .875 | 12 |
| 국회 답변서 작성        | 162 | 3.91 | .931 | 13 |
| 회의와 의사결정         | 160 | 3.90 | .848 | 14 |
| 정보의 평가와 조직       | 159 | 3.78 | .847 | 15 |
| 정책 토론            | 161 | 3.74 | .884 | 16 |
| 독서 토론            | 160 | 3.71 | .929 | 17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외에,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좌는 ‘실무 보고서 작성’ 이었고 이후 순서대로 보도자료 작성, 제안서 작성 등이 나타났다. 이는 모두 작문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성인들에게 실무와 관련된 작문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 다음으로는 협상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화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화법 관련 내용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 직무 능력 신장과 관련하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교과목이 있으면 아래의 칸에 적어 주십시오.

- 공문서 작성 원칙
- 주제 발표
- 직무역량 과정을 개설하려 하지 마시고 모두가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재도 다시 수정합시다. 특히 다듬는 말이 어려워요
- 띄어쓰기 교육 부족
- 이어령 선생님과 박종덕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 시간을 첫날에 배치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문서 작성요령 프로그램의 강의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어령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을 교육 첫날로 옮겨서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한 강좌이지만 글쓰기 교육과 행복론 교육으로 나뉘었으면 합니다.

- 짧은 단문쓰기의 실제 연습. 즉, 강사분이 내용을 제시하고 실제로 써보는 실습을 통해 글쓰기의 실재를 경험하기

## 6.5. 숙박 및 편의

- 국어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숙박 및 편의 시설, 교육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국립국어원의 위치나 강의실과 같은 강의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컸고 그 외 숙박 문제, 식사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기관 특성상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해마다 늘어나는 성인 대상 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 기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기적인 교육의 경우 숙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숙사 신축 등이 현실적인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숙사를 갖춘 전문 연수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근 숙박업소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 ○ 교육 중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국립국어원의 위치 | 41  | 32.8   |
| 교육 시설과 환경 | 28  | 22.4   |
| 숙박 문제     | 21  | 16.8   |
| 식사 문제     | 16  | 12.8   |
| 기타        | 19  | 15.2   |
| 합계        | 125 | 100.0  |

- 커피 좀 주세요. 의자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 휴게실 부재
- 강당 조명이 깜빡거림
- 휴게실
- 주차문제
- 환기가 안 됨.
- 커피
- 휴게실 부족 (점심식사 후 양치할 치약 정도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 교육 중 어디에서 숙박하셨습니다?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자가            | 119 | 71.3   |
| 숙박업소          | 25  | 15.0   |
| 찜질방           | 3   | 1.8    |
| 서울 거주 가족 친인척집 | 17  | 10.2   |
| 기타            | 3   | 1.8    |
| 합계            | 167 | 100.0  |

○ 이용하신 업소의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1인당)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3만 원 이하           | 4  | 13.8   |
| 3만 원 초과 ~ 4만 원 이하 | 1  | 3.4    |
| 4만 원 초과 ~ 5만 원 이하 | 10 | 34.5   |
| 5만 원 초과 ~ 6만 원 이하 | 6  | 20.7   |
| 6만 원 초과           | 8  | 27.6   |
| 합계                | 29 | 100.0  |

※ 교육 기간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신 분께 드리는 요청 및 질문입니다.

## VI. 답변자 현황

- 수강생의 평균 연령은 43.95세이고 평균 경력은 17.35년으로 신규자보다는 대부분 실무에서 중견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수강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5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규자보다는 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업무를 막 시작하는 신규자의 경우 사소한 문서 작성에서부터 다양한 직장 내 의사소통 상황에 새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 대상과 목적에 맞게 국어문화학교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7:3으로 남성이 많았으며, 대부분(90%)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수강생의 비율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며(전체 84%) 그 다음이 군인이었다. 일반인과 회사원은 매우 적은 수로 앞으로 국어문화학교가 일반 성인들을 두루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 및 학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명   | 평균(년) |
|----|-----|-------|
| 연령 | 174 | 43.95 |
| 경력 | 171 | 17.35 |

|      | 남성    | 여성    | 전체     |
|------|-------|-------|--------|
| 고졸   | 9     | 3     | 12     |
|      | 75.0% | 25.0% | 100.0% |
| 대졸   | 80    | 56    | 136    |
|      | 58.8% | 41.2% | 100.0% |
| 대학원졸 | 17    | 13    | 30     |
|      | 56.7% | 43.3% | 100.0% |
| 전체   | 106   | 72    | 178    |
|      | 59.6% | 40.4% | 100.0% |

|     | 남성    | 여성     | 전체     |
|-----|-------|--------|--------|
| 공무원 | 91    | 59     | 150    |
|     | 60.7% | 39.3%  | 100.0% |
| 교사  | 0     | 1      | 1      |
|     | 0.0%  | 100.0% | 100.0% |
| 군인  | 8     | 2      | 10     |
|     | 80.0% | 20.0%  | 100.0% |
| 회사원 | 3     | 5      | 8      |
|     | 37.5% | 62.5%  | 100.0% |
| 기타  | 3     | 5      | 8      |
|     | 37.5% | 62.5%  | 100.0% |
| 전체  | 105   | 72     | 177    |
|     | 59.3% | 40.7%  | 100.0% |

## 7.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성인 국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해외의 정책 사례 검토, 전문가 정책 의견 수렴, 국어 인식 조사를 통한 수요자 요구 분석, 국어문화학교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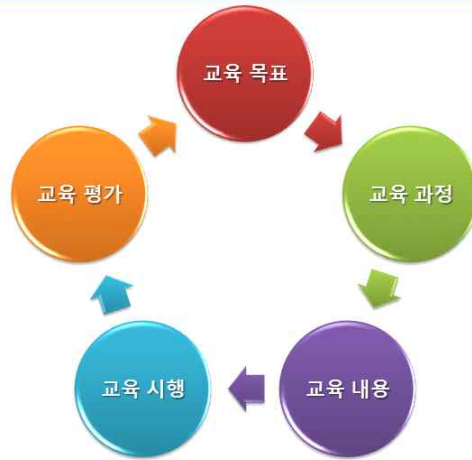
### □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의 비전

- 우선 국립국어원의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초·중등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부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교육부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구도 속에서 움직이지만 성인 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전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직업 문식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가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다양한 직무 분야의 능력과 여러 직업기초능력을 감당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국립국어원은 국어를 중심으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 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 발전 목표와 추진 과제

-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성인을 위한 국어 전문 교육 기관을 염두에 두고 발전 목표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4개의 발전 목표와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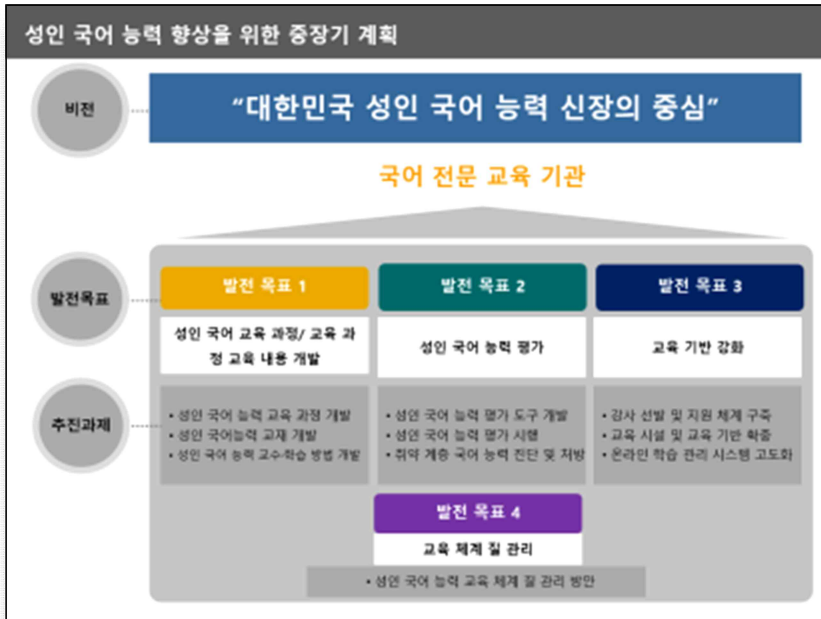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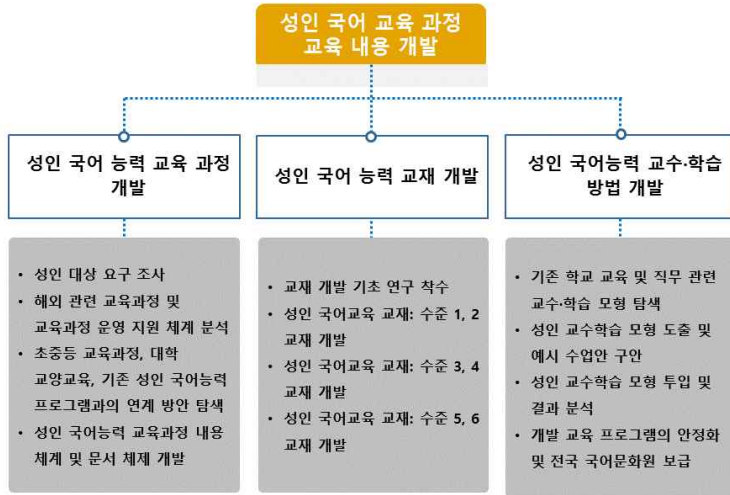
- 발전 목표 1은 ‘성인 국어 교육 과정 / 교육 내용 개발’로 설정하였다. 초·중·고 등 학생과는 다른 성인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담은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 발전 목표 2는 ‘성인 국어 능력 평가’로 설정하였다. 국어기본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 도구를 정련화하고 2주기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외 계층을 위한 국어 능력 진단과 처방도 새로운 과제로 설정하였다.
- 발전 목표 3은 교육 과정 개발, 교재 개발, 평가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기반 강화’로 설정하였다. 교육을 시행할 강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 발전 목표 4는 발전 목표 1-3을 전체 체계 속에서 선순환 하도록 관리하는 ‘교육 체계 질 관리’로 설정하였다.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진 지표(index)를 만들어 교육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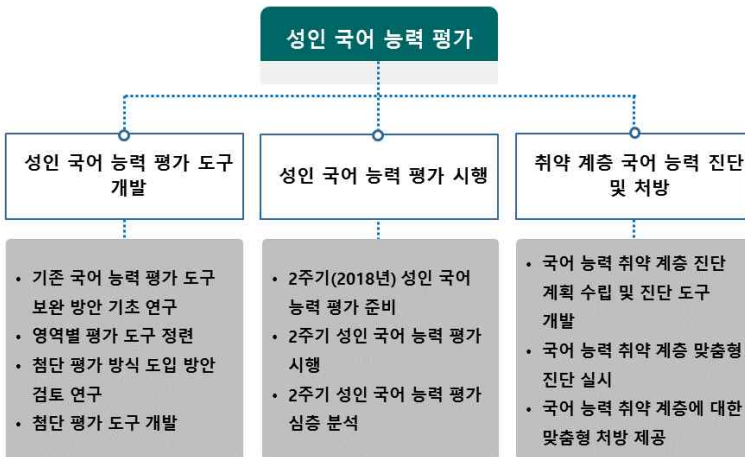
- 이상의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4대 발전 목표와 10대 추진 과제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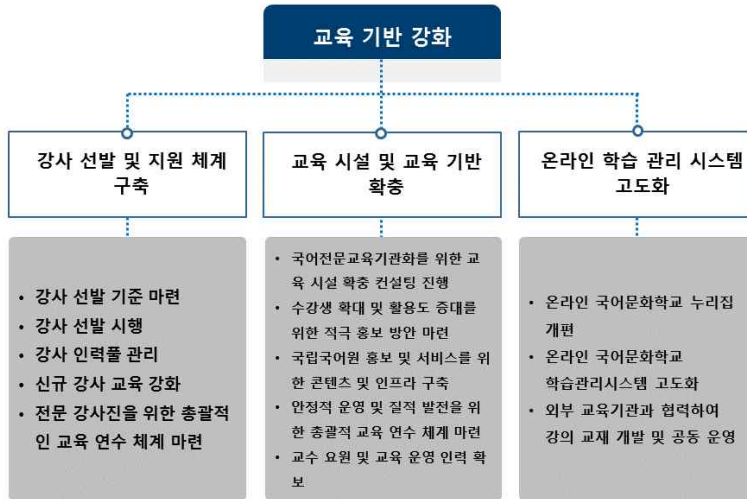
**발전 목표 1: 성인 국어 교육 과정/교육 내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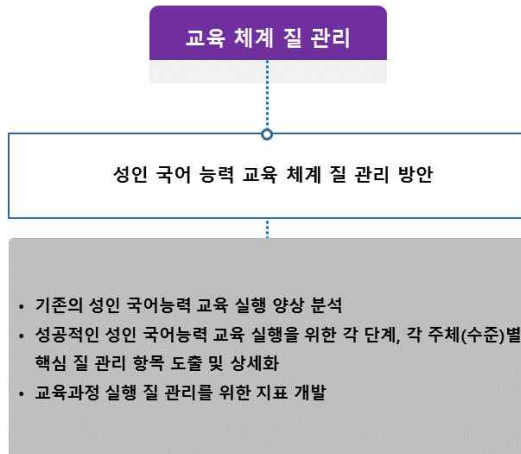
**발전 목표 2: 성인 국어능력 평가**



발전 목표 3: 교육 기반 강화



발전 목표 4: 교육 체계 질 관리



□ 대 발전 목표,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의 추진 일정

| 발전 목표                   | 추진 과제                | 세부 과제   | 일정   |      |      |      |      |      |  |
|-------------------------|----------------------|---|------|------|------|------|------|------|--|
|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 성인 국어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개발 |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     | 성인 대상 요구 조사                                     | ■    |      |      |      |      |      |  |
|                         |                      | 해외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체계 분석                  | ■    |      |      |      |      |      |  |
|                         |                      | 초중등 교육과정, 대학 교양 교육, 기존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탐색 | ■    |      |      |      |      |      |  |
|                         |                      |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문서 체제 개발                  |      | ■    |      |      |      |      |  |
|                         | 성인 국어 능력 교재 개발       | 교재 개발 기초 연구 착수                                  |      |      | ■    |      |      |      |  |
|                         |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1, 2 교재 개발                       |      |      |      | ■    |      |      |  |
|                         |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3, 4 교재 개발                       |      |      |      |      | ■    |      |  |
|                         |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5, 6 교재 개발                       |      |      |      |      |      | ■    |  |
|                         | 성인 국어 능력 교수·학습 방법 개발 | 기존 학교 교육 및 직무 관련 교수·학습 모형 탐색                    |      | ■    |      |      |      |      |  |
|                         |                      | 성인 교수학습 모형 도출 및 예시 수업안 구안                       |      | ■    |      |      |      |      |  |
|                         |                      | 성인 교수학습 모형 투입 및 결과 분석                           |      | ■    |      |      |      |      |  |
|                         |                      |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전국 국어문화원 보급                   |      |      | ■    |      |      |      |  |

|                            |                              |  |   |                    |                    |                     |                     |              |
|----------------------------|------------------------------|--|---|--------------------|--------------------|---------------------|---------------------|--------------|
| 2.<br>성인<br>국어<br>능력<br>평가 | 성인 국어<br>능력 평가<br>도구 개발      | 기존 국어 능력 평가 도구<br>보완 방안 기초 연구          | ■ |                    |                    |                     |                     |              |
|                            |                              | 영역별 평가 도구 정련                           |   | ■<br>듣기            | ■<br>말하<br>기       | ■<br>읽기             | ■<br>쓰기             |              |
|                            |                              | 첨단 평가 방식 도입 방안<br>검토 연구                |   | ■                  |                    |                     |                     |              |
|                            |                              | 첨단 평가 도구 개발                            |   |                    | ■                  |                     |                     |              |
|                            | 성인 국어<br>능력 평가<br>시행         | 2주기 (2018년) 성인 국어 능<br>력 평가 준비         | ■ | ■                  |                    |                     |                     |              |
|                            |                              | 2주기 성인 국어 능력 평가<br>시행                  |   |                    | ■<br>국어<br>기본<br>법 |                     |                     |              |
|                            |                              | 2주기 성인 국어 능력 평가<br>심층 분석               |   |                    |                    | ■                   |                     |              |
|                            | 소외 계층<br>국어 능력<br>진단 및<br>치방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br>계획 수립 및 진단 도구 개<br>발 | ■ |                    |                    |                     |                     |              |
|                            |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맞춤형<br>진단 실시               |   | ■<br>육체<br>노동<br>자 | ■<br>고령<br>자       | ■<br>북한<br>이탈<br>주민 | ■<br>재소<br>자        |              |
|                            |                              |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br>맞춤형 치방 제공           |   |                    | ■<br>육체<br>노동<br>자 | ■<br>고령<br>자        | ■<br>북한<br>이탈<br>주민 | ■<br>재소<br>자 |
| 3.<br>교육<br>기반<br>강화       | 강사 선발<br>및 지원<br>체계 구축       | 강사 선발 기준 마련                            | ■ |                    |                    | ■                   |                     |              |
|                            |                              | 강사 선발 시행                               |   | ■                  | ■                  | ■                   | ■                   | ■            |
|                            |                              | 강사 인력풀 관리                              |   | ■                  | ■                  | ■                   | ■                   | ■            |
|                            |                              | 신규 강사 교육 강화                            |   | ■                  | ■                  | ■                   | ■                   | ■            |
|                            |                              | 전문 강사진을 위한 총괄적<br>인 교육 연수 체계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시설 및 교육 기반 확충  | 국어전문교육기관화를 위한 교육 시설 확충 컨설팅 진행      | ■                        |   |   |   |   |   |
|   |                   | 수강생 확대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 홍보 방안 마련    | ■                        |   |   |   |   |   |
|   |                   | 국립국어원 홍보 및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 ■                        |   |   |   |   |   |
|   |                   | 안정적 운영 및 질적 발전을 위한 총괄적 교육 연수 체계 마련 |                          | ■ | ■ | ■ |   |   |
|   |                   | 교수 요원 및 교육 운영 인력 확보                |                          | ■ | ■ | ■ |   |   |
|   |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개편                  | ■                        |   |   |   |   |   |
|   |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 시스템 고도화            | ■                        |   |   |   |   |   |
|   |                   |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강의 교재 개발 및 공동 운영     |                          |   | ■ | ■ | ■ | ■ |
|   | 4. 교육 체계 질 관리     |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체계 질 관리 방안             | 기존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 | ■ |   | ■ |   |   |
| 성공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을 위한 각 단계, 각 주체(수준)별 핵심 질 관리 항목 도출 및 상세화 |                   |                                    | ■                        |   |   | ■ |   |   |
| 교육과정 실행 질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                   |                                    | ■                        |   |   | ■ |   |   |

## 7.1. 발전 목표 설정 취지 1. 성인 국어 교육 과정/교육 내용 개발

### □ 역량 중심 성인 국어 교육 과정의 필요성

- 미래 사회의 특성을 전망한 다양한 연구들(예를 들어, 이근호 외, 2012)에서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의 재편이다. 이러한 역량에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 시민 의식, 문제해결 능력 등이 있으며(박순경 외, 2014), 특히 성인의 국어 능력과 관련하여 ‘다중모드 텍스트를 활용한 매체 의사소통 역량’ 및 ‘전문화 사회 도래로 인한 직무 의사소통 역량’ 등의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국어 교육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 최근 국가 수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입되어 왔으며, 이 표준에서는 개별 직무와 관련된 전공지식이나 능력 외에도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역량)을 규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직업기초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성인 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이 특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역시 성인의 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 종합하면, 미래 사회에서 요청되는 역량 중심 교육과 현재 국가 수준에서 필요한 직무 중심의 교육에서의 핵심은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집, 이해, 분석, 종합, 평가,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은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계획 및 작동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 이와 같은 역량 중심의 교육 재편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급에 이르는 ‘학교교육과정’에서는 준비되어 실행되고 있으나(예를 들어,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및 실용국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국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인 국어 교육의 시사점

- 성인 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과 관련한 기초 연구의 준비 및 실행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index) 중 하나는 직업 문식성에 대한 실제적 개념화이다. 직업 문식성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하여 성인이 직무를 얼마만큼 잘 실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국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 영역  | 주체                | 의사소통능력   | 특징  |
|-----|-------------------|--|---|
| 미국  |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        | 읽기, 쓰기, (수리), 듣기, 말하기 능력   | 각 능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그 능력에 대한 수준별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5수준)            |
| 영국  | 자격인증교육과정원         |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적절히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자료를 읽거나 듣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 의사소통능력의 경우에 그 능력의 수준 및 성취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됨(4수준)                  |
| 호주  | 호주상공회의소 및 호주경영협의회 | 아이디어와 정보 의사소통 능력: 광범위한 기술, 문장, 도형과 기타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 수준별 의사소통의 능력과 범위를 다르게 강조함(3수준)                              |
| 캐나다 | 고용 및 사회발전부        |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생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화 능력으로 규정                               | 사실적이고 좁은 범위의 낮은 수준에서 복잡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높은 수준(4수준)까지 상세히 제시함 |
| 한국  | 고용노동부             |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 상세한 개념 정의와 수준별 행동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한편 국외 사례에서의 성인 문식성 교육 운영 및 지원체제는 국가별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는 체계적인 성인 언어 교육 계획을 수립한 국가(영국, 캐나다), 풀뿌리 국어 능력 학습문화를 조성한 국가(일본), 학습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노력한 국가(노르웨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의 교육 실정에서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은 영국과 캐나다의 정책 사례들로 이들 국가는 체계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성인 국어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그 핵심에는 성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이행의 실천적 노력들이 있었다.



□ 성인 국어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의 체계화 필요

- 미래 사회에서 요청되며, 현재 성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무 관련 역량 및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외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 방법은 단시일 내에 만들기 어려우며, 보다 큰 ‘성인 국어교육 발전 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제일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와 범위 및 성취 수준을 포함한 ‘성인 국어 능력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고려하여 성인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각의 하위 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에서 필요한 하위 연구들은 성인 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와 성인 능력 교육과정 ‘문서 개발 연구’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인 능력 교육과정 기초 연구로는 (1) 성인 대상 요구조사, (2) 국외 사례 관련 교육과정 및 운영 체계 분석, (3) 성인 국어교육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탐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한 다음에 (4) 성인 국어 능력과 관련된 내용 체계 및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성인 국어 능력 교재 개발에서 필요한 하위 연구는 단 번에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1) 교재의 내적·외적 체제 개발과 같은 기초 연구가 먼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개발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준별, 단계적으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재가 개발될 경우, 현실상 교재의 개발 주체가 다양하게 되어 교재 전체의 통일성을 갖기 어렵고, 교재의 수준·학년별 난이도를 추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성인 교재의 수준을 나누어 (2) 수준 1, 2 교재, (3) 수준 3, 4 교재, (4) 수준 5, 6 교재와 같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성인 국어 능력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서 필요한 하위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1) 기존 학교 교육(초등~고등학교 급) 및 직무 관련 분야에서 활용되는 교수학습 모형 탐색 연구, (2) 성인 교수학습 모형 도출 및 예시 수업 안 구축 연구, (3) 성인 교수학습 모형 투입 및 결과 분석 연구, (4) 개발된 교육 방법

의 전파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중 (1)-(3)의 연구는 정책 연구자의 판단 하에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과제 1]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

### □ 사업 개요

- 성인 대상 국어 능력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 확보 및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성인 국어 능력 교육 계획의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

### □ 사업 목적

-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계로서 교육 대상자인 성인들의 정확한 요구, 필요, 수준을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국외의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검토를 통해 국어 능력에 대한 평생학습 체제로 기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 마련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성인 국어 능력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 개발에 활용
  - 국가, 지역, 개인 단위의 각종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
  - ‘성인의 국어 능력 평가’ 등 국가 단위의 성인 국어 능력 평가에 평가틀(Assessment framework)로 활용

### □ 사업 내용

- 【1단계】 성인 대상 요구 조사(2016년)
  - 우리나라 성인들의 국어 능력 요구, 필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타당도, 신뢰도 있는 조사 도구 개발(설문지, 면담지 등)
  - 성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해 국어 능력에 대한 요구 조사
  - 전국 단위 층화표집, 만 16-65세 대상, 약 5천 명, 직종 및 직급 고려
  - 배경변인과 요구 조사 문항과의 교차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에 유의

미한 시사점 도출

- 【2단계】 해외 성인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계 분석(2016년)
  - 성인 국어 능력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 선정(예 상 국가: 북유럽 주요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 교육과정 체계 분석을 통해 내용 요소와 위계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국가, 지역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계(인적, 물적 자원) 분석
  - 해당 국가의 관련 자료 분석 및 전문가 활용
  
- 【3단계】 초중등 교육과정, 대학교양교육, 기존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탐색(2016년)
  - 성인의 국어 능력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대학에서의 국어 능력 프로그램(교양국어, 대학작문 등), 기존 성인 국어 능력 관련 프로그램(대학 교양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내용의 범위, 위계, 수준 설정에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미래사회 핵심역량 관련 연구 성과와의 연계 방안 탐색
  - 문헌 분석(교육과정 내용 분석), 전문가 활용, 국외 사례 참조(문헌연구)
  
- 【4단계】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문서 체제 개발(2017년)
  -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내용 체계 개발
    - 1~3단계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 범위(scope)와 위계(sequence)
    - 교육과정의 범주/영역, 수준, 범위, 위계 및 이에 따른 세부 교육 내용 요소 개발
  -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 가독성·정보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온라인 문서 체제도 고려)
    - 기초 교육과정, 심화 교육과정 등과 같이 학습자 수준의 편차를 반영한 문서 체제 개발

-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평가 등 교육과정 문서에 담겨야 할 정보의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하는 내용의 제시 방식 확정
- 교육과정 시안 개발, 검토 과정을 통한 최종본 확정
  -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현장 검토, 공청회 실시
  - 수정 의견 반영을 통한 최종본 확정

□ 사업 예산: 총 150,000천원

- 성인 대상 요구 조사(1단계): 50,000천원
  - 조사 비용: 5,000명 x 5,000원(사례비) = 25,000천원
  - 조사도구 제작: 5,000부 x 2,000원 = 10,000천원
  - 조사원 활용비: 5,000천원
  - 자료 처리 및 분석: 10,000천원
- 국외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계 분석(2단계): 20,000천원
- 초·중·등 교육과정, 대학교양교육, 기존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탐색(3단계): 30,000천원
- 성인 국어 능력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문서 체제 개발(4단계): 50,000천원

□ 사업 계획 및 예산 관련 참고 자료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OECD 주관의 전 세계 성인 문식성 조사</li> <li>▪ 국내 시행 담당: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li> <li>▪ 표본: 15~65세 9,000가구 컨택, 5,000명 조사, 표본 대치가 불가능하며 선택된 대상 중에서 70% 이상이 응답하도록 지속적인 시도 필요(예비조사의 경우 최대 16회 방문 기록)</li> <li>▪ 가구 방문 조사, 1가구 1인, 컴퓨터를 통한 조사, 개인의 능력에 따른 어댑티브 테스트</li> <li>▪ 조사 시간: 2시간 소요</li> </ul> |
|---|

-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예산의 예

| 발주처 | ‘과제명                                 | 수행기관(연도)   | 예산(천원) |
|-----|--------------------------------------|------------|--------|
| 교육부 | 고교 사회영역 선택과목 교육과정<br>개정 연구           | KICE(2010) | 15,000 |
| 교육부 |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br>(총론) 시안 개발 연구 | KICE(2010) | 60,000 |

## [과제 2] 성인 국어 능력 교재 개발

### □ 사업 개요

- 성인의 다양한 직문 특성에 적합하게 교재, 지도서, 보조 교재를 발행하여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함

### □ 사업 목적

-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준별’ 성인용 국어교육 교재 개발(6종)
- 성인 대상 교재개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 교재 개발 제공
- 수요자의 요구와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성인국어교육에서 직무 및 매체 활용과 관련한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점화된 교재 개발
- 교재와 보조교재(위크북, MP3나 영상)를 연계한 교육 자료의 내실화
- 교재 개발의 전문성 확보
  -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
  - 강사들을 집필진에 포함하여 강의용 교재로서의 실용성 확보
- 개발 세부 내용

| 과제구분                                 | 보고서 | 개발교재 종류   |           | 과제      | 개발연도         |
|--------------------------------------|-----|-----------|-----------|---------|--------------|
|                                      |     | 교재        | 보조교재      |         |              |
| 교재개발 기초 연구                           | 1   | 샘플<br>1단원 | 샘플<br>1단원 | 과제<br>1 | 2018년        |
| 성인 국어교육(수준1)                         | 1   | 1책        | 1책        | 과제<br>2 | 2019년<br>상반기 |
| 성인 국어교육(수준2)                         |     | 1책        | 1책        |         | 2019년<br>하반기 |
| 성인 국어교육(수준3)                         | 1   | 1책        | 1책        | 과제<br>3 | 2020년<br>상반기 |
| 성인 국어교육(수준4)                         |     | 1책        | 1책        |         | 2020년<br>하반기 |
| 성인 국어교육(수준5)                         | 1   | 1책        | 1책        | 과제<br>4 | 2021년<br>상반기 |
| 성인 국어교육(수준6)                         |     | 1책        | 1책        |         | 2021년<br>하반기 |
| 총 12책(교재: 6책, 보조교재[워크북] 6책) (보고서 제외) |     |           |           |         | 2018-2021    |

□ 사업 내용

- 【1단계】 과제 1: 교과서 개발 기초 연구 착수 (2018년)
  - 개발된 성인교육 국어교육과정 검토
  - 초점화된 직무에서의 핵심 문식성 검토 및 매체 문식성 고려
  - 국외 선진국의 성인문식성 교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과서 내적 체제(들어가기 전에, 본문, 학습활동 등) 개발
  - 교재와 보조 교재의 연계성 확보 및 활용 방안 간구
  - 전문가 검토 과정 및 수요자 수요 및 만족도 포함
  -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교재와 보조교재의 예시 단원개발
- 【2단계】 과제 2: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1, 2” 교재 개발(2019년)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1, 2의 교재 및 보조 교재(워크북, 활용 자료) 개발
  - 개발한 교재 및 보조교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 【3단계】 과제 3: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3, 4” 교재 개발(2020년)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3, 4의 교재 및 보조 교재(워크북, 활용 자료) 개발
  - 개발한 교재 및 보조교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 【4단계】 과제 4: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5, 6” 교재 개발(2021년)
- 성인 국어교육 교재 수준 5, 6의 교재 및 보조 교재(워크북, 활용 자료) 개발
  - 개발한 교재 및 보조교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 사업 예산: 총 350,000 천원

(단위: 천원)

| 지출 분야       | 과제1    | 과제2     | 과제3     | 과제 4    |
|-------------|--------|---------|---------|---------|
| 원고료 및 연구개발비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편집 및 삽화비    |        | 30,000  | 30,000  | 30,000  |
| 회의 및 업무추진비  |        | 8,000   | 8,000   | 8,000   |
| 감수비         |        | 3,000   | 3,000   | 3,000   |
| 자료구입비       |        | 3,000   | 3,000   | 3,000   |
| 인쇄비         |        | 6,000   | 6,000   | 6,000   |
| 계           | 5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예산 관련 근거 자료

| 발주처     | 과제명  | 예산(천원)               |
|---------|--|----------------------|
| 교육부     |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 50,000<br>(교과서 기초연구) |
|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성인문해 중학과정 (사회·수학·과학·영어)<br>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개발 | 298,000<br>(기초연구없음)  |
| 평생교육진흥원 | 중학과정 사회, 과학과 성인문해교과서 및 교사용<br>지도서 개발         | 272,243<br>(기초연구없음)  |

## [과제 3] 성인 국어 능력 교수·학습 방법 개발

### □ 사업 개요

- 기존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 차별된, 성인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교재개발 시 참고·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성인 국어교육 및 국어문화학교의 운영·확산에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사업 목적

- 성인 수요자의 요구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 성인 교재(직업 문식성 및 매체 문식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도출하여 교재 개발에 기여
- 성인 국어교육 및 국어문화학교의 수업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 교수·학습 모형의 도출
- 국어문화학교의 원내/원외/온라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표준화된 교육 제공

□ 사업 내용

○ 【1단계】 기존 학교 교육 및 직무 관련 교수·학습 모형 탐색(2017년 1-4월)

| 국어과 학교 교육 모형 탐색  | 직무 관련 성인 교수·학습 모형 탐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2017년 1월 ~2월(2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학교교육에서의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을 탐색하여, 성인 교육에 활용, 변형 가능한 여부를 탐색(예: 직접교수법, 문제해결학습법, 전문가교수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창의성계발교수학습모형 등)</li> <li>-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개발 수업 모형 중 보다 성인에게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을 선정(예: 프로젝트 학습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2017년 3월~4월(2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성인교육에서의 직무 관련 교수 학습 모형 탐색</li> <li>- 국내 성인교육 영역에서 직무 관련 교수·학습 모형 탐색 및 실태 조사</li> <li>- 검토한 교수·학습 모형의 적합성 검토</li> </ul> </li> </ul> |

○ 【2단계】 성인 교수학습 모형 도출 및 예시 수업안 구안(2017년 5-8월)

- 기존 교수 학습 모형 검토를 통해 성인 국어 능력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도출
- 성인의 직무 능력 관련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 개발
-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예시 수업안 마련
-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예시 수업안 시행을 위한 강사 훈련
-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3단계】 성인 교수학습 모형 투입 및 결과 분석(2017년 9-12월)

- 2단계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과 예시안을 실제 수업한 후 결과 도출
- 각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예시안 수업 결과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 각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예시안 수업에 따른 학생의 직무 능력 신장 여부 조사
- 각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예시안 수업 효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검토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의 국어 능력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보완

- 【4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전국 국어문화원 보급(2018년 이후)
  - 장기적으로 교육 내용 연구 및 개발, 전문 강사 교육 및 양성에 초점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국어문화학교에서 운영·보완 후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전국 국어문화원 및 관련 연수원으로 보급

□ 사업 예산: 총 7천만 원

- 3천만 원: 국내외 교수학습 모형 문헌 및 사례 연구
- 4천만 원: 교수학습 모형 기획, 도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 참고 사항

-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전국 국어문화원으로 보급(2018년 이후)
  - 장기적으로 교육 내용 연구 및 개발, 전문 강사 교육 및 양성에 초점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국어문화학교에서 운영·보완 후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전국 국어문화원 및 관련 연수원으로 보급

※ 예산 관련 근거 자료

| 발주처       | 과제명                               | 예산(천원)                |
|-----------|-----------------------------------|-----------------------|
| 국립국어원     |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                | 60,00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5년도 NCS 학습모듈 개발사업              | 64,500                |
| 교육부       |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과융합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 46,600<br>(6개월 단기 연구) |

## 7.2. 발전 목표 설정 취지 2. 성인 국어 능력 평가

□ 국어 능력 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 국립국어원에서는 법률 제1169호인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국어 능력 검정 관련 조항에 의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태 조사 결과를 5년 주기로 국어기본발전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 5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에 관한 사항

제23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국어 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 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 □ 1주기 평가(2013년)의 시행 개요

- 2013년도의 1주기 평가에서는 그동안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3,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평균 점수만 도출한 것이 아니라 ‘앵고프(Angoff)’라는 과학적 방식으로 등급 분할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로 등급화를 하였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5년 주기의 실태 조사를 염두에 두고 2018년에 실시할 평가와 비교하기 위해 평가 영역별로 가교 문항을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평가 시행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 점, 변인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 사용한 조사 도구의 특성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역  | 문항 수 | 시간 (분) | 배점    | 평균 점수  | 성취도 | 조사 방식    |
|-----|------|--------|-------|--------|-----|----------|
| 읽기  | 20   | 40     | 300   | 190.66 | 64% | 선택형(객관식) |
| 문법  | 10   | 10     | 150   | 88.14  | 59% |          |
| 듣기  | 10   | 15     | 150   | 108.88 | 73% |          |
| 쓰기  | 3    | 30     | 250   | 122.07 | 49% | 수행형(주관식) |
| 말하기 | 3    | 15     | 150   | 69.79  | 47% | 서답형(주관식) |
| 합계  | 46   | 110분   | 1,000 | 579.62 |     |          |

- 1) 전체 국어 능력은 우수가 11.9%, 보통이 33.4%, 기초가 45.9%, 기초 미달이 8.8%이다.
- 2)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기초 및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다.
- 3) [성별] 남성(574.65점)과 여성(584.75점)의 국어 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 4)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어 능력 점수가 낮아진다(20대(600.76), 30대(598.80), 40대(572.98), 50대(549.27)).
- 5) [지역 규모별] 대도시는 중소 도시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대도시(593.37), 중소 도시(563.54), 읍면 지역(576.87)).
- 6) [직업군별] 정신노동자(603.91)가 육체노동자(555.59)에 비해, 기타(588.21)가 육체노동자에 비해 국어 능력이 높다.
- 7) [학력별] 대재 이상(600.65)이 고졸(559.55)과 중졸 이하(538.55)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

#### □ 1주기 평가(2013년)의 한계점 분석

-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근본 취지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책의 시행 주체는 누구인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산과 인력 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는 없는가 등 일련의 질문에 대해 뾰족한 답변을 내놓기 쉽지 않다.
- 3,000명의 표본 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능력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설문 조사라면 3,000명의 표본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표본 수가 매우 부족하다.

- 성인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평가 도구는 제한된 예산과 평가의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최적화한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성인의 국어생활에서 선택형 문항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법 지식을 선택 형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가? 또한 개별 조사원의 방문을 통한 조사는 평가의 시간과 공간, 평가의 긴장도 등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등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 평가의 결과로 밝히지 못한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만약 ‘성별’ 변인과 ‘연령’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추정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처럼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 비율이 낮은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읽으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 □ 1주기 평가(2013년)에 대한 후속 작업 필요

-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 라는 대전제는 2013년 국어 능력 평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미 무색해졌다. 평가에 사용한 1년 외에 남은 4년 동안 심도 있는 원인 분석, 교육 내용 마련과 교육 시행 등 정책 제언이 있었지만 2013년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연계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 이러한 문제에는 국어기본법 자체가 갖는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있다.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검정을 독립 조항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마련해야 하는 발전 계획에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실태 조사든 검정이든 실시 후 국어 능력 평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후속 정책의 연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십상이다. 과학적 평가 도구로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한다

고 해도 후속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 사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 능력 평가를 5년 단위로 실시하라는 문구는 없다. 5년 단위로 마련해야 하는 ‘국어발전기본계획’에 실태 조사를 반영하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5년 단위의 대규모 평가가 아니더라도 매년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국어 능력의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 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 내용 개발, 교육 평가 등의 환류 체계 내에서 정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 □ 2주기 평가(2018년)를 위한 준비 필요

-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직접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대규모 표본 내에 각 집단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집단별, 직종별 능력을 전체 국어 능력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범위를 좁히고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 첫째, 평가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을 ‘전 국민’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것과 국어 능력 신장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의 국어 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해야 한다.
- 둘째, 평가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성인의 국어 사용 환경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근이 가능한 분야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분야이다. 최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에서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직무 문식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



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 문식성 핵심 교육과정(Adult Literacy Core Curriculu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부터 학문 분야와 직업 분야로 진로를 구분하는 독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교육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인의 국어 능력의 경우 단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초중등 교육의 영역별 점수 외에 실제적인 국어 사용의 내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 문식성, 매체 문식성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셋째,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평가 도구와 관련하여 2013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방문 조사는 면접원 개인이 조성하는 평가 환경의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 직접 평가를 한다면 집합 평가를 통한 통제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 기반의 평가(CBT, IBT)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인의 국어 생활을 고려할 때 선택형 지필 평가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서식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언어 수행 장면에서 국민 개인이 직접 산출한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을 내고 비교하는 강박을 버리고 국어 능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처방을 하기 위함이라면 시행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도구를 정련할 필요가 있다.

#### □ 소외 계층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 필요

- 전 국민을 일정 비율로 표본 조사하는 것 외에 소외 계층에 대한 정밀 진단과 직접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 국어 교육의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사실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국어 능력 검정과 관련된 제23조 바로 위인 제22조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제22조(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한된 자원과 시간 동안 자신이 맡은 학급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미국의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199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성인 문식성 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에서 전국 107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 1,200명을 조사한 것을 들 수 있다.

## [과제 4] 성인 국어 능력 평가 도구 개발

### □ 사업 개요

-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검정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보완하고, 평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 개발

### □ 사업 목적

- 2013년 시행한 국어 능력 평가 도구 보완
-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인 국가 차원의 성인 국어 능력 평가 도구 보유
- 평가의 유용성을 높인 첨단 평가 도구 개발

### □ 사업 내용

- **【1단계】 기존 국어 능력 평가 도구 보완 방안 기초 연구 (2016년)**
  - 1주기(2013년) 평가 도구의 보완 필요 사항 점검
  - 평가 도구 보완 방안 도출(지필 선택형, 수행형)
  - 평가 방법 보완 방안 도출(현행 개별 면접 방식, 전 국민 중 3,000명 무선 표집)
- **【2단계】 영역별 평가 도구 정련(2017~2020년)**
  -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 영역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도구 정련
  - 듣기 평가 도구(2017년), 말하기 평가 도구(2018년), 읽기 평가 도구(2019년), 쓰기 평가 도구(2020년) 정련
- **【3단계】 첨단 평가 방식 도입 방안 검토 연구(2017년)**
  - 2016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첨단 평가 방식 도입의 실현 가능성 검토
  -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 검토

- 【4단계】 첨단 평가 도구 개발(2018년)
  - 2017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 평가 방식 개발
  -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 □ 사업 예산
  - 3천 만 원(2013년) 기존 국어 능력 평가 도구 보완 방안 기초 연구
  - 2억 원(2017~2020년) 영역별 평가 도구 정련 (4개 영역 × 5천만 원)
  - 1억 원(2017년) 첨단 평가 방식 도입 방안 검토 연구
  - 10억 원(2018년) 첨단 평가 도구 개발

## [과제 5] 성인 국어 능력 평가 시행

### □ 사업 개요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성인의 국어 능력을 평가

### □ 사업 목적

- 우리나라 성인의 국어 능력을 5년 주기로 평가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 평가 결과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영역별, 집단별 성인 국어 교육 시행의 우선순위 판단
- 성인 국어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심층 연구 실시

### □ 사업 내용

- 【1단계】 2주기 (2018년) 성인 국어 능력 평가 준비(2016~2017년)

| 1주기(2013년) 평가 결과 심층 연구   | 2주기(2018년) 평가 도구 개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 연구 용역</li> <li>•기간 : 2016년 3월 ~ 12월(10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세부 내용</li> </ul> </li> <li>- 영역별 하위 요소 분석</li> <li>-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li> <li>- 쓰기, 말하기 질적 자료 분석</li> <li>- 배경 변인별 결과 분석</li> <li>- 집단별 격차 해소 방안에 주안점을 둔 평가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li> <li>- 2주기 평가 도구 보완 방안 도출</li> <li>-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 연구 용역</li> <li>•기간 : 2017년3월~12월(10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평가 도구 보완 사항 확인</li> <li>- 쓰기와 말하기 수행 평가 방법 보완</li> <li>- 평가의 실제성 제고 방안 검토</li> <li>- 평가 시행 방안 보완(개별 면접 방식의 타당성 제고 방안 검토)</li> <li>-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식의 실현 가능성 검토( IBT, CBT 평가)</li> <li>- 평가 표본의 적정성 검토</li> <li>-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도구 개발</li> <li>- 평가 도구 파일럿 테스트 실시</li> </ul> </li> </ul> |

- 【2단계】 2주기 성인 국어 능력 평가 시행(2018년)
  - 2017년 개발한 평가 도구 활용하여 2주기 평가 시행

- 1주기(2013)년 평가의 가교 문항 포함하여 비교 연구 실시 및 추이 분석
- 평가 결과에 대한 기본 분석 실시
- 【3단계】 2주기 성인 국어 능력 평가 심층 분석(2019년)
  - 2주기(2018년) 성인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영역별, 집단별 심층 분석 실시
  - 연구 결과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연구자에게 공개하여 다각도의 심층 분석 실시, 국립국어원에서 연구 신청을 받아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검토 후 승인된 자에게 연구 자료 공유, 결과 분석 요구.

#### □ 사업 예산

- 4천 만 원(2016년1주기(2013년) 평가 결과 심층 연구
- 8천 만 원(2017년) 2주기(2018년) 평가 도구 개발
- 2억 원(2018년) 2주기(2018년) 평가 시행
- 8천만 원(2019년): 2주기(2018년) 평가 결과 심층 분석 4천만 원, 개별 연구자 심층 분석 4천만 원(연구자 10명 \*400만 원)

## [과제 6] 소외 계층 국어 능력 진단 및 처방

### □ 사업 개요

- 국어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 제공 차원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실시

### □ 사업 목적

-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향상 기회 제공
-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실증적 자료 확보로 정책 수립의 근거 확보
-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정밀 진단 및 맞춤형 처방 제공

### □ 사업 내용

- **【1단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계획 수립 및 진단 도구 개발(2016년)**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계획 수립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도구 개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 국립국어원 자체 또는 진단 도구 개발 사업 팀</li> <li>•기간 : 2016년 3월 ~12월(10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국내외 사례 검토</li> <li>- 관련 전문가 세미나 실시</li> <li>-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선정 방안 검토</li> <li>-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진단 방향 탐색</li> <li>-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처방 방안 의 실현 가능성 검토</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 : 연구 용역</li> <li>•기간 : 2016년 3월 ~12월(10개월)</li> <li>•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도구의 평가 틀 설계</li> <li>- 계층별 맞춤형 진단 도구 3세트 개발<br/>예) 육체노동자, 고령자,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등</li> <li>- 계층별 맞춤형 진단 도구 시범 평가</li> <li>- 계층별 맞춤형 진단 도구 3세트 완성</li> </ul> </li> </ul> |

- **【2단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맞춤형 진단 실시 (2017년~2020년)**

- 기획 연구 결과 및 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3년 동안 소외 계층

국어 능력 진단

- 예) 2017년(육체노동자), 2018년(고령자), 2019년(북한이탈주민), 2020년(재소자) 등
  - 소외 계층 국어 능력 진단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세미나 개최
- 【3단계】 국어 능력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공(2018~2021년)
- 소외 계층 국어 능력 정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처방 제공
  -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검토
  - 평가 결과 및 교육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자료 구축

□ 사업 예산

- 4천만 원(2016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계획 수립 연구
- 3억 원(2016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도구 개발 3세트(검사지, 시행/채점 매뉴얼) 1년 기준
- 2억 4천만 원(2017~2019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진단 (8천만 원 × 3집단)
- 2억 4천만 원(2018~2021년)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처방 (8천만 원 × 3집단)

※ 참고: 해외 유사 정책 사례

미국의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199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성인 문식성 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에서 전국 107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 1,200명을 조사



## 7.3. 발전 목표 설정 취지 3. 교육 기반 강화

###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설계 및 구축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들의 국어사용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고,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학습 욕구도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에서의 말하기와 글쓰기 등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문화학교에 대한 교육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의 경우 교육 대상자가 공무원, 교사, 연구원, 회사원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로 그 수요가 지나치게 많고 교육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국어원의 원내에서 열리는 국어문화학교 정규 과정과 특별 과정의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4년에는 3,071여 명에 이르렀으며, 원외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와 특별 과정도 연간 42,000여 명이 수강을 하였다. 현재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행을 위한 강사진 구성 및 질 관리

- 현재 국어문화학교에는 네 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그 외에는 전국의 국어문화원을 통해 강사를 추천 받아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어문화학교의 커리큘럼은 국어 규범을 기반으로 하면서 쓰기와 읽기 등의 강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강사진으로도 국어문화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그러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 대상이 확대될수록 국어문화학교 강의 역시 수준별, 직업별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강좌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업별 특성이나 연령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강좌가 구성되고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에 적절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확

보하고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의 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강사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일정한 수준의 강의를 꾸준히 유지될 있다.

- 더불어 강사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강사 협의회나 강사 연수회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안을 구성하고, 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규 강사의 경우 국어문화학교의 성격과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강사들은 전체 강사 연수회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간의 협의나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강사들의 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최신의 학문적 경향나 수요자의 요구가 강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강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 다각화된 시각을 반영한 교육 시설의 변화 및 확충

- 국어문화학교가 시작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어문규정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국어 관련 교육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은 이미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육 내용과 시설을 뛰어 넘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시각에서 국어문화학교의 여러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 시설과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일부만 수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환경의 구축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국어문화학교 전체 인프라에 대한 점검 및 분석 작업을 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국어문화학교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조사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타 유사한 성격의 교육원·연수원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어전문교육기관화의 밑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및 질적 발전을 위해 총괄적인 교육 연수 체계 및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대상별·목적별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소규모 분임 교육 등이 가능한 교육연수시설의 설립은 국립국어원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

이다.

- 또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수강생 확대가 그 목적이 될 것이며, 이를 넘어서 국립국어원 자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도 국어문화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홍보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 및 청소년의 방문 견학·교육 시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국어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나 체험형 관람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 온라인 국어 교육의 기반 강화 및 저변 확대

- 한편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넘은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국어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립국어원도 조직 개편이나 신규 예산 확보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2010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오프라인 교육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환경이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은 현재 점차 그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부의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보이는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교육 시장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 수강생들이 보는 교육 콘텐츠의 질이나 내용은 점점 교육 대상과 교육 목적에 맞게 세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수강생의 이목을 끌어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웹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교육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 직접 개발하는 콘텐츠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록 타 기관과의 교육 콘텐츠 공유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보조 자료의 개발에도 힘써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고도화 작업 및 향후 꾸준한 관리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의 확보 역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의 발전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 [과제 7] 강사 선발 및 지원 체계 구축

### □ 사업 개요

- 강사 선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안정적인 강사 인력풀 관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강사 교육 및 관리

### □ 사업 목적

- 강의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 수강생의 특성(연령, 수준, 직업 등)을 고려해 강좌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 및 확장에 부합하여 전국 단위로 강사진을 구성해 국어문화학교 정규 과정 및 기획 과정 운영의 안정화
-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강사 모니터링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강사 연수 시행
- 강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협업 지원

### □ 사업 내용

- 강사 선발 기준 마련(2016, 2019년)
  - 강의 과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 기준 마련 및 절차 수립
  -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위한 기초 소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강사 평가 지표 구축
  -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 선발
  - 국어문화학교 강의 전문위원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역할, 위촉 기준 및 절차와 해촉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강사 선발 시행(2017년 이후 지속)
  - 매년 초 관련 기관에 공문을 통해 강사 섭외 협조 요청
  - 강사 선발 기준에 의해 강사 선정 및 교육 시행: 지역 국어문화원 소속 강사(학위 소지자) 및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사대, 교대) 학위 소지자, 한국어 교육 종사자 등을 고르게 선발

- 강사 인력풀 관리(2017년 이후 지속)
  - 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 전산화: 강의 가능 지역, 강의 가능 과목, 강의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 누적, 관리
  - 분기별로 강사 인력 관리 및 결원 보충 및 피드백 제공
  - 실효성 있는 강의 평가 기준 마련, 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수 시행:
  - 정기적인 대규모 교사 연수회 개최: 신설 교육과정 및 최신 교수법 연수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 정기적인 강사 연수 등 온-오프라인
  -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대상자 및 신규 채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 마련
  
- 신규 강사 교육 강화(2017년 이후 지속)
  - 신규 강사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기본 강좌들에 대한 기초 교육(교육 연수) 시행
  - 신규 강사 중 교육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하반기로 연 2회 시행
  
- 전문 강사진을 위한 총괄적인 교육 연수 체계 마련(2016~2017년)
  - 지속적인 강사 모니터링을 통한 강사 평가와 연계한 강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강사 간 정보 공유 및 강의에 대한 논의 기회 제공
  - 지방/소규모 분임 교육이 가능한 강사 재교육 시스템 마련: 소규모 교수학습 개선 세미나 시행
  - 강사 협의를 통해 국립국어원 차원의 표준 강의안 마련: 강사 연수 등을 통해 공유
  - 우수 강사 지원 체계 마련
  
- 사업 예산
  - 3천 5백만 원 (강사 선발 기준 마련, 강사 선발 시행, 강사 인력풀 관리)
  - 5천만 원 (신규 강사 교육 강화, 연 2회)
  - 5천만 원 (전문 강사진을 위한 총괄적인 교육 연수 체계 마련)

## [과제 8] 교육 시설 및 교육 기반 확충

### □ 사업 개요

-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 및 확장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지원

### □ 사업 목적

- 국어문화학교 오프라인 교육의 질 향상 및 수강생의 교육 편의 확대
  -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따른 교육 시설과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일부만 수용 가능한 상태
- 국립국어원의 교육 및 연수 기능의 확장을 위한 토대 확보
  - 공무원 및 동·하계 방학 교사 연수 수요 대처 필요
  - 한국어 교육 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라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확대되는 추세, 이를 운영할 연수 시설 미비
  -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조사 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 마련(붙임 참조)
- 국립국어원 교육 및 연수를 통한 국립국어원 홍보 효과 제고
  -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을 방문하는 수강생이나 학생들이 국립국어원과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시설 마련

### □ 사업 내용

- 국어전문교육기관화를 위한 교육 시설 확충 컨설팅 진행(2016년 1-6월)
  -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어문화학교 전체 인프라에 대한 점검 및 분석
  - 원내 방문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 시설 관련 설문 조사 시행: 수요자의 인식 확인
  - 여타 유사한 성격의 교육원·연수원 시설에 대한 조사 미 분석

- 수강생 확대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 홍보 방안 마련(2016년 7-12월)
  - 수강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안내 방안 컨설팅 및 계획 수립
  - 홍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 주기적으로 홍보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시행: 운영상의 미비점 확인, 보완책 마련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및 산하기관, 교사 및 일반 성인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확대
  
- 국립국어원 홍보 및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2016년 7-12월)
  - 성인 및 청소년의 방문 견학·교육 시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국어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마련
  - 국립국어원 인식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콘텐츠 구축 및 방문자 체험형 관람 시설 마련
  
- 안정적 운영 및 질적 발전을 위한 총괄적 교육 연수 체계 마련(2017-2019년)
  - 교육 대상별·목적별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 시설의 확보
  - 대규모/소규모 분임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및 숙박·편의 시설 마련
  
- 교수 요원 및 교육 운영 인력 확보(2017-2019년)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층별·수요자별 맞춤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교육 운영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교육 운영 요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직) 상주 인력 확보
  
- 사업 예산
  - 2억 원 (강의 시설 확충 및 견학을 위한 국어 관련 콘텐츠 시설 마련)
  - 10억 원(연수원 및 숙박 시설 설립)
  - 5천만 원(교육 운영 요원 및 전산 관리 인원 2인 인건비/연간)



[붙임] 국립국어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연중 운영 횟수

- 교육연수와 운영 교육 프로그램(연중 30회 내외)

| 교육 분류    | 대상                          | 개최 횟수   | 형태       |
|----------|-----------------------------|---------|----------|
| 공무원·일반인반 | 공무원, 일반인 누구나                | 연 14회   | 집합<br>교육 |
| 교사반      | 유·초·중등 교사 및<br>교육 전문직       | 연 4회    |          |
| 특별 과정    | 특별 과정 내용을 필요로<br>하는 공무원 신청자 | 연 8-10회 |          |

- 한국어진흥과 운영 연수 프로그램(연중 14회 내외)

| 연수회명           | 대상                      | 개최<br>횟수                             | 형태                                   |
|----------------|-------------------------|--------------------------------------|--------------------------------------|
| 국내<br>교원<br>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br>한국어 교원 연수회  | 법무부<br>사회통합프로그램<br>한국어 교원<br>연 2회    | 온-오프라인<br>통합 교육                      |
|                | 다문화 가족 한국어<br>교원 대상 연수회 | 여성가족부<br>다문화 가족 대상<br>한국어 교원<br>연 1회 | 온-오프라인<br>통합 교육                      |
|                | 국내 한국어교원 공동<br>연수회      | 국내 대학 기관<br>한국어 교원<br>연 2회           | 집합교육                                 |
| 국외<br>교원<br>대상 | 세종학당 교원<br>양성과정         | 세종학당<br>한국어 교원<br>연 1회               | 국내 집합 교육<br>(온-오프라인<br>통합 교육의<br>일부) |
|                | 국외 한국어 교육<br>전문가 초청 연수  | 국외 대학 한국어<br>교육 전문가<br>연 1회          | 국내 집합 교육                             |
|                | 한국어 전문가 국외<br>파견 연수     | 국외 한국어 교원<br>연 7회                    | 국외 집합 교육                             |

## [과제 9]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고도화

### □ 사업 개요

- 국어문화학교 교육 수요 및 확장의 대비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구축

### □ 사업 목적

- 시·공간의 접근성 제약을 벗어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대국민 서비스 수혜자 확대
- 온라인 교육의 학습 환경 향상을 통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누리집, 콘텐츠 분야의 일상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 현재 공무원 위주의 국어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인의 교육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구축과 교육관리 시스템 확보

### □ 사업 내용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개편(2016년 1~12월)
  - 매월 수료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 결과 및 교육생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한 컨설팅 작업
  - 교육활성화(참여율 제고) 및 수강생들의 체계적·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 마련을 위하여 타 교육 누리집 서비스 분석, 메뉴 개편 및 확장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최초 구축 연도: 2010년)
  - MP3나 교재 무료 다운로드 등 학습 도움자료 제공, 개인별 교육경력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맞춤형 교육 관리 기능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2016년 1-12월)

-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웹상에서의 교육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모바일 활용을 위한 체계 전환 및 구축
  - 기 개발된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모바일용 전환 작업 실시
  - 각 콘텐츠의 형식 분석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과의 최적화 작업 실시
    -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총 17개 온라인 강의 콘텐츠 보유(2015년 말 현재)
-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강의 교재 개발 및 공동 운영(2018년 이후)
- 중앙공무원교육원, 각 지방행정연수원등과 협력하여 국립국어원 강의 콘텐츠를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각급 교육원, 연수원의 요구와 대상, 목적에 맞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 사업 예산
- 4천만 원(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개편)
  - 1억 원(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변환 작업)

## 7.4. 발전 목표 설정 취지 4. 교육 체계 질 관리

### □ 교육 체계 질 관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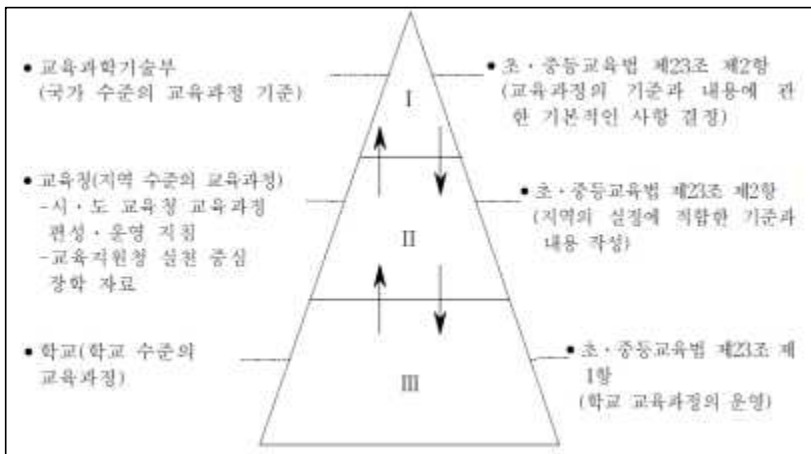
- 효과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극대화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전반과 교육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도 높은 질 관리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육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 교육 체계 질 관리 지표 개발 방안

- 교육의 효과성(effectiveness), 교육 계획 및 운영의 효율성(efficiency), 교육 대상의 형평성(equity) 등이 교육의 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일례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성인들이 참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른 측면들도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 계획 및 운영은 크게 요구, 과정, 결과의 단계로 구분 가능하며, 각 단계에서 질 관리와 관련한 지표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Fitzpatrick et al., 2004; 허숙 외, 2009: 11).

|          |          | 판단                                       |   |
|----------|----------|--|---|
|          |          | 무엇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 무엇을 시작, 지속, 확대할 것인가?                            |
| 초점<br>질문 | 요구<br>평가 |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델을 어떻게 적합하게 만들 것인가?         | 교육과정을 시작해야만 하는가?<br>충분한 요구가 존재하는가?              |
|          | 과정<br>평가 |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가 더 필요한가?       | 교육과정을 지속시켜야 할 만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의 수가 충분한가?        |
|          | 결과<br>평가 | 기대하는 결과를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할 만큼 이 교육과정은 기대하는 결과를 충분히 성취하고 있는가? |

-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체계의 질 관리에 있어 질 관리의 대상과 각 대상별 질 관리 지표 선정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교육 실행의 주체는 크게 국가, 지역, 학교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각 주체별로 주요하게 평가해야 할 질 관리 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설정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이러한 구분을 참조하면,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의 주체는 국가수준(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지역수준(각 지역의 국어문화학교), 학교수준(국어문화학교의 개별 강사)으로 구분 가능하고, 이들 각 주체에 맞는 질 관리 지표 개발이 가능하다.

□ 교육 체계 질 관리 지표의 사례

- 일례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의 국가수준 질 관리 핵심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황규호 외, 2012: 55). 이 지표 중 일부는 성인 국어 능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또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수준의 질 관리 지표 개발에 참조 가능할 것이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의 구성 요소 및 내용의 충실성과 명료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의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규정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li>-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비전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li>-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 급별 교육목표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li>- 학교 급별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li>-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방향에 대한 지침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li>- 시도교육청에 대한 역할 규정 및 지침의 충실성 및 명료성</li> </ul> </li> <li>○ 총론의 내용들이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자의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의 내용 분석</li> <li>○ 총론의 개발 체제와 과정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의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체제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도의 적절성</li> <li>-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제도의 적절성</li> <li>-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적절성</li> <li>- 교원 교육 및 인사 제도의 적절성</li> <li>- 사회의 교육적 자원의 활용 체제의 적절성 등</li> </ul> </li> <li>○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육의 질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성취도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li> <li>-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li> <li>-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충실성에 대한 실태 조사</li> <li>- 교육과정의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현장 교사 및 각계인사의 의견 조사</li> <li>- 교육과정의 개혁 동향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li> </ul> </li> </ul> </li> </ul> |
|--|

## [과제 10]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체계 질 관리 방안

### □ 사업 개요

- 성인 국어 능력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질 관리 방안(지원 체계 및 평가 체계) 연구

### □ 사업 목적

-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전반의 지원 체계 및 운영 성과를 각 단계, 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마련
- 구체적인 평가 지표 개발(평가 요소 상세화 및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 사업 내용

- **【1단계】** 기존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2016년, 2018년)
  - 기존에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검토
  - 교육 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각 수준에 속한 주체(기관 및 강사) 대상의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 **【2단계】** 성공적인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을 위해 각 단계, 각 주체(수준)별 핵심 질 관리 항목 도출 및 상세화(2016년, 2019년)

| 단계 | 국가수준(국립국어원) | 지역수준(문화학교) | 강사수준 |
|----|-------------|------------|------|
| 계획 |             |            |      |
| 운영 |             |            |      |
| 평가 |             |            |      |

- 성인 국어 능력 교육에 관여하는 각 주체(국가 기관-국립국어원, 각 지역 교육기관, 개별 강사 등)의 역할과 기능, 주체 간 상호협력 체계 등을 상

세화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각 주체별로 교육과정 실행의 각 단계(투입, 과정, 산출)에 점검해야 할 질 관리 요소를 유목화
- 국가수준(국립국어원)의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질 관리 항목의 예로 성인 국어 능력 교육에 관여하는 각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guide book) 제공 여부’ 항목 설정 가능
- 초중등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도서’ 성격에 해당하는 안내 자료 개발을 통해 성인 국어 능력 교육이 보다 충실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제공

○ 【3단계】 교육과정 실행 질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2016년, 2019년)

- 질 관리의 각 항목을 지표로 개발하여 목표치를 상세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질 관리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안 수립에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
- 델파이 조사를 통한 지표 타당화
- 지표 체계의 예

| 수준 | 단계 | 지표명 | 단위 | 목표 | 달성 | 달성률 |
|----|----|-----|----|----|----|-----|
| 국가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50,000천 원

○ 기존의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 20,000천 원

- 문헌 조사(인건비): 10,000천 원
- 설문 조사 및 결과 처리: 5,000천 원



- 면담 조사: 5,000천 원
- 질 관리 항목 도출 및 상세 지표 개발: 30,000천 원
  - 문헌 조사(인건비): 10,000천 원
  - 전문가 협의회 및 델파이 조사: 10,000천 원
  - 지표 개발: 10,000천원

□ 사업 계획 및 예산 관련 참고 자료

질 관리 방안 연구의 예

| 발주처           | '과제명   | 수행기관(연도)                     | 예산(천원) |
|---------------|--|------------------------------|--------|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중학교<br>국·수·영 교과 교육의 질 관리<br>방안 | 한국교육과정평<br>가원(KICE.<br>2015) | 90,000 |

##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2015). 2015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가이드북.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HumanAssessment Institute(2013). 직업기초능력평가 문항해설서. 의사소통 국어.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교육비전 2030.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구영산(2013).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국어 능력의 한 가지 정의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43, 349-378. 한국어교육학회.
- 구현정(2010). 다문화 사회의 화법 교육 방향: 학생 현황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7집, 9-4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일본 평생교육 우수사례 테마연수 결과보고서.
-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01-46). 국립국어원.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 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윤정(2008). 일본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김창원 외(2014). 문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교육부.
- 김홍만·이은경·박주호(2013). 직무현장 기반의 대졸취업자 소통역량 측정 모델. 아시아교육연구 14(4), 97-12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노국향 외(2014). 2013년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틀.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주)HumanAssessment 연구소.
- 민병곤(2013). 고도 전문화 시대의 언어 인식과 교육적 대응.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46집, 77-109.
- 민용성 외(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총론>.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민현식(2015).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50, 6-46.
- 박동열 외(2013). 직업기초능력과 보통교과의 통합수업을 위한 교사지도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숙 외(2006).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인기(2009). 교과와 생태와 교과와 진화 : 교과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어교과의 진화 조건.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34집. 309-343.
- 박인기(2010). 화법 교수의 유효성과 미래적 가치 모색.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6집. 9-30.
- 박인중(2009).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19, 33-53.
- 박재윤·이정미·김택형(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08-1-58). 국립국어원.
- 박재현(2007). 리더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본질 연구.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0집. 57-90.
- 박재현(2014).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재현·노국향(2015). 직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적 구조와 평가틀 설계. 국어교육 149, 29-52.
- 서영진 외(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국어>.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영진(2015).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대비한 화법 교육 내용 개발 방향 탐색.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27집. 101-137.
- 서혜란(2014). 한국과 일본의 독서정책 분석. 독서연구 31, 97-126.
- 설규주(2010).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과 화법교육.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7집. 41-69.
- 안광식·최완식·이영민(2007). 교사가 인식하는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요구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3), 31-46. 한국기술교육학회.
- 양병찬(2011). 일본의 평생교육 체제와 주민 참여. 외국교육동향(2011년 8월 25일,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
- 양정실·구영산·김영란(20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국어과 진단평가 도구 및 보정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보고 CRI 2013-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육현진(2013). 문식성 재개념화와 새로운 문식성 교수학습을 위한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학회) 제47집. 61-86.
- 우한용(1980). 국어과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국어과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37, 185-208. 한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현진 외(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비전 연구(1)>.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2012).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기(2009). '실용' 시대, 국어교육의 정체성 모색. 청람어문교육 39, 47-71. 청람어문학회.
-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창덕(2013). 국어 화법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우리말교육현장학회). 제7권 제1호 7-38.
- 이혜영 외(2007).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임철성(2011). 화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교육>(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10집. 261-288.
- 장경희 외(2009).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장혜순(2010). 다문화사회의 대인관계와 화법교육.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7집. 99-136.
- 전은주(2014). 스마트 교육 시대의 화법 교육.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49집 제2호. 5-34.
- 조수진(2010). 다문화 사회 학습자를 위한 화법 교육 내용 체계화 방향. <화법연구>(한국화법학회) 제17집, 71-97.
- 조정윤·박동열·김종우(200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2003)(IV)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 운영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인중·박동열·진미석(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기본연구 201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2013). 2013년도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K-CESA) 구축사업(연구보고13-18).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박경현(2014). 대학생 핵심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역량의 진단과 특성. 국어교육 146, 25-56. 한국어교육학회.
- 최미숙 외(2012).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2006).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성인기초능력 개념 모형과 연구동향분석. 평생교육연구 12, 225-25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 한정현·김혜숙(2013). 다문화 시대 화법교육의 방향성 모색,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제95집, 181-220.
- 허숙·김경자·강현석·박상철·김경희(2009). 2009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규호·김경자·서경혜·홍원표·온정덕(2012).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Brown, P. & Levinson, S.(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stede, G.(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2nd ed.),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OECD(2013a). Skilled for life:: Key finding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Paris: OECD.
- OECD(2013b).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literacy. Paris: OECD.
- UNESCO(2013). Adult and youth literacy: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trends, 1985-2015. Quebec, Canada: UNESCO-UIS.

## [부록: 전문가 서면 인터뷰 양식]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 개발 설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일환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자료는 이 연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담당자: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재현(parkjh@smu.ac.k)

1. [교육 목표]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가족 내 소통, 직장 생활(직무 문식성),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매체 생활(매체 문식성), 자기 계발, 문예 창작 등

[전문가 의견]

2. [교육과정]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또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

3. [교육 평가] 현재 국어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성인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상: 전 국민 표본 추출 조사 (20세~59세 성인 남녀 3,000명 대상)  
 방식: ‘듣기, 문법, 읽기’ 는 선택형 평가, ‘쓰기, 말하기’ 는 수행 평가

[전문가 의견]

4.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의견란에 적어 주십시오.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u>국어 교육과정 개발</u>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u>국어 교육 내용 개발</u>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u>국어 연수</u>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국민 대상 <u>국어 능력 평가</u> (실태 조사)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u>전문 강사 양성</u>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국어 능력 소외 계층 집중 진단 및 교육적 지원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전문가 의견]

5. 현재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공무원, 교사, 군인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 다음은 현행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훈민정음의 이해, 띄어쓰기, 생활 속의 어문규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표준언어 예절



[전문가 의견]

**5-2. 국어문화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문화학교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견1: 현재와 같이 공무원, 교사, 군인을 대상으로 직접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의견2: 교육 내용 연구개발과 전문 강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접 교육은 전국 국어문화원, 대학, 연구소에 위임한다.

의견3: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전문가 의견]

## [부록: 국어문화학교 실태 조사용 설문 양식]

### I.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이 교육을 어떻게 아셨나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보고  ② 교육 안내 공문을 보고  
 ③ 주변 사람을 통해  ④ 기타 ( \_\_\_\_\_ )

2. 이 교육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이신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② 교육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③ 다른 교육을 신청하지 못해서  ④기타 ( \_\_\_\_\_ )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br>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우<br>그렇<br>다            |
|--|----------------------------------|--------------------------|--------------------------|--------------------------|--------------------------|
| 3.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잘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국어문화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 지원을 잘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1.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수업의 비중은?                            | 오프라인 수업(     )% : 온라인 수업(     )% |                          |                          |                          |                          |
| 6. 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간(5일)은 적절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은? | (     ) 일                        |                          |                          |                          |                          |
| 7. 교육비용은 적절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은? | (     )원                         |                          |                          |                          |                          |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의 칸에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II. 교육 프로그램 전반

| 질문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8. 강좌의 수는 적절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강좌의 편성 비중은 적절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0. 전체 교육 프로그램(5일)의 전반적 짜임은 체계적이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Ⅲ. 개별 교육 프로그램

※ 각각의 항목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응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1)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                          |                          |                          |                          | (2) 강사는 전문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었다.       |                          |                          |                          |                          | (3) 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                        | 보<br>통<br>이<br>다         | →                        | 매<br>우<br>그<br>렇<br>다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                        | 보<br>통<br>이<br>다         | →                        | 매<br>우<br>그<br>렇<br>다    | 전<br>혀<br>그<br>렇<br>지<br>않<br>다 | ←                        | 보<br>통<br>이<br>다         | →                        | 매<br>우<br>그<br>렇<br>다    |
| 11. 쉬운 언어 쓰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2. 한글 맞춤법(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3. 한글 맞춤법(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4. 표준어 규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5. 띄어쓰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7. 공문서 바로 쓰기(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8. 공문서 바로 쓰기(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9. 외래어 표기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0. 훈민정음의 이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                          |                          |                          |                          |
|----------------|--------------------------|--------------------------|--------------------------|--------------------------|--------------------------|--------------------------|--------------------------|--------------------------|--------------------------|--------------------------|--------------------------|--------------------------|--------------------------|--------------------------|--------------------------|
| 21. 우리말 다듬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2. 표준발음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3. 생활 글쓰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4. 글쓰기 지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5. 말하기(의사소통)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6. 국어정보 활용 방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7. 특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IV.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한 요구 조사

※ 여러분의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해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답변해 주십시오.

|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나의 직무<br>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전혀<br>그렇<br>지<br>않다      | 그렇<br>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우<br>그렇<br>다            |
|---|--------------------------|--------------------------|--------------------------|--------------------------|--------------------------|
| 28. 정보의 검색과 수집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9. 정보의 평가와 조직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0.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활용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1. 독서 토론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2. 회의와 의사결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3. 정책 토론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4. 인간관계를 고려한 직장 대화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5. 지시와 보고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6. 협상과 갈등 관리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7. 프레젠테이션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8. 실무 보고서 작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9. 보도 자료 작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0. 국회 답변서 작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1. 계약서, 협상 문서 작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2. 제안서 작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43. 고객 응대를 위한 소통 방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4. 일반인 대상 창의적 홍보 방법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직무 능력 신장과 관련하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교과목이 있으면 아래의 칸에 적어 주십시오.

## V. 숙박 및 편의

45. 교육 중 어떤 점이 불편하셨습니까?

- ① 국립국어원의 위치       ② 교육 시설과 환경  
 ③ 숙박 문제                       ④ 식사 문제  
 ⑤ 기타 ( \_\_\_\_\_ )

46. 교육 중 어디에서 숙박하셨습니까?

- ① 자가                               ② 숙박업소                       ③ 찜질방  
 ④ 서울 거주 가족, 친인척집       ⑤ 기타 ( \_\_\_\_\_ )

※ 위 문항에서 ② 숙박업소에 답하신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47. 이용하신 업소의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1인당)

- ① 3만 원 이하                       ② 3만 원 초과 ~ 4만 원 이하  
 ③ 4만 원 초과 ~ 5만 원 이하       ④ 5만 원 초과 ~ 6만 원 이하  
 ⑤ 6만 원 초과

※ 교육 기간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신 분께 드리는 요청 및 질문입니다.

48. 다음 교육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숙박업소를 이용하셨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숙박료:

49. 숙박업소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50. 교육 중 느꼈던 소감이나 건의 사항을 써 주십시오.

## VI. 기본 인적 사항

※ 국어문화학교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만 사용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51. 학과명:      강당반                    중1층반      3층반  
52. 연령:       만 (            ) 세  
53. 성별:        남자            여자  
54.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55. 직종:        공무원            교사                    군인  
           회사원      기타 (            ) )  
56. 직급/계급:   (            ) )  
57. 경력:       (            ) 년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문화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medium-to-long-term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order to enhance adult Korean proficiency. To achieve this, first, I studied communication competence demanded by future society and selected key components of adult Korean proficiency with emphasis on job and media literacy.

Second, I diagnosed the current state of adult Korean proficiency by examining the result of the 2013 PIAAC by NIKL which evaluated Korean proficiency of 3,000 adults.

Third, I studied foreign policies for promoting language proficiency of their adults. England and Canada have devised educational plans and organized curriculum for communication. Japan created various participatory programs including reading groups. Norway is also carrying out programs to achieve language equality. The German government has supported a range of systematic and high-budget programs for adult workers.

Fourth, expert opinions on the promotion of adult Korean proficiency were gathered in form of short-answer survey. The subjects for survey composed of 15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and the questionnaires focused on what should be the emphasis of Korean educati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curriculum,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Korean proficiency tests.

Fifth, I examined the language awareness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relation to adult Korean proficiency. By statistically analyzing the data on Korean education from the 2015 language awarenes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 was able to extract the fields of general interest and demands for improving linguistic abilities.

Sixth, I studied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searched for feasible improvement points. A set of survey questions were given to each of the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Culture Academy, after which the answe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obtai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 and demands from the students.

Seventh, by integrating steps 1 through 6, I established 4 development objectives and 10 tasks by year as medium-to-long-term plan for improving adult Korean proficiency. Development objective 1 is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for adults', 2 is 'assessment of adult Korean proficiency', 3 is 'enhancement of education programs' and 4 is 'educational system quality management'. 10 detailed tasks were presente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Keywords: Korean proficiency, communication competence, Korean education, Korean proficiency test, Korean curriculum

연구책임자 : 박재현(상명대학교)  
공동연구자 :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김중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기연(국립국어원)  
                  이유원(국립국어원)  
연구보조원 : 문서정(상명대학교)  
                  유희진(상명대학교)  
담당연구원 : 최용기(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  |
|-----|--|
| 발행인 | 송철의  |
| 발행처 | 국립국어원<br>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br>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
| 발행일 | 2015년 11월 30일  |
| 인쇄일 | 2015년 11월 30일  |
| 인 쇄 | 상명문화사  |

※ 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